



4

198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4호

(루게 486)



◆◆◆◆◆◆◆◆ 차 례 ◆◆◆◆◆◆◆◆

아버이 그 한생 생각하면서	4
수령님 걸으신 길이여	5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예술적 탐구	6
삼지연의 붓나무	10
세계가 부르는 노래 (외 1 편).....	11
휴양의 나날에	11
혁명연극 3인 1당	12
동만의 갈림길에서.....	24
만경대, 여기서... ..	32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은 공산주의문학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대백과전서	33
은정의 길	38
인간세상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 각하께 드리는 헌시	50
화 불	50
그이 기뻐 웃으실 때	51
배 낭	51
민족의 긍지	52
아아,메아리 (외 1 편).....	55
백두산 마루에 남겨두고서	55
4월의 꽃	56

이 마음 있어.....	57
나를 키워주는 품.....	58
조국의 모습에서.....	59
기슭.....	60
파발리의 총소리.....	66
우리의 축전무대.....	67
명제해설.....	68
영생의 언덕에서.....	69
한 농민의 이야기.....	70
총을 놓지 않으리.....	71
봄날아침.....	71
탄부의 꿈.....	72
흰 연기의 흐름속엔.....	73
체험의 진실성과 생동한 시형상.....	74
작가의 문체.....	76
송원의 메아리.....	79
동무여 또다시 떠나자.....	80

아버이 그 한생 생각하면서

강립석

얼마나 많은것을
잃으셨습니까

조국을 찾자고
그처럼 험한 길 걸으시던 부모님
조국 아닌 이역의 하늘아래 잃으시고
늘 곁에만 있고싶어하던 동생마저
먼저 보내신 수령님

얼마나 소중한것을
바치셨습니까

눈덮인 백두의 산록
피어린 전투와 전투들에
다시 못오는 인생의 봄
열혈의 청춘을 보내시고

참으로 자신을 위해서는
그처럼 참기 어려운 고통과 수난을
흔연히 새기시고
눈물없이 이겨가시면서도

부모 없는 한 아이를 위해서는
긴 겨울밤을 뜬 눈으로 새우시고
자식 잃은 한 로인을 위해서는
독한 술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늙어가는 전사의 여생은
뜨겁게 보살펴주시면서도
자신은 감감 잊으신듯
새로운 구상만 펼치십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하여 !

오직
인민을 위해서만 슬퍼도 하시고
인민을 위해서만 분노도 하시며
오늘의 행복우에 우리를 세워주신분

아, 수령님 한생은
자신을 바쳐 인민을 위해 주신
아버이의 나날 !
헌신의 나날 !

하기에 우러러 더듬으며
사람들 뜨겁게 말합니다
나도 삼가 노래합니다
수령님 그 한생 위대하다고 !

허나
누구도 감히 가벼이는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위해 바치신
그 숭고한 희생
그 크나큰 상실 다 알기전에는 !

아, 갇아드리고싶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주신 한평생
그 잊지 못할 봄과 가을들을 !
모시고싶습니다
그 나날 다시 펼쳐놓고
기쁘시게만 편하시게만 모시고싶습니다
만수무강하시게 모시고싶습니다

수령님 걸으신 길이어

김남걸

언제나 열려있는 고향집 사립문을
내 말없이 나선다
술발 우거진 만경대 언덕을 오르며
나는 생각한다

우리 수령님 걸으신 길 얼마나 될가

저 숲속에 흘러간 한줄기 오솔길에도
혁명의 만리길이 굽이쳐오고
살구꽃 핀 울바자너머엔
백두의 산발들이 우뚝이 마주 일어서고

눈시울 뜨겁게 밟혀와라
눈내리는 저 언덕을
우리 수령님
깊신자욱 남기시며 떠나가실 때

백설 무거운 소나무아래 흰머리 날리시며
오래오래 뜨지 못하신 할머니께선
가슴 메여 생각하셨으리

떠나가신 길을 길다면 석삼년을 넘기라
소문도 없이
그 험한 오가산령 넘어 천리를 오신 장군님을
두팔 벌려 맞으신 그 아침처럼
그 어느날엔 햇빛같은 웃음을 담으시고
돌아오시리라

돌아오시지 못하셨다
삼년석달을 넘어
열손가락이 모자라게 해가 바뀌었어도
아니 오시였구나
그 모진 세월...

아 쪽박 하나도 등에 무거웠던 그 세월
겨레의 운명을 한 어깨에 다 떠메시고
그 험악한 피바다를 다 넘으시고
그 사나운 눈보라를 다 헤치시고
행진 두른 차림으로 이십여성상을
넘고 넘어오신 길

나는 생각한다

만경대 갈림길을 지나
떨어지는 나무잎을 밟으시며
우리 수령님 걸으신 그 길은
참으로 얼마일가

이 땅의 모든 구내길은
그이의 자욱따라 것처럼 밝게 열리고
이 땅의 모든 이랑들과 두렁길들은
이슬젖은 그이의 옷자락에서
봄날의 첫 훈향이 일어
오곡이 설레인다

아!
하늘에 열린 저 창가에도
그이 잡으셨던 손잡이의 온기가 어려있고
아이들 뛰노는 유희장에도
터전을 잡아주시던 잊지 못할 이야기
뜨겁게 새겨져있네

두메이라
섬마을이라
우리 숨쉬며 사는 이 땅 어디나
그이 다nerg진 길이 있으니

하늘의 별을 다 내리면
그 자욱을 수놓을수 있으랴
지구를 몇바퀴 돌면
그 길의 끝에 가 닿으랴

아, 그 길이어라
너와 나
우리모두의 행복이 합쳐진 길
우리 조국의 미래가 펼쳐진
수자로는 계산할수 없는 길

그 길의 끝은 어디메나
내 한생이
태어날 후대들도 영원히
만대를 이어 그 사랑의 길을 따라
행복한 삶을 누려갈
우리 수령님 걸으신 길이어 !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예술적 탐구

김용부

장구한 인류사상사에서 과학적인 맑스주의가 창시되고 수천년을 헤아리는 계급투쟁사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된지도 한세기가 넘었으며 더우기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예술이 탄생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창작방법이 형성된지도 반세기가 훨씬 넘었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 기간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고 수령의 혁명력사를 문학예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한 나라는 없었다.

사상리론의 위대한 거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사명 그리고 우리 인민과 전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깊이 헤아리신데 기초하시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수령형상창조문제를 기본문제로 내세우시고 인류 문예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론을 완벽하게 체계화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탐구로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제반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고 창조과정을 직접 지도하시어 영원불후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직접 모신 총서형식의 장편소설들과 중단편소설들, 《조선의 별》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영화들과 송가문학을 가진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으로 되였다.

그러나 조성된 정세와 발전하는 현실은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질적 비약을 요구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합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서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품모의 위대성을 인식시키는데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 무기인 우리의 혁명적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품모의 위대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창조적인 사색과 정열적인 탐구로 수령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하여 우리 문학의 귀중한 재부를 더욱 풍만하게 하여야 한다.

1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리론의 위대성에서 표현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발전과 계급투쟁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예견성, 천리혜안의 통찰력으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로동계급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무장시켜 자주성과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추동한다.

맑스는 맑스주의를 창시하여 새롭게 국제무대에 등장한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밝혀주고 전세계 피압박인민대중을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간 력사적 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발전시켜 레닌주의를 내놓음으로써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제국주의 아성을 짓부시고 로동자, 농민, 병사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로동계급의 정권전취에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시였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공산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밝은 전도를 내다보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모를 높은 차원에서 진실하게 형상

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수령관 확립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예술적 형상으로 재현하는데 모를 박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탁월한 정도방법도 고매한 덕성과 위대한 인간적 품모도 다 수령의 사상을 원천으로 하여 흘러나오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문학은 많은 경우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감명깊게 형상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왔다.

물론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가장 숭고한 인민적 품모와 공산주의적 덕성을 그리는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참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그들에게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깊이 체험시키는것이다.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독자들에게 진실하게 체험시키는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 주제분야가 적게 제기되고 제기된 경우에조차 덕성주제에 많이 융해되어 버린것은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형상적 화폭으로 그려내는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그러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형상적 화폭으로 그려내어 독자들에게 진실하게 체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미학실천적 묘술이 탐구되어야 하는가.

우선 현실속에서의 절절한 체험,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거쳐 위대한 사상리론을 발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모를 숭고한 정신적 높이에서 일관하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일부 소설들에서는 위대한 진리발견의 전과정을 치밀한 구성조직속에서 일관하게 주지 않고 덕성을 끌어넣어 그속에 파묻히게 하고있으며 절정대목에서는 레외없이 사상의 위대성에 감복되는 주인공이 아니라 뜨거운 덕성을 받아 눈물짓는 인물을 그리고있다.

어느 한 군사물주제의 단편소설에서는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군사훈련으로 정세가 매우 긴장된 조건에서도 전연에서 적과 맞서있는 인민군부대를 후방으로 부르시여 서해갑문 건설을 맡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사상을 이야기하고있으면서도 작품의 절정에 선 주인공은 이 위대한 사상에 공감되는것이 아니라 한평생 사랑만 받아온 그에게 60 톤 생일상까지 차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흐느껴 울게 만들고있다.

이러한 소설을 읽고 독자들은 위대한 사상을 체험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애를 뜨겁게 느끼게 된다.

창작가들은 높은 충성심과 대담성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을 작품의 중심화폭에 직접 모시며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위대한 사상리론을 발견하시는 과정을 숭고한 형상적 화폭으로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상리론은 그것에서재나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현실속에서 탐구하시고 발견하시였다는데 그 위대한 진리성이 있다.

언제나 천대받는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며 그들의 운명을 개척할 참다운 길을 모색하시던 우리 수령님, 언제나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작은 소망도 귀중히 여기시여 나라의 정책으로 받드시는 우리 수령님,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상리론은 그 어느 하나도 자신께서 겪으신 절절한 체험을 떠나서 주관으로 발견된것은 없으며 모두가 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이 집대성되어있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상리론의 이러한 계급적 성격과 인민적 성격을 인민들과의 호상관계속에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리론의 혁명적 성격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확증되는 과정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것을 받아안은 혁명전사들의 지성세계를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현재 수령형상작품에서는 제 3 자의 시점에서 사상의 위대성, 정도의 위대성, 정신도덕적 품모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이것은 복잡한 인간관계속에서 생활을 그려내고 생활속에서 사상을 드러내는 문학예술의 중요한 형상수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그 진리성을 평가하고 예술적으로 확증하는 대상인물의 수준과 지성세계를 높여주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는 권학식의 시점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그리고있다.

작품에는 강세호, 리복철, 리경준, 최선금, 차동범, 장기령 등 여러명의 혁명전사들이 등장하고있으나 작가는 일정한 학식과 제나름의 주의도 가지고있으며 온갖 풍상고초도 다 겪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권학식의 눈과 심장으로, 그의 감정과 리성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의 위대성, 정도와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권학식의 눈을 빌어 처음부터 마감까지 일관하게 그려 오다가 조국광복회창립장면에서 절정을 이루게 하고 행군과정에 주정도로의 형식으로 그의 심중에 축적되었던 감정을 폭발시켰다.

(태양에는 두가지 속성이 있다. 빛과 열이다. 금성장군님께서도 두가지 성품을 지니고계시니 즉 빛나는 예지와 뜨거운 사랑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 그것은 곧 태양의 빛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사랑, 그것은 곧 태양의 열이다. 그 광휘로운 빛과 따사로운 열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는 인간세계의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이시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리론과 덕성의 위대성에 대한 권학식의 심중의 토로인 동시에 전 민족적인 송가이기도 하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서 그리고있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리론도 바로 김혁, 차광수와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확인되고 생활적인 화폭속에서 그 진리성이 확증될수 있었다.

우리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 밑에 창작된 총서형식의 작품들과 혁명영화의 성과와 경험을 따라배워 과학적인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로 위대한 사상리론을 탐구해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모와 그것을 받아안은 인물들의 형상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그려냄으로써 우리 문학의 정치적인 대를 확고히 세우고 사상예술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2

수령의 위대성은 탁월한 령도력에서 표현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대중의 능숙한 조직자이며 탁월한 령도자이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여기에는 그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한데 기초하여 혁명력량을 편성하고 옳은 투쟁방향과 방

도를 제시하며 대중운동의 자연발생성을 극복하고 대중을 하나의 목적실현으로 능숙하게 이끌어간다.

오직 로동계급의 수령만이 비범한 조직적 수완과 동원력, 비상한 혁명적 전개력으로 대중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케 하며 혁명을 승리로 이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여 나라의 광복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미제국주의와 맞서있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는 전인미답의 길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려고하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우리 문학은 탁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모를 진실한 예술적 화폭에 담아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수령관확립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정치가로서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사상정신적 특질을 무게있게 형상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최근에 창작된 일부 단편소설들에서는 인민들속에 계시는 수령의 모습을 격식없이 소박하게 진실하게 그린다고 하면서 가볍게 형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어떤 풍과속에서도 중요없이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기하시고 위대한 정치가만이 지닐수 있는 완강한 의지와 담대한 정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며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로 령도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이처럼 확고한 자주적 정치적 신념, 창조적인 활동원칙을 정중하면서도 무게있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의 폭과 깊이를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력사는 반세기가 훨씬 넘는 장구한 기간이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있는 방대한 분야이다.

아직 세계는 이처럼 오랜 기간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를 수놓아오신 그런 수령을 알지 못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창조되고있는 총서 《불멸의 력사》와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예술형식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이 위대한 령도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그러나 단편소설을 비롯한 짧은 형식의 작품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힘을 적게 넣고있다.

창작가들은 인상깊고 매력있는 짧은 형식의 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탁월한 력도 예술을 빛나게 형상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충실성 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창조성을 최대한 발양시켜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력도예술을 품만한 생활속에서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실지에 있어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으시고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당의 로선과 나라의 정책을 수립하시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다.

창작가들은 이 위대한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다양한 생활화속에 진실하게 담아야 한다.

여기에서 작가들이 주의를 돌려야 할 점은 수령과 인민들과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맺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수령형상작품에 인민대중을 등장시키는것만으로는 아직 인민대중속에 계시는 수령을 형상하였다고 말할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의 전체에 불과하다.

수령의 위대성을 참답게 그리자면 수령과 인민들과의 관계를 사업상관계, 실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적인 관계로, 가장 친밀한 인간적 관계로 설정하고 그것을 생활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

그때만이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력도예술을 생경한 문리로써가 아니라 진실한 예술적 화폭으로 생동하게 창조할수 있으며 수령형상창조에서 고정격식화를 극복하고 숭고한 인간성을 지니신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풍모를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다.

3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에서 표현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한몸에 체현하고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는 위대한 혁명가이며 근로인민대중을 한없이 사랑하는 고매한 풍모의 소유자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한없이 숭고한 덕성과 혁명가적 풍모를 한몸에 체현하고계시는 혁명가의 위대한 귀감이시고 인민대중의 자애로운 아버이이시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 그들의 희망과 요구를 한몸에 체현하시고 그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한생을 바쳐 싸우시는 위대한 혁명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지칠줄 모르는 완강한 투지와 혁명적 정열을 지니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시는 혁명가의 위대한 귀감이시다.

우리 수령님은 한없이 겸허하시고 소탈하신 품성, 끝없이 인자하신 인품과 아량있는 포용력, 고결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일관되어있는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자애로운 아버이이시다.

우리 문학은 이렇듯 위대하신 수령님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의리로 간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문학은 덕성주체의 작품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에서 감명깊게 형상하여 덕성주체의 작품에서 세계적인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덕성주체의 작품창작에서는 일련의 부족점도 나타나고있다.

수령의 형상을 정중하게 그린다고 하면서 무거운 양상이 짙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바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도식과 류형이 낡은 결과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에서 도식과 류형은 독창성을 마비시키고 예술적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죽이는 매우 유해로운 현상이다.

더우기 가장 위대한 인간애를 그려야 할 덕성주체의 작품에서 도식과 류형을 극복하는것은 절실한 문제의 하나로 나신다.

창작가들은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정중하면서도 밝게 그려내야 한다.

수령형상을 정중한 자세에서 숭엄하게 창조한다는것과 어둡고 무겁게 그려 침울한 정서가 비끼게 한다는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령형상을 존엄성을 가지고 정중하고 숭엄하게 그린다고 하면서 무거운데로 끌고가는것은 정중성의 본질을 외곡하는 낡은 미학관의 발로이며 수령에 대한 인민의 참다운 사상감정을 모독하고 왜소화하는것이다.

수령형상에서 숭고하고 정중한 정서를 무거운 양상으로 끌고가는 결함을 없애자면 반드시 감상적인 경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중하고 숭고한 감정과 감상적인 느낌은 서로 다르다.

감상적인것은 생활에서 희망과 미래를 잃은 인간들의 슬픔과 비애의 산물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되고 밝은 미래와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신심에 넘쳐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슬픔과 비애란 있을수 없다.

우리 문학에서 이러한 감상적인 색채는 당과 수령의 은덕에 대한 감사의 정을 감동적으로 그린다고 하면서 애상적인 눈물을 짜게 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랑과 은덕을 눈물속에서 받아안아야 수령님의 위대한 덕성이 더 강조되고 부각되는것이 아니다.

눈물은 없어도 진심으로 느끼고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사색적으로 받아들이는것도 수령님의 덕성을 충분히 살릴수 있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인민대중의 흠모심을 뜨겁게 보여줄수 있다.

너무도 가슴벅찬 사랑을 예상외에 받아안았을 때 사람들은 꿈같은 사실앞에서 어리둥절할수도 있

으며 너무도 큰 충격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변변히 못할수도 있다.

눈물을 앞세우는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성격의 논리에 맞으며 훨씬 진실하다.

덕성주제의 작품에서 애상적인 양상을 극복하자면 감정의 축적과 폭발을 잘 조직해야 한다.

흔히 창작가들은 절정장면에서 폭발의 계기를 60 뛸, 70 뛸 생일상을 차려주신다거나 그 어떤 선물을 받는것으로 설정하고있으며 여기에 감동되어 주인공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것은 철학적 사색이 깊지 못한 창작가들이나 쓸수 있는 도식적인 수법이다.

작품에서는 처음부터 한없이 인자하신 사랑과 믿음으로 뜨거운 은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보여주다가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승화되면서 절정장면에서 스스로 폭발되는 과정으로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독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을 진실로 체험할수 있으며 덕성의 위대성이 살아날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품모의 위대성을 예술화하기 위한 몇가지 미학실천적 문제들을 간단히 고찰하였다.

필요상 주제별로 나누어 이야기하였으나 구체적인 형상작업에 들어가서는 위대성의 테두리안에서 호상 련관되고 호상 보충해주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탁월한 령도예술과 사상정신적 품모도 사상리론의 위대성에 시원을 두고있으며 위대한 사상리론도 령도과정과 고매한 품모를 보여주는 생활속에서 드러나며 한없이 숭고한 인민적 품모도 혁명과 건설의 령도과정에 나타난다.

그러나 창작가들은 자기가 설정한 주제방향을 확고히 살리면서 여기에 다른 문제들을 보충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수령의 위대성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가사**

교양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몇가지 예술적 수법을 탐구하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수령의 위대성을 그리는 문제는 창작가들의 립장과 신념에 관한 문제이며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혁명적 의리로 간직하고 최대의 충성심을 다 바쳐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여야 한다.

창작가들의 사상미학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철학적으로 무게있게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려고 해도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에 정통하여야 하며 령도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려고 해도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탁월한 전략전술을 환히 꿰뚫고있어야 한다.

창작적 기량도 더 높은 수준에서 련마하여야 한다.

생경한 논리와 추상적인 정치적 개념의 설명을 극복하고 생활속에서 사상이 드러나고 정서로 안받침된 고상한 사상을 감명깊게 보여주려면 창작적 기량을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자신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인정할 때 자신의 사상리론적 수준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훌륭히 형상할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창작가는 붓을 들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꾸준한 사색과 정열적인 탐구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수령관확립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삼지연의 붓나무

김관식

삼지연못가의 두그루 붓나무
장군님과 어머님의 조국진군 맞이했네
아, 력사의 그날에
광복의 해발안고 붓나무 설레였네

진달래 붉게 핀 못가의 붓나무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우리러 설레였네

아, 영광의 그날에
찬란한 해발안고 붓나무 설레였네

혁명의 성지에 뿌리내린 붓나무

백두산을 우러러 언제나 설레이네
아, 영원한 세월속에
그 영광 길이길이 전하며 설레이리

세계가 부르는 노래 외 1 편

림종근

서서히 막이 오르고
노래의 선율이 은은히 흐르더니
흠모의 정이 넘치는 호수의 문이 열리는가
낮익은 뱃루의 너배우도
유럽의 이름난 고음가수도
감격에 젖어 노래를 불러라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언어도 얼굴도 서로 다른
세계 5 대륙의 배우들인데
어쩌면 저리도 화음이 맞을가
한무대에 올라 연습한적도 없는데
어쩌면 저리도 조선노래를 잘할가

주체의 해불로
미래를 밝히시며
인류의 행복을 안아오신 수령님
우러러 따르는 마음
천만년 길이 모시고싶은 마음
저들의 가슴에 가득차기때문이나

설레이는 야자수 그늘밑에서

흑해의 뜨거운 모래불에서
해돋는 조선
수령님 영상 우러러 그리며
배우고 익힌 노래이기때문이나

진정 우리 수령님
이 세상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마음
만민의 철석같은 신념이거니
이 노래 세계가 모여 불러도
한사람 한민족이 부르는것 같구나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오늘도 심혈을 기울이시는 수령님
영명하신 그이의 령도따라
지구위의 모든 사람들이 발맞춰나가며
바라는 소원은 오로지 하나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바라는것이거니

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만수축원의 노래
세계의 합창으로 높이 올리누나
인류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이
하늘땅에 가득차 끝없이 올리누나

휴양의 나날에

폭포수 쏟아지는 산삼골 찾아가
살진 사슴무리 부르고 쫓으며
아이들과 함께 하루해를 보낼가
짜개바지시절처럼 내가에 나가
산천어를 잡아 매운탕을 끓일가

그보다도 등산모를 눌러쓰고
솔밭을 오르며 송이버섯 따는 재미 어떠냐
저멀리 바다가 모래불에서
해종일 덩굴며 몸을 지지고
온탕에 뛰어드는 멋 또 어떠냐

산해진미 다 오른 식탁을 마주하고
노래속에 웃음속에 보내는
오락회의 밤은 왜 그리도 짧은가
언제나 시간이 모자라 아쉽게도
행복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더라

조국의 총전 전사로 피어린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적도 없는 우리들에게
휴식을 명령으로 선포하신 수령님
한평생 그 언제 어느 하루인들
이런곳에서 편히 쉬신적 있던가

생각하면 가슴이 후터워오르는
행복한 군인가족휴양의 나날이어
휴식을 임무로 수행하며
가는곳마다에 남긴 사진과 함께
수령님 은혜 영원히
가슴에 새기는 나날이어

오, 우리 즐겁게 휴식하는것이
아버이수령님 바라시는것이거니

가자 명승지로, 유희장으로
우리 마음껏 웃으며 즐기며

보답할 큰 힘 한껏 키우자

혁명연극 3인 1당

(전호에서 계속)

제 3 장

행길가

△박정승네 집 대문을 중심으로 키높은 담장이
무대를 가로질렀다.

△국부조명속에서 안사인인 문정승과 최정승을
기다리고있다.

안사인 하, 이거 문정승과 최정승이 너무 늦는
다.

이번 기회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정승벼슬 한자
린 벌어야겠는데...

△무대 밝아지면서 행인들이 오가는속에 박정
승이 나온다.

박정승 물러들가거라. 여보게 안사인, 아직 두
오는데 안보이나 ?

안사인 예.

박정승 문정승과 최정승이 눈알이 빨개져서 도
사님을 뵙자고 빨리 나타나야 우리 일이 제대로 되
는건데...

안사인 인차 뒤따라올줄 알았는데...

박정승 그런데 여보게, 혹시 그들이 와서 보구
진짜도사로 믿지 않는날엔 어떻게 한다?

안사인 그땐... 소인이 또 하나의 묘책을 생각해
냈소이다.

박정승 어떤 묘책?

안사인 만약 그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눈치가 보일 땐 도사님이 푸푸 입바람을 불게 해서
나무가지가 흔들리며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지게 하
겠소이다. 그렇게 되면 마치 도사님이 노해서 신기
한 도술을 피우는것으로 보일게 아니오이까.

박정승 그럴듯한데 그놈이 무슨 재간에 입바람
으로 나무가지를 흔들어놓겠나?

안사인 그땐 나무가지에다 이런 바오래기를 미
리 척 걸어왔다가 대감님이 도사에게 입바람만 불
게 하면 제가 숨어서 이렇게 잡아흔들어주면 될게
아니오이까.

박정승 그게 정말 묘책중의 묘책일세. 그럼 어
서 들어가서 그 놀음을 한번 해보세.

△이때 《물러가라 ! 치러가라, 정승님 행차시
다.》 하는 소리 들려온다.

안사인 드디어 최정승네 행차가 나타났소이다.

△그들 서둘러 들어간다.

△이윽고 행인들이 쫓겨가면서 최정승의 평교
자가 들이닥친다.

△유점상과 금향이 따라나온다.

△평교자안에서 상복차림을 한 최정승이 나온
다.

유점상 가마군들은 물러들가거라 ! -

△교군들 물러간다.

유점상 대감님께서 이렇게 상복차림으로 오시
면 너무 초라해보이지 않겠소이까?

최정승 모르는 소리, 내가 공연히 이 금향이까
지 데리고 이런 차림으로 온줄 아나?

금향 아, 유점상이야 알리 없지요.

최정승 이제 두고보게.

유점상 예.

△이때 반대쪽에서 다른 행차소리가 들리더니
문정승의 평교자가 와서 닿는다.

△문정승 족보보따리를 안고 내린다.

허장사 너희들은 물러들가거라 !

△교군들 물러간다.

문정승 이건 아무도 모르게 허장사가 건사하계.
허장사 알겠소이다.

최정승 (나서면서) 문공 오셨소 !

문정승 아이 이거 최공 오셨구려.

최정승 여보 문공, 도사님께서 이 집을 먼저 찾
아주신걸 보니 혹시 박정승을 룡상에 앉히려는게
아닐가요 ?

문정승 원 그럴리야 있겠소. (달려가 담장안을
넘겨다본다.)

최정승 보이오?

문정승 도사님은 어디 계신지 안보이오.

최정승 원 그 키에 안보일리가 있나. (자신도 다
가서서 발돋움하다 말고 대문밖으로 들여다본다.)

△이때 박정승이 큰 기침을 하면서 나온다.

△문정승과 최정승 태연한채 한다.

박정승 하하, 왔으면 들어오지 았구 왓세 계구 명 들어다보듯이 뭘 그렇게 들어다보시오?

문정승 뜰안의 대나무가 아주 실하게 자랐구려.

박정승 우후죽순이라구 비운된데 밭에 있는 수수대만 자라겠소.

문정승 뭐 수수대? ! 아니 그건 누굴 빗대고 하는 소리요.

박정승 하하, 가만 그런데 최공은 상복을 다 입구 갑자기 웬일이요?

최정승 오늘따라 웬일인지 상감마마의 생각이 간절해져서 저 왕릉에 갔다오는 길에 도사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급히 오다니 이 상복두...

금 향 제가 미처 관복을 갈아입혀드리지 못했사 요요.

박정승 둘째 마님이 계구실을 잘못했구만. 하하...난 문공의 말을 듣고 전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도사님께서 우리 집엘 찾아오시지 았았겠소.

문정승 그러니 박공은 오늘이 명절갈겠구려.

박정승 명절이면 나만 명절이겠소? 우리 셋이 다 같은 명절이지. 자 그럼 도사님께서 기다리시는 데 어서 들어가들갑시다 !

두 정승 들어가봅시다.

박정승 여봐라, 문열어라 ! -

△뼈저덕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면서 담장이 좌우로 갈라져나간다.

△신비로운 음악속에서 정각우에 앉아있던 민천산이 박정승이 눈짓하는대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도고한 자세로 천천히 내려선다.

민천산 세상에 미물인 별도 왕벌이 있고 기러기 떼도 길잡이가 있거늘 한 나라에 왕이 없으니 어찌 재난이 가셔질수 있을고...

두 정승 예!-

박정승 돌아가신 상감마마의 유언대로 이 나라의 국운을 바로잡아주시려고 운봉산성지에서 내리신 도사님이시오.

민천산 (얼결에) 운봉산이 어느 산이던가?

박정승 예 ? (아연해진다.)

△두 정승 의아해한다.

안사인 (민천산에게 얼른 다가서며) 저... 도사님, 저기 저 대감님들이 모를가봐 물어보시는 말씀이겠습지요 ?

민천산 아 그럼, 그렇지 았구.

두 정승 예...

△박정승 안도의 숨을 내선다.

두 정승 도사님께 문안드리옵니다.

민천산 아니 임잔 옷주체가 그게 뭔가?

최정승 충과 효는 인륜의 근본이라 했거늘 상감 마마께서 돌아가셨는데 신하로써 3년제를 치르기 전에야 어찌 잠시인들 이 상복을 벗을수 있겠소이까.

민천산 오, 그러구보니 세 정승들중에 임자가 제일가는 충신이로구만.

박정승 (문정승에게) 저놈의 생쥐같은게...

문정승 (박정승에게) 한수 드오이다 !

박정승 도사님, 그... 그 사람은 복서당을 이끄는 최정승이구 여기 이 사람이 저와 사돈을 맺은 서남당을 이끄는 문정승이올시다.

민천산 말하지 않아도 난 다 알고있네 !

박정승 예? 아니 어떻게?

안사인 대감님, 도사님께서 천기를 터득하시며 운봉산제일봉에 오르시여 100년동안이나 도를 닦으셨다는데 이 세상에 모르는게 있겠소이까?

박정승 아참, 그렇지.

문정승 (혼자소리로) 100년동안 도를 닦으셨으면 저렇게 정정하실수가 없겠는데...

최정승 (혼자소리로) 저 얼굴을 어디서 본것 같은데 ? ...

문정승 저 도사님, 금년에 춘추가 어떻게 되셨사온지 ?

민천산 내 나이말인가?

박정승 (그의 말을 밀막으며) 아아 문공은 도사님께 무슨 그런 외람된 물음까지...?

민천산 괜찮네. 도사님이라구 뭐 먹은 나이야 어델 가겠나? 내 금년에 예순두살이네.

문정승 (최정승에게) 백년동안 도를 닦았다면서 예순두살?

△박정승도 심히 난처해한다.

민천산 백살은 제쳐놓구!

최정승 그렇다면 백예순두살? !

문정승 모상은 그럴듯한데 어딘가 이상스럽지 았소?

최정승 (혼자소리로) 저 두상을 해청도에 갔을 때 봤던가?

△그사이 박정승은 안사인에게 바줄을 잡아당기라는 시늉을 해서 내보내고 민천산에게 입바람을 내불게 한다.

△ 때맞춰 나무가지가 흔들리며 나무잎이 떨어진다.

△문정승과 최정승 하늘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한다.

금 향 (최정승에게) 저기서 안사인이 나무가지를 흔들고있소이다.

최정승 뭐 ? 가만, 좀더 두고보자구.

△나무잎이 계속 떨어진다.

문정승 여보, 박공! 바람 한점 없는 여름날씨에
락엽까지 지면서 이게 웬일이요?

박정승 도사님께서 문공의 그 불손한 말을 들으
시고 노해서 신기한 도술을 쓰시오.

문정승 (그제야 입바람을 불어대는 민천산을 돌
아다보고 깜짝 놀라며) 도사님, 제가 잘못했소이다.
제발 노여움을 푸시오이다.

박정승 도사님, 이젠 그만 진정하시오이다.

민천산 그만두라구? 에이 숨차다.

△최정승이 눈짓하자 금향이가 교태를 부리며
민천산에게로 다가선다.

금 향 도사님, 옥체만강하시나이까?

민천산 누구고?

최정승 예, 이 사람은 저의 소실이온데 도사님
께서 불편해하시지 않도록 곁에서 시중이라도 들어
드리겠다고 이렇게 따라왔소이다.

민천산 시중까지야 뭘...

금 향 도사님, 저의 주인은 그저 도사님께서 오
시길 학수고대하고있었나이다.

민천산 그러니 물본 기러기, 꽃본 나비갈겠구만.

금 향 정말 그렇사와요.

△박정승 안사인을 급히 내보낸다.

금 향 도사님, 년세도 많으신데 어서 저기 가서
편히 좀 앉으시오이다.

민천산 그렇게 하자구.

금 향 도사님, 잠퐁한 날씨가 꽤나 무덥습지요?

민천산 오뉴월 삼복더위엔 물속의 개구리가 부
럽다 했노라.

△ 이때 류화가 뚱기적거리며 나와 박정승이 눈
짓하는대로 민천산곁에 다가선다.

류 화 도사님, 잠퐁한 날씨가 꽤나 무덥습지요?

△그러자 금향이 부채질을 해준다.

△류화도 뒤질세라 같이 부채질해준다.

△랑쪽에서 바람을 일구는통에 민천산이 수염
발까지 이리저리 날리며 춤을 춘다.

민천산 에이, 시원하다.

문정승 (혼자소리로) 난 왜 너편네 데려올 생각
을 못했을까!

△민천산 입을 헤벌리고 좋아하다가 재채기를
한다.

금 향 (애교있게) 도사님, 여기 꽃수건이 있사와
요.

류 화 (투박하게) 도사님, 여기 코수건이 있사와
요.

△민천산 랑쪽에서 수건을 받아 코를 닦는다.

금 향 (애교있게) 아이참, 도사님두.

류 화 (투박하게) 아이참, 도사님두...

문정승 (발각 소리지른다.) 이게 무슨짓들인
고? 국사를 앞에 두고 너편네들까지 데리고 와서
치마꼬릴 내지게 하니 눈꼴이 시어서...

△금향과 류화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선다.

민천산 저 사람은 뻔뻔 말라서 그런지 성미가
꽤나 못됐구만.

문정승 예?!

△모두 웃는다.

박정승 자, 도사님, 이젠 우리 세 정승이 다 모
였는데 하늘의 뜻에 따라 어서 새 임금을 점지해주
시오이다.

민천산 그러자구. 가만있자. 목이 쿵쿨한데 먼
저 막걸리라도 한사발 마셨으면 좋겠다.

박정승 원 도사님두... 청주, 홍주, 인삼술, 뽕술
없는 술이 없사운데 하필 막걸리를 찾으시다니요.
(류화에게) 여보, 어서 들어가서...

류 화 (그의 귀에 대고) 대감이 새 임금으로 점
지될건 뻔한 일인데 잔치를 큼직하게 차립세다.

박정승 그렇지, 도사님, 자고로 새 임금을 정할
때 출판이랑 크게 벌리는것이 하나의례식이 아니
오이까.

민천산 아 그렇지 않구.

박정승 그럼 내 제격 들어가서 관복을 갈아입고
기생들이랑 불러올터이니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새 임금을 점지해주시오이다.

민천산 그렇게 하자꾸나 뭘.

△박정승 류화를 앞세우고 들어간다.

민천산 저 박정승은 덩지가 커서 그런지 판두
크게 벌리누만.

최정승 하지만 저 박정승은 원래 굵쳐럼 둔해서
칼부림밖에 모르니 룡상엔 애당초 앉힐 재목이 못
되오이다.

민천산 영?

최정승 인제는 학식이 근본이라 했거늘, 그래서
소신은 일찍부터 4서 5경은 물론이고 성서, 대장

경, 코랑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책이란 책은 다 읽었소이다.

민천산 나두 한때 그런 책들을 좀 읽긴 했었는데 읽은 뒤가 없더구만. 최정승은 다 알고있나?

최정승 아, 알다뿐이겠소이까.

민천산 머리가 어떻게 생겼으면 그렇게?

최정승 자, 좀 보시오이다. (관모를 벗어보인다.)

민천산 어이구, 털 하나 없는데 해청도에서 본 중대가리처럼 생겼구만. 허허...

최정승 (혼자소리로) 해청도 두상이 틀림없구나!

문정승 도사님, 인제는 학식보다 가문이 기본이 아니겠소이까.

민천산 가문?

문정승 예, 소신은 자자손손 왕실가문에 속하옵고...

최정승 가만, 그렇다면 족보를 가져다 보여드려야지 그렇게 말로만 해서야 되겠소?

문정승 그렇지, 도사님, 그럼 잠깐만 좀 기다리시오이다.

민천산 오.

△문정승 허장사를 찾으며 나간다.

최정승 도사님, 혹시 지난해에 소신이 해청도에 내려갔을 때 허튼 글을 한수 지어가지고 와서 벼슬자릴 달라고 조르다가 곤장을 맞은 일이 있지 않소이까?

민천산 엉?! 아니 도... 도사님이 곤장을 맞았나?

최정승 좋소이다. 그럼 입바람을 불어 다시 한번 나무잎을 떨궜보시오이다.

금 향 떨궜보시오이다.

민천산 떨구라면 누가 못떨굴줄 아나?

△주위를 살피며 유검상이 들어온다.

△민천산 입바람을 불며 돌아간다.

△허나 나무잎은 떨어지지 않는다.

민천산 이거 왜 안떨어지니?

최정승 너 이놈, 가짜지?

민천산 가짜라니?

최정승 내가 네놈을 모를줄 아느냐. 이놈,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고말테다.

유검상 (칼을 뽑으며) 이놈!

민천산 아이구, 박정승이 고을원님벼슬을 주겠다길래 내 이렇게...

최정승 옳지, 박정승 네놈이 그랬겠구나.

유검상 대감님, 저런 가짜도사를 만들어낸 박정승을 만천하에 까발혀서 아예 머릴 쳐들지 못하게 해야겠소이다.

최정승 가만 저놈을 도리어 내가 써먹어야겠다.

유검상 예?

최정승 너 이놈, 내 말을 듣거라. 난 고을원님보다 더 높은 판서벼슬을 주겠다.

민천산 판서벼슬을요?!

최정승 그렇지. 그러니 날 그저 임금으로만 짐지해라.

민천산 가만, 그럼 고을원님이 되기보다 판서가 돼?! ... 알겠소이다. 알겠소이다.

최정승 도사님...

△문정승이 족보를 받쳐들고 허장사와 함께 들어온다.

문정승 도사님...

민천산 아니, 그건 원고?

문정승 왕실게보올시다.

민천산 왕실게보?

문정승 예, 도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왕실게보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이 나라 15 대왕이었던 이 문종왕은 소신의 14 대 할아버지의 조카와 이쪽줄기로 쪽 이어져서 6 촌형제간이 되고...

(다른 족보책을 펼치며) 여기 이 해보왕은 우리 고조할아버지의 외삼촌의 증조할아버지와 4 촌형제간으로서 여하튼 역대 왕족에 속하옵고 술개국 황제와도 각별한 친교를 맺고있소이다.

민천산 가만, 그렇다면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

문정승 문종왕은 소신과 이십팔촌이 되옵고 해보왕은 삼십사촌간이 되옵니다.

민천산 삼십사촌? 하하, 아무튼 거 대단한 가문이군그래.

문정승 예, 대는 대끝에서 나고 통은 통소에서 난다고 이 나라의 임금으로는 웅당히 소신이...

민천산 너무 보채지 말라구. 그러지 않아도 머리가 뻥해 죽겠는데.

문정승 그럼 전 도사님만 믿겠소이다.

민천산 알겠네, 알겠어.

△이때 관복을 입은 박정승이 달려나온다.

박정승 도사님, 그럼 관례대로 이제부터례식을 시작하겠소이다.

민천산 거 참 잘하누만.

박정승 애-옥향아-!

△한 기생이 달려나온다.

기생 1 대감님, 도사님께서 박대감님을 새 통상에 앉도록 점지해주신다니 얼마나 기쁘시겠소이까.

박정승 허, 벌써부터 그런 소릴 하면 되나, 어서 도사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기생 1 애들아! -어서 나와 춤판을 벌려라!

△흥겨운 음악이 울린다.

박정승 (민천산에게) 난 원래 칼춤을 좋아해놔서...

민천산 그래?

△기생들이 나오며 칼춤을 춘다.

△수많은 무관, 문관들이 모여들어 흥취를 돋군다.

박정승 자, 이젠 도사님을 저 높은 정각우로 모셔라.

기생들 예이!-

△민천산 기생들에게 에워싸여 춤추듯이 정각으로 다가간다.

박정승 (두 정승에게) 자, 어쩡소?

최정승 도사님께서 이제 새 임금을 정해주시면 절대로 다른 잡소릴 해선 안되겠지요.

박정승 암 잡소릴하다니!

△민천산 정각우에 올라선다.

박정승 도사님, 그럼 이제부터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송도국의 새 임금을 점지해주시오이다.

모두 점지해주시오이다.

기생 2 어느 대감님을 임금으로 점지해주실가?

박정승 쉬-잇! 도사님!

민천산 어렵, 세 정승은 내 말을 듣거라!-

세 정승 예잇! (대답하며 앞으로 나선다.)

민천산 나라의 왕은 병법에도 능하고 가문도 좋아야 할뿐만아니라 학문에서도 만민의 스승이어야 하거늘...

하늘의 뜻도 그렇고 또 내 뜻도 그렇고...

세 정승중에서 새 룡상에 앉을 인제는 누군고 하니...

△모두 긴장해있는데 최정승이 한결음 나서면서 《예햐》 하고 잔기침을 해보인다.

민천산 오, 저 최정승밖에 없노라-

△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한다.

최정승 황감하오이다.

박정승 영?

최정승 (정각우로 올라가며) 여봐라! - 내 말을 듣거라. 오늘부터 송도국의 왕은 내가 됐노라!

△모두 《상감마마!》 하며 엎드리는데 박정승만은 그자리에 선채 가슴을 쥐어뜯는다,

박정승 아니 도사님, 이게 어찌된 일이오이까?

최정승 박정승은 이 무슨 잡소리고?

박정승 잡소린 누가 잡소리야? -

최정승 상감마마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박정승 도사님. ...

민천산 상감마마가 하라는대로 하는게 좋겠구만 뭐.

박정승 어이쿠, 상감마마- (할수없이 엎드린다.)

최정승 도사님, 그럼 궁성안에다 큰 잔치를 베풀어놓고 신하들을 보내어 인차 모셔갈터이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나이다.

민천산 그럼 내 여기서 기다리겠네.

유점상 상감마마, 어서 대궐로 드시오이다.

금향 드시오이다.

△최정승 위세를 돋구며 나간다.

박정승 어이쿠.

기생 1 대감님, 대감님께서 새 임금이 되신다더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이까?

박정승 (화집에 그의 먹살을 쥐며) 이년!

기생 1 아니, 저보구는 왜 이러시나이까? 이러지 마시오이다.

박정승 썩 물러가지 못하고, 모두 물러들가라-

△무관들, 문관들, 기생들 겁에 질려 달아난다.

△박정승은 모두 사라지자 민천산의 뒤덜미를 잡아끌고 나온다.

민천산 아니, 자네 갑자기 왜 이러나?

박정승 왜 이러느냐구? 너 이놈! 까마귀고길 먹었느냐? 아니면 원래부터 최정승네 패당이냐?

민천산 최정승이 고을원님벼슬보다 더 높은 판서벼슬을 주겠다길래 내 그만 열결에...

박정승 뭐라구?! 이 열뜨기같은놈아, 내가 시킨대로 했으면 난 판서보다도 더 높은 정승벼슬이라 두 주겠는데 그놈한테 열리워?

민천산 정승벼슬을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하겠소이다.

박정승 뭐?

민천산 (큰소리로) 송도국의 왕은 최정승이 아니라 여기 박정승밖에 없노라! -

박정승 야 이놈아, 행차뒤나발은 그만 붙어라! (그의 수염을 잡아당긴다.)

민천산 아이구.

박정승 (밖에 대고) 여보게, 홍무관!

△홍무관 달려나온다.

박정승 이놈을 당장 끌어다가 별당에 처넣어라.

홍무관 알겠소이다. (그를 사정없이 잡아끈다.)

민천산 내 공연히 집을 헛갈렸다가 나중엔 별봉변을 다 당하는구만.

박정승 내 저놈을 오늘밤에 당장 죽여버리고말테다.

안사인 대감님, 이제라도 저놈을 다시 내세워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게 아니오이까.

박정승 다 깨진 사발인데 바로잡긴 뭘 바로잡아! 네놈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다 망했다, 다 망했어.

안사인 대감님.

박정승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에 아예 참견 말아라. 룡상을 떼올바엔 내 차라리 성을 갈고 말테다. (나간다.)

안사인 다 만들어준 일을 제가 망쳐놓고 누구한테 기갈이야? 저런 미욕한놈한테 붙어있다면 쥐뿔도 얻어먹을게 없겠다. 그렇다구 가짜 도사가 만든 가짜왕한테 가 붙어선 오래있지 못할게구... 어떻게 한다?

△이때 무대가 흐르면서 문정승, 허장사가 나온다.

△안사인 몸을 숨긴다.

문정승 허장사, 도사님은 날 몰라봐도 술개국 황제만은 날 알아줄거네. 그러니 이 왕실계보와 함께 술개국에 밀사를 보내야겠네.

허장사 밀사를요?

문정승 그래 국고에 있는 금덩어리를 모조리 가져다 섬겨바치구...

허장사 알겠소이다.

안사인 (나서면서) 문대감님, 그 밀사로 저를 보내주시오이다.

문정승 엉? 동남당의 안사인이?

안사인 헤헤... 왜 저를 믿지 못하겠소이까?

문정승 알만하네.

△이때 《우리 집안에 도적이 들었다》 하는 박첨량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무대가 다시 흐른다.

△문정승 안사인을 앞세우고 나간다.

제 4 장

박정승네 별당

△박첨량과 함께 무대가 흘러 대술이 우거진 호수가에 한적하게 자리잡은 별당건물이 들어온다.

박첨량 우리 집안에 도적이 들었다. 게 누가 없느냐?

월 단 (마주나오면서)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박첨량 내 도포가 없어졌다. 내 도포가...

월 단 아이참, 그 도포는 아버지가 도사님께 입혀드렸사와요.

박첨량 뭐라구? 도사가 내 도포를 입어?

월 단 할아버지, 호호...

박첨량 넌 뭐가 좋아서 웃는거냐?

월 단 오늘 내 레장이 오거든요.

박첨량 네 애비가 문정승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데 잔치를 차려줄상싶으냐?

월 단 선왕께서 맺어주신 혼약인데 아버지가 내 잔치를 안차려줘요? 어디라구.

하 너 (달려나오면서) 아가씨, 문대감님택에서 레장을 가지고 담동도련님이랑 오셨사와요.

월 단 그래?! 할아버지, 함께 가시와요.

박첨량 난 내 도포를 찾아입어야겠다.

월 단 애, 어서 가자. (하너를 데리고 달려나간다.)

△귀뚜라미소리가 들린다.

박첨량 (방문에 쇠가 걸린것을 보고) 도사가 어딜 갔노? 여보시 도사! -

△안에서 민천산의 알지 못할 웨침소리가 들린다.

박첨량 엉?! 사람이 안에 있는데 문을 잠그다니? 잠깐 기다리시오이다. (쇠를 벗기고 문을 연다.)

△안에서 팔을 묶이우고 입을 막히운 민천산이 나온다.

박첨량 아니, 여보, 도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바줄을 풀어준다.)

민천산 (입을 막히웠던 수건을 뽑아던지고) 후유, 하마트면 술막혀 죽을번했구나.

박첨량 여보시 도사?도사가 입은 이 도포는 내 것이요.

민천산 이것말이요?

박첨량 이 도포는 내가 하느님을 만나뵈우려 갈때 입자던것인데...

민천산 예쿠, 그러니까 이 도포에 죽을 귀신이 붙어있었겠구만. (황황히 벗어주며) 자 였수다.

박첨량 고맙네, 고마와. (받아입으며) 그런데 하느님을 빨리 만나뵈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민천산 그러자면 콧 뚫어야지요.

박첨량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명줄은 왜 이렇게 질긴지...

민천산 그럼 저 방안에 신주를 모셨던데 빨리 들어가서 하느님께 빌어보시구려.

박첨량 알겠네. (방안으로 들어간다.)

△구름이 밀려온다.

민천산 어이구,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세 정승싸움에 내 등때기가 터지는게 아니야! 가만 있자, 내 여기 있다간 벼슬도 못해보고 죽겠는데 빨리 도망을 가야겠구나. 걸음아, 날 살려라.

△민천산 방문에 쇠를 잠근 다음 신발을 벗어 들고 별당뒤로 사라진다.

△박정승이 나온다.

박정승 (방문에 쇠가 걸린것을 보고 안심하며)
자객은 왜 아직도 오지 않나? 빨리 와야 저놈을 죽여버리겠는데.

△이때 홍무관이 나타난다.

홍무관 대감님.

박정승 홍무관, 그래 고을원으로 파할 우리 무관들은 다 왔고?

홍무관 분부대로 다 모여왔소이다.

△여러명의 무관들이 들어선다.

무관들 대감님.

박정승 좋다, 그럼 너희들은...

△이때 멀지 않은곳에서 풍악소리와 함께 웃음소리 떠들썩 들려온다.

박정승 저건 무슨 소리고?

무관 1 최정승이 북서당패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리고있소이다.

박정승 잔치를?

무관들 그렇소이다.

홍무관 새 임금이 됐다고 벌써 해청도에다가 새 통상을 옮겨갈 대궐까지 짓는다면서 저렇게 흥청망청대고있지 않소이까.

박정승 뭐라구, 통상을 해청도로 옮겨가? 교현놈!

홍무관 대감님, 어쩌면 좋소이까?

무관들 어서 령을 내리시오이다.

박정승 좋다. 그럼 너희들은 내가 임명한 원들답게 지체말고 여길 떠나서 최정승네 북서당패에 속한 고을원들을 모조리 잡아죽이구 우리의 세력을 넓히면서 때를 기다리라!

무관들 알겠소이다. (모두 나간다.)

홍무관 대감님, 그런데 백마국 사신이 래일 떠난다면서 대감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구 기다리고있소이다.

박정승 그놈을 만나선 뭘해? 당장 쫓아보내게!

홍무관 알겠소이다. (나간다.)

박정승 (혼자소리로) 백마국의 사신이 날 만나자구 해?! 흥.

△이때 류화가 달려나온다.

△뒤에서 월단리와 답동의 목소리가 들린다.

류 화 여보 대감, 문정승이 레장바릴 보내면서 제아들까지도 따라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수?

박정승 뭐?

류 화 글썽 잔치할 경황은 못되지만 최정승놈을 깔고앉기 위해서라도 빨리 잔치를 해서 문정승만이라도 바싹 끌어당겨야 할게 아니요.

박정승 문정승 그놈이 내 심복인 안사인을 끌어당기구 날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그놈과 사돈을 맺어?

류 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수?

△답동리와 월단리가 나온다.

답 동 장인님! 안녕하시와요?

박정승 뭐 장인?

월 단 아버지, 내 레장이 왔사운데 비단, 공단이 서른필에 자개박은 농깍이 열두짝, 계다가 금비녀, 금귀고리, 금가락지...

답 동 그리고 장인님께 가져다드리라고 이 금대통까지 보냈사와요.

박정승 뭐?

답 동 그러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이젠 통상에 앉을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말고 두 집이 서로 의종게 지내자고 말씀하셨사와요.

박정승 뭐 서로 의종게 지내? 또 무슨 음흉수를 쓰자고 그런 소릴... 썩 물러가지 못할고.

답 동 아니 이거 처가집에 찾아오면 닭의 모가지부터 비튼다는데 이 집에선 왜 이러사와요?

박정승 뭐 닭의 모가지질 비틀어? 난 너희 문가네 족속과는 아예 담을 쌓고 어금이가 빠질 때까지 맞서볼테다.

답 동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온지...

박정승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잔치는 못한다.

파혼이다! 파혼!

답 동 예?

월 단 아버지... 이제 와서 파혼이라니, 그렇게 되면 난 못살아요. 아버지... (그의 팔을 잡아흔든다.)

박정승 저리 비켜라! (밀쳐버린다.)

답 동 그럼 진짜 파혼이란 말씀이오이까?

박정승 난 가짜라는걸 몰라!

답 동 좋소이다. 누가 이 집 딸이 고와서 장가들자구 한줄 아는 모양이지?

월 단 도련님!

답 동 도련님? 다 시들어진 호박꽃에 빠드렁이 발 같은것! 나두 파혼이다! 파혼!

월 단 도련님! 이러지 마시오이다.(그의 도포를 잡는다.)

답 동 저리 비켜라! (금대통으로 그를 밀쳐버리고 나간다.)

월 단 도련님, 도련님... (달려나가다가) 으악! (쓰러진다.)

류 화 아니, 애 월단야, 월단야. (그를 잡아흔들며 박정승에게) 아 뭘하구있소?

△박정승이 다가온다.

△하녀가 어느새 물을 떠가지고 나와 류화에게 준다.

류 화 월단아... 물 마셔라 물... 애, 정신차려라.
(손에 물을 적서 그의 얼굴에 뿌려준다.)

박정승 이리 내라구. (물사발을 받아 월단의 이
마에 사발채로 붓는다.)

△월단이 푸시시 눈을 뜬다.

박정승 월단아.

월 단 호호... 도련님.

박정승 뭐? 내가 도련님이야?

월 단 (그에게서 물사발을 빼앗으며) 도련님, 꿀
물이와요. 어서 드시와요.

박정승 애야...

월 단 도련님, 우리 아버지 둔하고 미옥해서 칼
부림이나 할줄 알았지 임금님이야 못되지요 뭐. (박
정승에게 다가선다.)

박정승 (뒤걸음치며 그를 멀리듯이) 오냐, 그래
그래...

월 단 도련님... 그런데 왜 자꾸 피하시오이까?
왜 자꾸... (그에게 사발에 남은 물을 휘뿌린다.)

박정승 (물벼락을 안고) 엉?! 미쳐두 더럽겐 미
친다.

△그것을 보고 월단은 좋다고 춤을 추면서 도
련님을 찾으며 나간다.

류 화 (가슴을 치며) 승산없는 권세싸움에 무남
독녀 외팔만 미치게 했구나. 애, 월단아! (따라나간
다.)

박정승 그까짓 딸자식 하나 미친게 대수야? 어
느 패당이 통상을 차지하는가 하는판에...

△최정승네 집에서 풍악소리 다시 울려온다.

박정승 저놈의 생전 가짜도사놈의 말을 듣고 저
렇게 풍악을 울리면서 왕행세를 해? 어디 두고 보
자.

△방안에서 코고는 소리 들린다.

박정승 모든게 다 저놈의 탓이다! 저놈의 탓이
야!

△이윽고 자객이 나타난다.

자 객 대감님, 분부대로 왔소이다.

박정승 자객은 왜 이제야 왔는고? 네가 죽여야
할놈은 저 방안에 있다.

자 객 알겠소이다. 그럼 대감님께선 저쪽에 줌
...

△ 박정승 뒤로 물러선다.

△자객이 방문을 열어제끼며 초불을 꺼버린다.

자 객 꼼짝달짝 말아라 !

박첨량 넌 누구냐?

자 객 염라대왕이 보내서 왔다.

박첨량 염라대왕이 ?

△자객이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들이치면서 입
을 틀어막고 자루를 씌워서 둘러메고 나온다.

박정승 (달려나오면서) 그놈을 여기다 좀 내려
나라!

△자객 자루를 내려놓는다.

박정승 내 이놈을 강물에 처넣기전에 화풀일 좀
해야겠다.

△ 자루가 꿈틀거린다.

박정승 (지팡이를 찾아들고 자루를 지리밟으며)
요놈의 가짜도사야, 그래 자루속에 들어가있는 채
미가 어떠냐?

△박첨량 자루를 뒤집어쓴채 뭐라고 웅얼거리
며 일어나 앉는다.

박정승 어디라구 일어나? 내 네놈때문에 골탕을
먹은걸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이가 갈려. (지팡이
로 두들겨판다.)

△자루속에서 숨넘어가는듯한 소리가 들린다.

박정승 자, 어서 이놈을 강물에 처넣게 !

자 객 알았소이다.

△자객이 자루를 둘러메고 나가려는데 박첨량
이 자루짚을 해집고 얼굴을 내밀면서 《난 박정승
의 애비다. 박정승의 애비야! -》하며 소리 지른다.

박정승 (눈이 휘둥그래지며) 아니 내 부친이? !
어서 여기다 내려놓게 어서!

△자객 당황하여 박첨량을 내려놓는다.

박정승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감투끈
이오이까?

박첨량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요... 요놈
의 새끼야. (그의 불기를 친다.)

△ 방창이 울리는속에 박첨량이 지팡이를 찾아
들고 박정승을 따라다니며 사정없이 두들겨판다.

방창

초생달도 웃으며 바라보는데
정승대감 매맞고 울상이 됐네
남잡이 하려다가 제잡이 됐으니
파쟁군은 맞아싸지 죽어도 싸지

박첨량 에미 배속에서 나올 때부터 주먹질이더니 나중엔 제 애비까지 죽이려들어? 액기, 이 후례 자식갈으니. (나간다.)

박정승 일이 꼬일 땐 자빠쳐두 코가 깨진다더니... 아, 룡상값이 이렇게도 비싸단말인가!

△이때 홍무관이 나온다.

홍무관 대감님, 이 일을 어쩌면 좋소이까?

박정승 무슨 일이나?

홍무관 글쎄 그 문정승놈이 술개국황제한테서 송도국의 왕이라는 인장을 받아오라고 대감님 보란듯이 우리한테서 넘어간 그 안사인놈을 제놈의 밀사로 보냈는지 않소이까.

박정승 뭐라구? 그 음흉한놈이 안사인을 술개국에 밀사로 보내? 아 난 어쩌면 좋단말인가?

△우뢰가 운다.

박정승 이젠 별수 없지. 백마국 사신한테라도 머리를 숙이는수밖에...

홍무관 대감님께서 그전날 대궐안에서 그 사신에게 하신 말씀도 있는데 그렇게야 어떻게 하겠소이까.

박정승 때에 따라선 벗이 원쑤가 되구 원쑤가 벗이 될수도 있는거다.

홍무관 알겠소이다.

박정승 그래 날 만나러 왔다던 백마국사신은 어찌 됐고?

홍무관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고있소이다.

박정승 그래?! 어서 모셔드리게!

홍무관 알겠소이다. (달려나간다.)

△다시 우뢰가 운다.

박정승 (혼자소리로) 이런 판국엔 나라를 팔아서라도 룡상은 사야 한다.

△홍무관이 백마국사신을 안내하며 들어온다.

사신 만나실 의향이 없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박정승 내 일전에 실례가 많았소.

사신 난 이렇게 될줄 알고있었소이다.

박정승 사신, 난 귀족에서 우리 동남당이 왕권만 쥐게 해주시겠다면 무슨 요구든지 다 받아들이겠소.

사신 벌써 그랬어야지요. 우리가 당장 요구할 건 다르게 아니라... 우리 백마국의 군사가 여기까

지 순조롭게 들어올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면 되겠소이다.

박정승 예, 그보다 더한 요구도 다 기꺼이 받아들일테니 그저 우리 동남당이 문정승과 최정승한테 룡상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오이다.

사신 하하, 그건 넘려 말고 우리를 방비하려던 군사를 빨리 철수시켜서 저 운봉산에 있는 룡상이나 잘 지키도록 하시오.

박정승 알만하오! 홍무관, 우리 군사를 이끌고 저 운봉산으로 오르세!

△무대 어두워진다.

제 5 장

운봉산성지

△폭포수 흘러내리는 경치 좋은 골안에 왕실사당이 자리잡고 한쪽에는 3 불암과 석탑이 솟아있다.

△룡상과수를 보는 두 병졸이 국부조명을 받으며 무대랏쪽에 서로 등을 지고 서있다.

△까마귀소리 들린다.

병졸 1 여보게 동남당!

병졸 2 왜그러나?

병졸 1 우린 언제까지나 이렇게 룡상과수를 서고 있어야 하나?

병졸 2 거기 북서당에서 모르는걸 내가 알게 뭐요?

병졸 1 원 사람두, 아무리 패당이 다르다고 우리까지 이렇게 등을 지고 서있자나?

병졸 2 대감님들이 등을 졌는데 우리라구 뭐 이마를 맞대고 서있을가?

병졸 1 예잇 망할놈의 당파로다.

△무대 밝아지면 또 한명의 병졸이 과수를 서고 있는데 문정승이 허장사를 앞세우고 산을 뚫아올라온다.

병졸 2 아니 문정승이 룡상을 가져가려구 올라오는게 아니야?!

병졸 3 대감님, 올라오셨소이까?

문정승 룡상엔 별일 없느냐?

병졸 3 예, 저 동굴속에 그냥 있소이다.

문정승 오늘은 저 룡상을 대궐로 옮겨가겠으니 너희들은 그만 물러들거라.

병졸 3 알겠소이다. (나간다.)

병졸 2 우리 박대감님은 절대로...

병졸 1 우리 최대감님은 자릴 뜨지 말라고 하겠소이다.

문정승 웬 군소리들인고?

△이때 말발굽소리가 울리면서 서남당의 무관이 달려온다.

서남당 무관 대감님-술개국에 갔던 우리 밀사가 돌아왔소이다.

문정승 밀사가?

병졸 1, 2 달려나간다.

△이윽고 안사인이 들어선다.

안사인 대감님, 무사히 다녀왔소이다.

문정승 그래 어떻게 됐나?

안사인 술개국 황제의 인장을 받아왔소이다.

문정승 인장을? ! ... 어디 좀 보세. (종이장을 받아보며) 그러면 그럴테지. 여보게 허장사, 우리 무관들은 다들 어디 있나.

허장사 저 숲속에 숨어있소이다.

문정승 그랬으면 됐네. 만약 형세가 불리해지면 내가 부를테니 허장사두 가서 몸을 숨겼다가 즉시 출도하도록 하라 !

허장사 알겠소이다. (나간다.)

문정승 여보게 안사인, 이제 박공과 최공이 룡상때문에 올라올수 있겠는데... 어떻게 한다?

안사인 아 이제야 당당하게 왕권을 행사해압지요.

문정승 하긴 그래.

안사인 그래서 소인은 술개국에서 이렇게 왕관까지 마련해 가지고 왔소이다.(왕관을 꺼낸다.)

문정승 왕관을?!

안사인 신통력있는 그 황금룡상에 앉으면 천리 앞길도 환히 내다보인다는데 어서 이 왕관을 쓰시고 룡상에 가 앉아보시오이다.

문정승 자 그럼 씌우게.

안사인 예잇.

△까마귀가 운다.

△안사인 침을 빨고나서 문정승에게 왕관을 씌워준다.

문정승 아니 이거 약간 크지 않나?

안사인 아주 보기 좋소이다.

문정승 그래? 하하 오늘부터 나는 송도국의 왕이고 자넨 안사인이 아니라 안정승일세. (자기가 썼던 관을 안사인에게 씌워준다.)

안사인 황공하오이다.

문정승 (흥에 겨워) 왕관 쓰고 시름덜고 산천경개 바라보니 제일강산 예로구나. 송도국은 절승일세.

안사인 새 임금님 섬기고서 옛성지에 올라서니 무릉도원 예아닌가 천세만세 흥하리다.

문정승 흥하리라. 하하...

△말발굽소리 들린다.

서남당 무관 저기 박대감이 무관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소이다.

△잠시후 박정승이 무관들을 앞세우고 들어선다.

안사인 (문정승앞에 허리 굽히며) 상감마마! 박정승이 왔소이다.

박정승 뭐 상감마마?

문정승 (들리게) 너희들은 웬일이고?

박정승 너희들?

동남당무관들 웬일이고?

△박정승과 무관들 서로 마주보며 어이없어 웃는다.

문정승 이 무슨 방자한 웃음들이고?

박정승 저게 왜 저래 ?

동남당 무관 1 어디서 벌써 왕관까지 얻어 썼소이다.

박정승 오, 수수대끝에 바가지가 열렸구만, 하하...

문정승 너 이놈 ! 허리를 굽히지 못할고?

박정승 너 이놈 ! 그 바가지를 벗어던지지 못할고 ?

문정승 뉘앞이라고 감히 ?

박정승 뉘앞이라고 감히 ?

문정승 여보게 안정승 ! 저놈 저 말버릇부터 좀 고쳐줘야겠네.

안사인 예잇.

박정승 뭐 안정승? ! 네가 정승이야 ?으하하.

안사인 여보게 박정승 !

박정승 여보게 박정승? 이 말버릇봐라. 요 간에 붙었다 섭에 붙었다 하는 이 간사한 놈.

안사인 이젠 나한테도 그 말버릇을 좀 고치시지. 같은 동급인데.

박정승 뭐야 ?

문정승 가만 이거 안되겠네. 권력을 탐내서 가짜도사까지 만들어낸 저 협잡군에게 이걸 가져다 보이게.(술개국에서 받아온 종이장을 준다.)

안사인 자, 여기에 우리 문대감님을 송도국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술개국 황제의 도장이 찍혀있소.

박정승 (그 종이장을 뺏어보다가 찢어버리며)이 까짓 종이장을 누가 인정이나 한대?

문정승 아니 저런 무지막지한놈 봤나. (와락 달려들어 찢어진 종이조각을 주어 맞추며) 네놈은 도대체 뭘 믿고 술개국 황제의 인장까지 무시하는고 ? 뭘 믿구 ?

박정승 저 남문밖엔 백마국의 군사가 들어와있다는걸 몰라? 내뒤편 술개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다는걸 알아야지!

문정승 뭐라구? 그러니 네놈은 백마국놈들에게 투항한 역적이였구나.

박정승 역적이구 뭐구 난 룡상만 타고왔으면 그만이다.

문정승 뭐? 여보게 안정승, 가서 우리 무관들을 불러오게 !

△안사인 나간다.

박정승 우리 군사를 끌어오게 !

△무관들 나간다.

문정승 저 룡상을 나한테 넘기시지!

박정승 나한테 넘겨야지!

문정승 정 그렇다면 우리 권력을 나눅시다. 나라도 두토막으로 갈라서 다스리면 될게 아니요?

박정승 두토막이든 세토막이든 난 룡상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것부터 가봐야겠다.

문정승 좋다. 그럼 나두 잘테다.

△그들의 걸음과 함께 무대가 움직이면서 왕실 사당밑에 있는 동굴이 흘러나온다.

△박정승과 문정승 동굴문을 열어제끼자 그안에서 황금룡상이 눈부신 빛을 뿌린다.

△두 정승이 황홀경에 잠기는데 룡상이 동굴밖으로 미끄러져나온다.

△순간 당황하여 뒤걸음치는 두 정승.

문정승 아니 박공, 저 룡상이 저절로 나오고있으니 저게 웬일이요?

박정승 그러게말이요.

△룡상뒤에서 최정승이 나타나 재빠르게 올라 앉는다.

문정승 아니 저 최정승이 어느새?

박정승 파시 생권 생권로다.

최정승 난 이 룡상을 해청도로 싣고 갈 수레를 기다리고있는데 경들은 벌써 바래워주러 왔는고?

문정승 백일견몽이라더니 저게 대낮에 개꿈을 꾸는게 아니야?

박정승 양천대소할 일이군.

최정승 허, 도사님이 임명한 상감마마께 이 무슨 고약한 말버릇들인고?

박정승 이 어리석으신 상감마마야! 가짜도사판에 놀아난것두 모르구 진짜왕 행세를 해?

최정승 옳지, 그걸 제편에서 먼저 드러내? 그럼 좋소. 이 진짜 어리석은 박대감님, 난 그제 가짜도사라는걸 알면서도 속는척했댔소.

박정승 아니 그럼 내가 도리어 저놈한테 속히웠단말인가?

문정승 그러니 공들은 다 협잡군들이고 이 룡상에 앉을 위인은 력대 왕족의 후손으로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나밖에 없소.

박정승 청렴결백하다구?그래서 술개국 황제한테 녹거리 인장을 하나 받아온 대가로 우리 송도국 땅인 해청도를 떼주겠다고 했소?

최정승 아니, 내 별장이 있는 해청도를 떼주다니?

박정승 게다가 무슨 녀자가 그리도 많은지 해마다 수백명의 궁녀들까지 섬겨바치겠다고 했다니 얼마나 속이 깨끗하오.

최정승 그러니 궁녀가 모자라면 나중엔 하늘소같은 제 녀편네까지 팔아먹을셈인가?

문정승 네놈은 빠치지 말아. 이 표리부동한 놈.

최정승 뭐 표리부동해? 이놈!

문정승 저놈은 우리 셋이 모여있으면 늘 의종게 지내자고 하면서도 전번에 사냥갔을 때는 박공을 죽여버려야 마음놓고 살수 있다면서 독약이 묻은 화살을 곱같은 박공의 염통에 꽂 박아넣자고 날 꼬드겼댔소.

박정승 뭐라구? 나한테 와선 문공의 그 길다란 모가질 수수이삭 찢르듯이 쑥덕 잘라버려야 한다고 쓸라닥거리더니... 요 생쥐같은게 제혼자 살아서 판을 치자구 해?

최정승 고양이와 부엉이만 없어진면 생쥐라두 판을 치기 마련이다.

박정승 요게 아직두 짹짹거리 ? 콧 빠아놓구말테다.

최정승 뭐야 이놈 콧-

박정승 하 조마구만한게 재수없이 ...

최정승 작아도 후추알이다.

문정승 개밥에 도토리는 아니구?

최정승 닥쳐라 이놈! 키크고 싱겁지 않은건 배안의 병신이라더니...

문정승 뭐 배안의 병신?

박정승 자 그러니 이 룡상엔 나처럼 풍채좋은 거인이 앉아서 칼을 휘둘러야 나라의 위세를 만방에 떨칠수 있소.

문정승 덩치크고 기운세다고 황소가 왕노릇한답디까?

박정승 큰 북에서 큰소리 난다는걸 몰라?

최정승 쟁과린 작아도 귀청을 쟁다. 그러니 이 러쿱저러쿱 해도 나라를 위해 머릴 너무 써서 이렇게 대머리가 된 나같은 성인군자가 이 룡상에 앉아야 하오.

박정승 이 뽀뽀스러운 뽀대야. 사기협잡으로 제 배속만 채우다 못해 마지막엔 상감마마께 올라오는 보약까지 잘못 채먹고 탈모증에 걸려서 머리칼이 뭉청 빠진 주제에 뭐가 어째?

문정승 이놈아, 속이 텅빈 너같은 뽀대머릴 이 룡상에 앉힐바엔 차라리 털 하나 없는 삶은 문어대 가릴 앓히겠다.

최정승 그래두 지금껏 상감마마의 뜻을 받들어 온건 우리 북서당밖에 없소.

박정승 그래서 네놈은 적들이 쳐들어오기전에 무주성을 더 높이 쌓으라는 상감마마의 언명은 실행하지 않고 침년을 끼고 해청도에 들어가서 제 별장만 크게 지었느냐? 이 양봉읍위하는놈!

최정승 네놈은 임금이 앓아눕게 되자 이 룡상을 노리면서 왕의 친척이라면 4 촌, 8 촌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고 늑다리 부원군 하나만 남겨놓지 않았느냐. 이 악독한놈.

문정승 그뿐이 아니요. 저놈은 자기 패당의 군사를 대궐안에 끌어들여서 백주에 왕권까지 뒤집어엎으려던 무서운 폭도요.

박정승 그래두 상감마마께서 운명하시면 뒤따라 순사하겠다고 혈서까지 썼던 충신은 나밖에 없다 없어!

문정승 뭐 혈서? 돼지 먹판 피로 쓴것두 혈서냐?

박정승 돼지피는 피가 아니라더냐?

문정승 하하하... 네놈은 그래 돼지와 같은 족속이 돼서 백마국놈들한테까지 나라를 팔아먹었느냐? 이 역적중의 역적놈아.

최정승 아니 저놈이 적들과 손을 잡았단말이요?

문정승 그렇소.

최정승 예끼. 이 천벌을 받을놈!

박정승 좋다. 난 나라와 백성, 네놈들의 등가죽까지 벗겨 팔아서라도 룡상만은 타고앉아야겠다.

최정승 말밀천이 모자라면 입안에서 주먹이 나온다더니...

박정승 이것들이 정말 주먹맛을 봐야 알겠어?

두 정승 덤빌테면 덤벼라. (같이 대든다.)

박정승 (뒤걸음치며) 좋다. 애들아-

문정승 (밖에 대고) 애들아! -

△동남당과 서남당의 무관들이 들이닥친다.

최정승 아니, 이게 무슨짓들인고. 적들이 성문 밖에까지 쳐들어왔는데 동족끼리 피를 흘릴 작정인고?

박정승 총과 칼은 밖에 있는 적만 치라는게 아니다. 저놈들을 쳐라!

문정승 맞받아쳐라!

△두 패당의 무관들 칼싸움을 벌린다.

△그사이 세 정승은 저마다 룡상을 끌어가려고 었치락뒤치락 개싸움을 벌린다.

△세 정승이 룡상에 같이 올라앉았을 때 번개가 일면서 룡상이 박산난다.

△왕실사당이 무너져내린다.

△피난민들의 아우성소리.

△피투성이 된 홍무관이 달려온다.

홍무관 대감님!-

박정승 웬일이냐?

홍무관 백마국 군사들이 궁성에 쳐들어와 우리 동남당도 몰라보구 대궐까지 불태웠소이다.

박정승 뭐라구?

홍무관 힘을 합쳐 싸웠으면 능히 막아낼수 있는 적앞에서 대감님들이 제 뿔뿔이 노는바람에 우리 송도국은 망하고말았소이다.

박정승 아 그러니 파쟁바람에 룡상두 나라두 다 망쳐먹었다단말인고?!

두 정승 망했구나! -

△화포알이 날아와 터지며 무대는 불길에 휩싸인다.

방창

불구름 몰아와 나라를 망친
파쟁의 죄악을 어이 잊으랴
천년만년 세월이 가도
력사의 이 교훈 잊지 않으리

△방창이 고조될 때 막이 내린다.

동만의 갈림길에서

정렬

1

와스스 -

음산한 회오리바람에
늦가을 락엽이 휘말려 흩어지는
동만의 갈림길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북으로
동으로
세 갈래 갈림길

행방없이 가다가도
발을 헛디디면
불행을 겪고
잘 접어들면
복을 얻는다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설도 많은
갈림길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오가는 길손마다
운명의 길처럼
하많은 생각과 번민을 안고
발걸음 멈추는 갈림길
아, 동만의 갈림길

휴식명령이 내려
오늘은 이 갈림길우에 멈춰섰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오가

검질기게 달려드는 《로벌대》 무리들 죽쳐대며
련사홀 계속되던 행군이었으니
저저마다 땀젖은 배낭을 내려놓는다
다리쉽도 하고
구레나룻도 민다
휴식은 즐거워라

어느새 바위벽을 그을며
우등불이 타오르고
야전밤통을 거는 소리
그 누군가의 물통춤에
와그르 웃음소리, 박수소리

하건만 그 휴식속에
끼여들지 않고
락엽지는 갈림길우에
호을로 서있는 한 대원

끼룩 끼룩-
갈길 찾아 외기리기 우는
고개넘어 산넘어 뻗어간
갈림길 한끝을 이윽히 바라보며
와삭와삭 가랑잎 밟는 병삼이

가랑잎우를 구는듯 내닫는 다람쥐
어느새 바위뒤에 사라지고
그의 번거로운 생각처럼
바람결에 마른 잡초들만
뒤설레이는 갈림길

머리우에는
외기리기 우는 소리
갈림길 멀리 지나
그의 번거로운 생각도 날고...

이 갈림길에서
서쪽으로 가고 또 가면
나서자란 정든 마을이 있었다
느티나무 정겨이 설레이는
그곳에는 늙으신 어머니 계시고
사랑하는 처녀가 살고있었다

피눈물나는 머슴살이 고역속에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내내 자리에 누워계시던
어머니 병고는 어떠한지?
애모뿐 그 처녀는 무탈하게 지내는지?

행군의 쪽잠결에도
눈에 삼삼하던
삽작문 정든 집
갈림길 아득히 추억은 날고
어머니와 두고온 처녀의 모습
노을빛속에 자꾸 어려오고...

문득 등뒤에서 울리는 인기척
어느새 달려왔는가
풍기사령
《병삼동무
사령관동지께서
동무를 찾으시오》
《네?!
사령관동지께서요?!》

병삼의 가슴 울렁이여라
왜 부르실까?
옷깃 바로잡으면서도 그 생각
언덕길로 달려가면서도 그 생각

하건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령관동지께서
어찌하여 이 갈림길우에
대오를 멈춰세우셨는지
평범한 한 대원을
어찌하여 친히 부르셨는지

산등성이 가늠 분비나무에
갈기 드센 백마를 매여놓은
사령부 휴식터
병삼이 달려갔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평바위우에 군용지도로 펼치시고
깊으신 사색에 잠겨계시여라

그를 알아보시고
군용지도에서 눈을 떼시는 장군님
옷차림을 눈여겨보시더니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여라
《병삼동무
동무에게 중요한 전투명령을 주자고 하는데
군복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시 오시오.》

사령관동지께서
무슨 중요한 전투명령 주시려는가
군용지도를 펼치시었으니

분명 급한 정황이 생기었구나

풀덤불 뛰어넘으며
단풍잎 걷어차며
달려가는 병삼의 속생각
(앞에도 적 뒤에도 적
어려운 행군이 계속되는데
총을 잡은 전사가
순간이나마 고향생각
나약한 집 생각하다니...)

마음속 안개를 말끔히 털어버리며
단풍진 언덕길로
살같이 달려가는
병삼의 후회로운 마음이여

2

감빛 노을이
마지막 잔광을 던지는 저녁길로
소대장 학근이가 돌아온다
새초단을 무겁게 둘러메고

사령부의 백마를
배불리 먹이려고
산기슭 무성한 새초를
아름아름 베어메고
다그쳐 걷는 마음속 생각도 깊어라

지하공작임무를 받고
적구에 나갔던 그밤
연길에서 온
련락원이 들려주던 그 목소리
이다지도 가슴 에이는것인가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님
강반석녀사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어린 막내동생은 남의 집 처마밑에서
만형님을 찾으며 밤마다 운다고...

아버님 돌아가신 날도
어머님마저 세상을 떠나신 그날도
장군님 들리시지 못한 소사하
학근의 눈앞에도 삼삼하
아, 갈밭속의 옛 초가집이여

바람 거친 이역의 하늘밑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고향집처럼
사랑을 주고
힘을 주던 집

그리도 다심하시고 인자하신
어머님께서
낯설은 이국의 들판에

홀로 누워계신단말인가

어머님의 사랑도
가정의 온기도 모르고
협악한 세파에 부대길 두 동생
이 늦가을의 찬서리를
또 얼마나 차거웁게 받고있는지

그리운 그 어머님
그 동생들 생각하시며
장군님의 마음하신들
그 어느 하루 편한 날이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었던가
너무도 많은것을 잃으신
우리 장군님처럼
크나큰 불행
한가슴에 안으신분

어머님의 령전을 찾으시는 길우에
사랑하는 동생들을 만나시는 길우에
어서 장군님을 세우시자고
지하조직에서 주는 보꾸레미를 메고
학근이 사선을 헤쳐왔거니

쓰린 마음 누르지 못하며
보고를 올렸을 때
천년정적을 한몸에 안으신듯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서시던 장군님
창밖 먼곳을 바라보시던
못잇을 그 영상이여

찬바람 부는 긴긴 겨울밤
아들을 기다려
문고리 한번 채우지 아니하신 어머님
깊은 병고에 계셨건만
머리 한번 짚어드리지 못하고
림종의 시각마저 지켜드리지 못한
그 번뇌, 후환으로 가슴 저미는것인가

와삭거리는 갈숲길 따라오며
맏형님 가면
언제 다시 오는가고
눈물 젖어 묻던
막내동생의 그 목소리 가슴 허비는듯

아니면 언 두부에
마실줄 모르시는 술 한잔씩 청해놓고
철주동생과 기약없이 헤어지시던
가슴아프신
그 주막집을 그려보시는듯

숨을 죽이고
숙였던 머리를 들던 그 순간

학근이는 보았더라
펼창가에 돌아서시던 장군님
안색을 보이지 않으시며
눈가에 흰 손수건을 올리시는것을

소리없는 울음을 삼키며
사령부 천막을 조용히 나선 소대장
간고한 행군길에서도
보꾸레미만은 소중히 안고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던가

하기에 그만은
그만은 믿고있어라
장군님께서 이 갈림길에서
휴식명령을 내리신것은
소사하로 다녀오시기 위해서임을...

대오를 멈춰세운 갈림길에서
장군님께서 군모를 올리시고
수림너머 소사하쪽을
감회롭게 바라보시던 그때

단풍잎 설레이는 저기 등판너머
저녁안개속에 우렷이 안겨오던 정든 초가집이여
하얗게 피여 반기던 갈꽃이여
못잇을 사립문에
그이를 모시고 들어설 기쁨 안고
학근이 서둘러 닳을 들었거니

너무도 많은 날들을
미루고미루신 길이기여
이번만은 꼭 가시리라
장군님 모시고
먼길 다녀올 말인데
어서 푸짐히 먹여야지

말아 말아
사령부 백마야
우리 마음 모두어실고
수고를 해주려마
저 산너머 소사하집으로
번개같이 달려가려마

학근이 새초단 추슬러올리며
코노래도 흥얼흥얼
발걸음에
날개돋친듯

헌데 이 어인 일이냐
키 흰칠한 풍기사령
다감한 처녀처럼
향긋한 들꽃을 꺾어
정성스레 백마를 꽃치장하고있어라

굴레에 수놓은 빨간 꽃
깨끗한 마음에서 피어 아롱진 꽃
동만의 낮설은 길우에
때아닌 봄향기 풍기며
별바람에 하늘거려라

눈이 휘둥그래서
별관이 울리게 소리치는 학근이
《여, 풍기사령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소
동무가 투박한 그 손으로
군마에 꽃치장을 다 하다니...》

《내 심장이 돌덩인줄 알았소?》
《난 동무가 폭쟁인줄만 알았는데...》

《하하하...》
《허허허...》
별관길우에 뭉게구름처럼 피어나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뭔지 나도 잘 모르겠소
사령관동지께서
오늘따라 꽃치장하라고 하시니말이요》
심드렁한 풍기사령의 말

학근의 얼굴에
활짝 피어나는 만발한 웃음꽃
《아무렴
사령관동지께서 타실 군마인데
꽃치장해야지

그리운 동생들 만나실
상봉의 기쁨 싣고
절령절령- 소사하집에 들어설 말인데
하늘의 별이라도 따서 수놓고
구슬치장 꽃치장 해야 하구말구》

기쁨의 샘물에
쌓였던 피로 일시에 씻기운
학근의 눈앞에
물결처럼 밀려와라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이 길에 나서기 위해
지하조직에서 꾸려준 수수쌀 한말
보꾸레미에 둘러메고
넘어온 높은 령 고개고개 그 몇백리
쓰러지며 풀뿌리 쥐여당기며
혈전의 불바다 헤치며
툭아온 행군길 또 그 몇백리

가시덤불길
험난한 사선길 헤쳐온것은

사령관동지께 오늘의 이 기쁨
이 행복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학근이는 웃음샘이 병글병글
풍기사령은 기쁨샘이 넘실넘실
새초를 골라먹인다
알뜰살뜰 말잔등을 끌어준다
신바람났어라

3

이제나
저제나
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기다리며
승엄한 자세로
가슴 울렁이는 병삼이

단정한 옷차림 살피시며
혼술의 실밥도 다정히 뜯어주시더니
뜻밖에도 물으시는 사령관동지
《병삼동무의 고향마을이
여기서 멀지 않나지 ?》

《네 ? !》
병삼이는 당황하여
심장이 툭툭 뛰었다
《사령관한테 숨기면 되나 ?》
《사실은...저 ...》
병삼이는 영문을 몰라
말끝을 얼버무렸다

《음...
동무의 고향마을이
길가에 느리나무 서있는 사슴골이지.》
《네. 》
《내가 아까 지도에서 보니
낮익은 마을이더군
우리가 성시를 습격하고
한번 지나다 들린 일이 있소》

장군님께서는 그 마을을 보시는듯
먼 돌판너머 눈길 드시여라
《제가 나서자란 마을은
어디 가나 못잊을 고장이지
두고온 늙으신 어머니와 애인이
무척 보고싶을게요》

우리 집 형편을
어떻게 그리도 환히 알고계실가
아까 펼치셨던 군용지도에서
원쭉격멸의 작전이 아니라
한 전사의 고향마을을 찾으셨구나
병삼의 가슴속엔
세차게 일어난지는 불뭉치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장군님

《이제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면
차주 갈수 없는곳인데
그래서 일부러 행군길을 멈췄소
내 말을 타고 한번 갔다오시오
어머니와 애인을 만나보고
새벽에 돌아오도록 하시오.》

《네 ? !》
세차게 방망이질하는 가슴 안고
병삼이 발꿈치를 모아붙였다
《사령관동지께서
급한 명령을 주시겠다고 하시기 않았습니까?》

웃으시며 웃으시며
병삼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는 장군님
《고향집으로 가는것이
내가 동무에게 주는
중요한 전투명령이요》

병삼의 두볼로
구슬져 내리는 뜨거운것이며
한 대원의 보이지 않는 속생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이까지 헤아려보시고
명령으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그 사랑 뜨거운 그 은정

《사령관동지 ! 》
넓고넓은 그 품에 안겨
병삼이는 목이 메여 이 한마디뿐
더 말을 잊지 못해라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기쁜날에
올다니 ...》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령관동지

길 떠나는 자식을 차비시키는
다심한 어머니의 마음이신듯
깊은 사연 깃든 그 보꾸레미를
몸소 말잔등에 얹어주시여라

부녀회사업을 잘하라는 당부와 함께
애인에게 선물로 주고 오라시며
병삼의 가슴에 안겨주시는
붉은 비로도천에 싼 금가락지 하나

아, 금가락지
다치면 은방울 튕기는 소리 들릴듯
마치 하늘의 별에서 따온
눈부신 빛이 뿜어지는듯

꿀머슴군시절을 결별하고
유격대에 입대하던 그밤

앞산에 걸린 쪼각달 바라보며
나이찬 애인의 치렁치렁 따내린 머리태를
고옴게 빗을수 있게
저 달이 얼레빗으로 뿔순 없는가
그날의 소박한 소원마저
백배로 더하여 안겨주시었으니

귀중한 선물
두손으로 받아안은
병삼의 그 얼굴
감격의 눈물로 젖고 또 젖어라

어느새 풍기사령이 이끌고온 백마
투레질로 만기는데
사령관동지께서는
고삐를 넘겨받으시며 말씀하신다
《병삼동무, 어서 올라타시오》

버쩍 쳐든 날렵한 이마
네굽을 놓을 때면
날리는 잔등의 갈기
류달리 흰 사령부의 백마여

백두의 거친 산야에
일제의 대군을 쳐부시는 낮과 밤
사령관동지께서 타시고
언제나 전장으로 달리시는
그 백마가 아닌가

속영의 밤
흰 갈기도 쏘여주시고
손수 먹이도 주시며
사령관동지께서 극진히 아끼시는
그 말이 아닌가

(사령관동지의 백마에
이름없는 대원이 오르다니...)
병삼이 너무도 황송하여
주춤거리는데

불룩한 보꾸레미가 실린
말안장을 바로놓아주시는
사령관동지
《어머니를 모시고
광복된 조국으로 갈 날이
꼭 온다고 말하시오. 》

《알았습니다
사령관동지》
목이 메여 울먹이는 대답

사령관동지의 부촉임 받으며
백마에 올라왔은 병삼이
눈물이 글썽

웃음이 벅글

손을 들어 바래주시는
장군님의 미소어린 목소리
《잘 잤다오시오
나는 대오와 함께 동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소》

렬을 지어 설레이는 분비나무숲
길우에 수놓은 철늦은 빨간 단풍잎
축복받은 지평선으로
백마가 달린다

찌어-찌
노을이 불타는 하늘에 휘감겨
채찍은 돌고
백마는 수림을 지나
별관 한끝으로 내달린다

멀어져가는 말발굽소리 들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학근소대장
발밑에 고인 희망의 돌담이
와르르 무너져내린듯

왈칵 가슴벽을 치는 생각에
사령관동지 앞에 었드린 학근이
눈물에 젖어 말쑹드린다
《사령관동지
저 말은 소사하로 갈 말인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지하조직에서 보낸 보꾸레미까지...
어떻게 이리실수 있습니까》

쭈욱-
단풍잎 훑어드시던 장군님
달래시듯 학근의 어깨를 꼭 잡으시더니
천천히 사령부쪽으로 향하시여라

목이 꼭 메여
달리는 백마를
넋없이 바라보던 풍기사령도
뜨거움을 삼키며 우러르는 마음이어

(소대장도 모르는 한 전사의 고향을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떻게 알고계셨단말인가 !

사령관동지께서
난데없이 군마에 꽃치장 하라고 하신것도
전사의 어머니와 애인에게
밝은 웃음 주시기 위해서였구나)

다시 힘을 내여
일어선 학근소대장

풍기사령을 마주 붙잡고
격해진 음성으로 웨친다
《저 동문 신입대원이라치구
동무는 왜 사령관동지를
이렇게 모시는가말이요》

눈물이 글썽한
풍기사령의 대답
《넌들 어떻게 하겠소
자신과 가정에 대해서
전혀 돌보이지 않으시니 말이요.》

가슴 터지는 그 사연
아는지 모르는지
간절한 눈빛속에 멀어져가는 병삼이
네굽을 안고 나는듯
광막한 대지 한복판을 가르며
말발굽소리 울린다 말발굽소리 울린다

4

늦가을 찬이슬 맞으시며
한지에서 밤을 새우시는 사령관동지
항일의 대오를 멈춰세우시고
대원을 기다리시는 밤
아, 동만의 늦가을밤이여

피고된 언덕우의 갈꽃이
흰눈처럼 날리는 소사하로 가셔야 할
장군님의 귀중한 시간이
갈림길우에 흐르는 밤이여
한 전사를 기다리는 사랑의 밤이여

장군님께서는
깊으신 생각에 잠기시여
한결을 또 한결을 견고 결으시고
학근이와 풍기사령은
별관길 한옆에 넋잃은듯 서서
젖은 눈빛으로 우러르는데

이루지 못한
대원들의 허전한 마음
야속한 그 마음을
조용히 위로함인가
아득한 수림우에 둥근달 내려앉아
유난히도 밝아라

별관길에 낮추낮추 떠서
학근의 그 심정 제가 다 안다는듯
밝게도 비쳐주는 달의 속삭임
와삭거리는 갈밭속에
어머님 정 깊은
소사하집이 저게 보여요
좁쌀 한말 지시고 장군님 건드시던
시내가 그 징검돌도 예대로 있어요

저 소리 듣지 못하나요
부르면 금시 품으로 달려올듯한
장군님 동생들의 목멘 목소리
《형님》
《형》

그 동생들 그 가정때문에
장군님께서도 가슴이 아프시여
때로 잠못 이루시고
입맛도 잃으시지 않으시나요...

장군님의 두 동생을 그리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학근이 소리없이 울고
풍기사령도 눈물을 삼키는 동만의 밤

문득 한밤의 정적 깨치며
락엽 쌓인 태고의 별판길 우에
장군님의 음성이 울린다
《풍기사령동무
어서 대오에 출발신호를 내리고
동쪽길로 행군로정을 잡아야겠소》

풍기사령은 어안이 병병하여
미처 대답을 못드리고
학근이는 제귀를 의심하였다

《장군님, 동쪽이면
저기 소사하쪽으로말입니까?》
놀라는 학근의 물음
《그렇소.
빨리 서두릅시다.》

학근이와 풍기사령은
너무도 뜻밖이었어라
그렇게도 마다하시던 장군님께서
소사하로 가시다니 ...
우리들의 소원을 끝내야 들어주시다니...

가슴속에 인 기쁨의 파문이
너무도 커서
눈물로 흐르는것인가
학근이도 풍기사령도
흑흑... 흐느끼는 소리

어느덧 숲속을 흔드는
류량한 나팔소리, 구령소리
행군길에 오른

힘찬 대오

기쁨이 함뿍 떨기져
어깨를 툭 치는 풍기사령
《여, 소대장
대원을 먼저 집으로 보내시고
소사하로 가시는줄
우리가 미처 몰랐소》

《아무렴
전체 대오의 소원인데
들어주시지 않을라구》
웃음 망울을 터치는 학근의 대답

《배낭에 향나무는 좀 있소?》
《간수하고있네
이번 기회에 향불도 피워드리고
어머님의 분묘에
전대오가 조충도 올리게 합시다》
《아무렴, 그렇게 해야 하구말구》

등근달도 등등... 복을 울리며
저 먼저 앞서가는듯
광막한 대지에 금주단 깔며
소사하쪽으로 기울어져가고

장군님의 큰걸음 따라
철의 대오가 흐른다
저벅 저벅 저벅...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별판의 고요를 흔들며
바삐 달려오는 발자국소리
뒤미처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
《사령관동지
척후에서 <토벌대>가 밀려온다는
급한 신호가 왔습니다》

《음, <토벌대>놈들이란말이지
내가 예견했던
바로 그 시각 그 지점에 나타났군》
천만무게로 올리시는 장군님의 말씀

다시 빙 둘러보시며
전투명령을 내리시는
장군님의 음성 별판을 흔든다
《7 련대와 8 련대는 야산기슭을 따라
산개대형으로 신속히 위치를 차지하시오

각 편대들은 놈들이 나타날수 있는 수림속에
매복을 파견하고
기관총대는 나의 구령에 따라 일제사격하시오
척후대는 놈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시오》

《알았습니다》

한마디 대답을 남기고
지휘관들 서둘러 떠나는데
학근소대장은 앞을 막아서며
간절히 말씀올린다

《사령관동지

여기는 위험합니다
사령부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어서 자리를 떠나 하겠습시다》

《가만》

한손 높이 드시고 하시는
천리 장강도 멈춰세울듯한
장군님의 근엄하신 음성

《우리는 여기서, 바로 여기서
병삼동무의 고향길을 지켜주어야 하오
그래야 시간도 더 얻을수 있소

이제 병삼동무가
갈림길로 오겠는데
만약 우리가 거기에 없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적들을 담새기고
다시 갈림길로 가야 하오
소대장동무, 내뒤통을 따르시오
나와 함께 앞으로 나갑시다》

학근이도 풍기사령도
그제야 알았구나
평-
가슴엔 또다시 걱정의 소나기

(아, 장군님께서는 소사하로가 아니라
한 전사에게 애인과 어머니와의
상봉의 시간을 더 주시기 위하여
전사의 고향길에 적탄이 미치지 못하게
갈림길에서 멀리 오셨구나

멀리 오시여 전투를 벌리시는구나

장군님께서서는
언제한번 사사로운 일로
사령관의 위치를 비우신적 있었던가
세상사람들 다 그렇게 한대도
장군님께서만은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는구나

힘이 부쳐도
자기자신에 대한 고통은
참으실대로 참으시면서도
동지들이 겪는 고통
대원들이 당하는 아픔만은
참지 못하시는구나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동지들
그 대원들을
자기처럼 믿으시고
자기이상으로 사랑하시는분이
아, 이 세상에 단 한분밖에 없는분이
우리가 모신 장군님이시구나)

단풍발을 쭉 가르실듯
권총갑을 힘있게 잡으시고
성급히 앞서 걸어가시는 사령관동지!

언제나와 같이 활달하신
그 걸음 그 자세로
가장 위험한 싸움의 진두
전투의 제 1 선으로 나가신다

아, 동만의 별관길우에서 하루밤
웅근 한세기가 겹쳐흐르는듯
숲속에 불을 안고 숨쉬는 준엄한 밤
크나큰 명령속에 안전이 담보된
전사의 고향길이어

기쁨의 시간
한 전사의 행복한 시간을
총검으로 지켜주시고
더 길게 더 오래 이어주시는
승고한 사랑이어
명장의 위대한 작전이어

오, 길이어 길이어
동만의 갈림길이어 말하라
살길 찾아 정처없이 떠나간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처럼

우불구불 험산속으로 쫓겨들어간 네우에
언제 이런 전설 새겨졌더냐

길이 생겨
처음으로 가장 순결한 삶의 향기 풍기고
철리로 빛나는
위대한 인간의 사랑이 흘러라

인생의 길에는 갈래 많아도
동지들을 위해 혁명을 위해
장군님께서는 갈래를 모르시는
오직 한길만을 곧바로 가시기에

천만리면 천만리
우주의 한끝이면 그 한끝까지
전사들은 가시밭길 사선길 헤치며
웃으며 그 품에 달려오지 않았던가

아, 그리운 어머니
돌봐주지 못하는 두 동생에 대한
쓰리고쓰린 가슴속 아픔과 고통을
대원들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신
동만의 갈림길이어 !

오랜 세월
맨발과 짚신, 달구지 자욱들이
이쪽 저쪽으로
살길 찾아 향방없이 흘러갔어도
고달픈 한숨과 원한만이 차레지더니

파산과 불행이 숙명이었던 네우에
가장 빛나는 차원의 하늘에서
태양의 빛발이 비치였도다

동쪽을 가도
서쪽을 가도
북쪽을 가도
장군님을 모시고
장군님따라 가는 길만이

오직 그 한길에만이
살길이 있고
그 한길에만이 세상 만복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갈림길이며, 네우에 새기었어라
력사의 새 전설 남기었어라

만경대, 여기서...

리진학

아이들은 여기서
입단청원서를 외우며
붉은넥타이를 매고
농장벌 처녀들은 한껏 웃으며
교향집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긴긴밤 돌고돌던 물레
가난이 눈물겹던 물동이 ...
다시는 되돌아올수 없는 세월의 모습으로
전사들은 가슴깊이 안고 가고
먼 개발지로 떠나는 청년들은
뜨거운 마음담아 나무를 심는다

송이송이 향기 풍겨
마당가에 웃는 꽃들을 보며
방직공처녀들은 천을 짜고
만경대의 꽃처럼 곱게 짤 꿈을 키우고
머리 흰 로박사는
과학의 새 세계를 그리며
여기 사립문을 나선다

그리워 찾아올적마다
우리 생을 돌이켜보게 하고

가슴속 생각을 더듬게 하는 여기
초가이영아래
우리 마음 하나로 불러세우는
정다운 교향집이며 !

이 나라 농가 어디에나 있던
수수한 저 등잔이여도
수난의 어둠을 태운 등불이고
흙물 올린 저 토방에 돌 하나도
조국을 받들어올린 반석이여서
가슴은 이리도 뜨거운것인가

남산의 푸른 소나무
만경대의 꽃 한송이
우물가에 찰랑이는 물 한방울에도
혁명의 뜻이 빛나
찾아오는 사람들 끝이 없는가

용해공은 여기서
쇠물을 폭포처럼 뿜을 마음 다지고
아프리카의 한 투사는
여기서 조선의 어제와 오늘을 보며
야자숲 헤쳐갈

투쟁의 새 전구를 바라본다

언제나 우리 가슴 높뛰게 하고
언제나 우리 마음 불타게 하는

론설

아, 만경대, 만경대 너는
영원한 세월 우리의 맹세를 두고 사는
새삶의 고향!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영화예술론》은 공산주의문학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대백과전서

불후의 고전적 로작 《영화예술론》 발표 15 뉘에 즈음하여

리봉진

×

오늘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
치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대전
설행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불
후의 고전적 로작 《영화예술론》 발표 15 뉘을 뜻
깊게 맞이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화예술
론》을 발표하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문학
예술의 참다운 면모와 그 창작의 근본원칙과 방도
를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위대한 주체시대이다. 주체시대는 인
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
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야 한
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이 새로운 문학예술을 건설하
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
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
를 위한 우리 식의 문학예술리론을 확립하고 실
전에 구현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나갈것이다.》

로작은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고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할데 대한 문제들
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은 주체적 문예사상과 리론을 집대성하고 전면
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문예리
론총서이며 백과전서이다.

불후의 고전적 로작 《영화예술론》은 무엇보
다 먼저 문학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성격과 사명, 창작 원리와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
힌 주체의 인간학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체계화하
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문
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
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는것이
다.

문학이 인간을 그린다것은 현실에서와 같이
슬퍼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인간의 생활을 그린다
것을 말하며 문학이 인간에게 복무한다는것은 절실
하고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
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준다는데 있다.

문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는것은 자기의 정치적 자주성
을 지키며 그것을 빛내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
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밝히는것이다. 문학이 이
렇게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주체가 선
우리의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여야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적극 복무할수 있다.

로작에서는 문학작품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생
명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풀며 공산주의적 전
형을 내세우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밝
히였다.

우리의 현실에서 정치적 생명문제가 중요하
게 제기되는것만큼 작가들은 창작에서 정치적 생
명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내세우고 깊이있게 풀
며 공산주의인간전형을 내세워야 한다.

로작에서 밝힌 공산주의인간학의 기본내용은
인간을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생동하게 개
성적으로 그리며 그들의 전형적인 생활을 풍부하
게 세부화하여 그리면서 언제나 인물들의 성격을 살
리는데 초점을 주며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
고 풀어내는것이다.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제시
됨으로써 주체문학의 기본요구와 묘사방법, 형상방

도가 새롭게 해명되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인간학적 면모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다.

로작은 이처럼 력사상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에 기초하여 완성된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주제적인 문학론을 확립하게 되었다.

로작은 문학의 본성적 특성을 새롭게 해명하고 종자리론을 핵으로 하여 주체의 창작리론을 새롭게 밝히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통일시키고 판통하여나가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를 해명하는것은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로작에서는 작품의 핵으로 되는 종자의 본질과 기능, 종자를 옳게 골라잡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 종자를 예술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사상적 알맹이이다.

로작은 종자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라고 밝힘으로써 그것이 예술적 형상창조에 작용하는 근본요인임을 론증하였다.

로작은 문학예술창작의 첫 공정을 독창적으로 밝혀주고 창작에서 핵을 옳게 골라잡으며 예술적으로 잘 가꾸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종자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의 창작원리를 새롭게 밝히었다.

종자리론에 의하여 인류는 비로소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산 인간의 생활로써 뚜렷이 밝혀주는 공산주의인간학창조의 근본고리를 확고히 틀어쥐고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는 주제적 문학예술건설의 길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었다.

주제를 정치적 의의가 있게 푸는것은 종자를 예술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주제를 정치적 의의가 있게 풀어야 하는것은 모든 인간문제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언제나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주제를 정치적의의가 있게 풀어야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일수 있다.

로작은 작가들이 사회주의현실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여 깊이있게 밝혀내면서 우리의 혁명적 문학예술의 주제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탐구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혔다.

로작은 혁명적 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내 대한 문제를 밝히고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들어가서 그의 사상의식이 발전하는 과정, 혁명적 세계관의 형성과정을 그려내는것은 문학의 본성적 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인간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을 깊이있게 섬세하게 그려내기 위하여서는 그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로작은 생활이 있고서야 예술이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문학예술은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려내야만 사람들에게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시킬수 있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로작에서는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리기 위한 사실주의적묘사원칙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로작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규정적이며 결정적인것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대작의 본질적 특징은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에 있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대작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에게 혁명적 영향을 줄수 있는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는것이며 종자의 요구에 맞게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드러낼수 있는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는것이다.

로작은 구성을 똑바로 세워야 사상적 내용을 깊이있고 명백하게 전개할수 있고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갈등은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풀어야 한다는것을 밝히었다.

로작에서는 극조직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이라는것을 밝히면서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인간의 감정을 떠나서는 인간성격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론증하였다. 로작은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대사가 명대사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서 대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과 작품의 양상과 창작에서 독창성은 본성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론증하고있다.

볼후의 고전적 로작은 문학뿐만아니라 다른 부문 예술의 건설과 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전면적 해답을 주고있다.

로작은 영화적 형상을 창조하는데 참가하는 매개 부문예술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형상적 과제와 실현방도를 밝히고있다.

영화창작분야에서 전변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연출예술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로작은 연출가를 창작단의 사령관으로 규정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식의 연출체제에 대한 리론을 중심으로 혁명적 영화예술창조에서 나서는 연출 원리와 방법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었다.

연출예술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다는것은 연출분야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들과 교조주의적 잔재들을 완전히 없애고 주제적인 연출체제와 방법을 세운다는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혁명적 영화예술의 성격에 맞게 연출가의 사명을 명백히 밝히고 그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게 하는것이다.

연출가는 창작단의 사령관이다. 연출가는 예술창조사업과 제작조직사업, 사상교양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창작단의 모든 성원들을 영화창작에로 이끌어나가는 사령관이다.

연출가를 창작단의 사령관으로 규정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연출리론의 정당성과 독창성은 그것이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영화창조에 참가하는 모든 예술가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그들의 창작을 하나의 영화적 형상의 창조에로 조화시켜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영화연출방법에서 중요한것은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이다.

감정조직은 생활의 논리를 따라 인간의 감정세계를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면서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형상방법이다.

예술에서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은 인간성격의 본성으로부터 나서는 기본형상과제이다. 감정조직을 잘할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에 의하여 사건을 기본으로 극을 조직하던 낡은 극작술이 극복되고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극을 조직하는 새로운 극작술이 밝혀지게 되었다.

로작은 배우를 인간성격의 직접적이며 자립적인 창조자로, 화면과 관중 사이의 산 령계를 실현하고 작품의 세계에 이 끌어가는 안내자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는 영화의 얼굴이며 배우예술의 본질은 영화형상의 중심을 이루는 인간성격을 창조하는데 있다, 중요한것은 배우의 세계관이다. 배우예술에서는 연기자의 자연적 조건보다도 그의 사상의식이 더 중요하며 인물형상창조에서도 배우의 세계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반사실주의적 배우예술에서는 세계관이나는 결정적 역할을 거부하고있다.

로작은 주체의 사상론에 기초하여 반사실주의적인 배우예술의 부당성과 해독성을 날카롭게 분석 비판하고 배우의 창조활동에서 그의 세계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주체적인 연기체계와 방법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영화예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촬영예술이다.

로작은 촬영예술이 생동한 움직임속에서 인간과 생활을 직관적으로 화면에 옮겨야 할뿐 아니라 대상의 움직임과 촬영가의 움직임을 결합하여 하나의 영화적 움직임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론증하였다.

촬영가는 작품의 형상세계에 파고들어가 인물들의 생활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며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화면형상을 얻어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촬영가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 있다.

로작에서는 영화미술의 본질과 기능을 밝히고있으며 분장, 의상, 소도구, 장치와 같은 여러가지 형식을 통하여 인물들의 성격과 시대를 특징지으며

생활을 종합적으로 그려내는데 있다는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민족미술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우수한 민족적 형식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며 다른 나라의 미술형식가운데서 우리 인민의 비위에 맞는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데 대한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다.

로작은 영화미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는 분장, 의상과 소도구, 장치물들이 다 자기의 독자적인 령역과 형상적 기능을 가진 고상한 예술로 되게 하는 미학적 원칙과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로 이것은 주체적 영화예술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실현하는 넓은 길을 열어주는것으로 된다.

로작은 음악리론도 주체적 견지에서 해명하고 있다.

영화에서 음악은 생활을 정서적으로 돋구어줌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여준다.

로작에서 밝힌 음악리론가운데서 중요한것은 명곡에 관한 사상이다.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것이 명곡이다. 훌륭한 음악과 노래는 높은 사상이 뜨거운 열정과 융합되어 울리는것이 특징이다. 음악형상의 가치는 거기에 담겨진 사상에 있다. 고상한 사상이 뜨거운 열정으로 안받침되어있는데 명곡의 독특한 매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

로작은 음악의 사상정서적 내용을 표현하는 기본수단으로서 음악형상의 사상예술적 질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으로서의 선율을 특색있게 조직하는 문제, 노래를 잘 짓기 위해 좋은 가사를 선행시키며 장면의 내용과 생활정형에 맞게 음악을 설정할데 대한 문제, 곡의 사상감정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음악형상의 색채를 다양하고 특색있게 하기 위해 편곡을 잘할데 대한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로작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예술의 모든 부문,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예술을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를 마련하여준것으로 하여 백과전서적인 문예리론총서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 로작은 로동계급의 당이 창작가, 예술인들을 교양하고 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들을 밝히고있다.

로작은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문제, 작가, 예술인들을 높은 정치적 식견과 예술적 기량으로 무장시킬데 대한 문제, 당의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할데 대한 문제, 혁명적 문학예술창작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들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

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곧바른 길을 제시하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사상사업의 한 전선을 맡고 있는 초병들이며 사회주의민족문학예술건설의 직접적 담당자들이다.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그들을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과업이며 문학예술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창작실천과 혁명화 과정은 밀접한 련관관계에 있다. 이 관계를 통일적으로 밀고나가야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면서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다.

로작은 인식과 실천의 변증법적 관계를 심오히 밝히고 이 호상관계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 그대로 나타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작가, 예술인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자기가 아는것만큼 표현한다.

문학예술작품에 반영된 모든것은 예술가의 사상예술적 견해에 분석평가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그 창조자인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정치적 식견을 가져야 하며 높은 예술적 기량을 갖추고 창작을 하여야 한다.

당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하며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당의 새로운 요구이다.

작가, 예술인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은 말로써가 아니라 작품창작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정치적 식견과 예술적기량, 현실에 대한 깊은 체함과 세계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당의 정치적 신임에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로작은 혁명적 문학예술창작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속도전의 본질과 요구,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다.

속도전은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계속혁명사상을 구현하고있다.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문학예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제때에 옳은 해답을 주며 그 전투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체의 문학예술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빨리 발전할수 있게 하는 여기에 속도전리론의 위대한 생활력이 있다.

로작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롭게 밝히고 그 리론을 전면적으로 체

계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주체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또 하나의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가 마련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도 오직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는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고 창조하는 역사적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문학예술의 당적 령도에 관한 우리 당의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예술을 어떤 체제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령도하겠는가 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명을 준 완성된 리론으로서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을 아무런 편향없이 승리로 령도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학예술건설의 강령적 지침이다.

로작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 지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는것이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의 결정적 담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로작은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문학예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가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서 주체시대의 문학예술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창작지도체계, 창작지도방법, 창작총화원칙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명하였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유일적 지도를 보장하는것은 당의 문예정책을 제때에 철저하게 관철하여 문학예술을 당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되게 하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령도원칙이다. 이 령도원칙이 문학예술분야에 확고히 구현되어야 당중앙의 의도와 지시가 철저히 옹호관철될수 있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문화예술부, 문예총이 한마음이 되어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방조를 강화할데 대한 3위 1체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3위 1체의 방침, 이것은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문화예술부의 행정조직자적 기능과 문예총의 교양자적 기능을 높이며 집체적 령도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인대렬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창작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문학예술지도체계이다.

3위 1체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성격에 맞는 창작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을 옹계 세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창작에 대한 집체적 지도와 예술행정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로작은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적 문학예술창조사업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당의 지도밑에 문학예술 지도사업과 창작활동에서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자

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창작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을 밝혀주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후의 고전적 로작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건설하는 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 영화예술창작의 근본원리와 형상방도,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체계와 지도방법을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새롭게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 해답을 준 백과전서이다.

×

불후의 고전적 로작 **《영화예술론》**이 발표된 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예리론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15년이 흘렀다.

이 기간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건설에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 문학예술혁명이 빛나게 이룩되었으며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되었다.

우리의 영화예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종합적인 예술형태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하면서 주체적 영화예술이 지녀야 할 본성적 특색을 완전하게 갖추었고 영화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영화예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고매한 품모, 불멸의 업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워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식의 공산주의적 영화예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영화혁명에 뒤이어 가극혁명, 연극혁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었다. 문학,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모든 종류와 형태의 작품창작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연극 등 여러 예술형태로뿐아니라 소설로 옮기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이미 우리 문학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와 같은 장편소설들을 성과적으로 내놓을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아동장편소설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와 동화 **《놀고먹던 꿀꿀이》**, **《나비와 수탉》**을 비롯한 많은 아동문학작품들을 내놓을수 있게 되었다.

로작이 밝혀준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문학이 주체시대 인간들에게 귀중한 혁명의 량식을 주는 혁명소설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내놓은데서 찾아볼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의 장편소설들이 그러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실재하였던 역사적 사실과 원형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재현하면서 우리의 혁명소설들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이 어떻게 개척되고 전개되었으며 어떻게

승리의 로정을 걸어왔는가 하는것을 자기의 기본형상과제로 제기하였다.

우리의 혁명소설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인간들의 근본문제를 내세우고 그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줌으로써 혁명의 량식을 주는 귀중한 교과서로 되었다.

로작이 밝혀준 생활력은 다음으로 문학작품의 정치사상적 풍격과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 깊이가 있으며 특색이 있는 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된데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지금 전례없이 많은 장중편소설들이 창작되고있으며 그 사상예술성이 현저히 높아졌다.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전변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것과 같은 문제를 해명할것을 지향한 장편소설 **《새봄》**, **《생명수》**, **《평양시간》**을 비롯하여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 **《령마루》**, **《동트는 강산》**, **《탄부》**, **《청춘송가》**, **《갑오농민전쟁》**(1, 2, 3 부) 등 많은 작품들은 심오한 문제의 제기와 철학적 깊이로 하여 독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시문학분야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우리 시문학은 당과 수령, 조국과 사회에 대한 우리 인민의 념원과 지향, 신념 등 주도적 감정을 노래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자주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시문학으로 되었다.

서정시 **《나의 조국》**, **《어머니》**,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등 많은 서정시들과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녕이바다여!》**, 서사시 **《불타는 해》** 등 많은 작품들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명가사에서만 명곡이 나올수 있으며 가사는 시적이면서도 사상적 내용이 풍부해야 한다는 당의 방침대로 가사창작에서 성과가 이룩되었다.

최근시기처럼 우리의 가사문학이 우리 시대의 철학과 밝은 서정, 주정과 생활이 그처럼 조화롭게 결합된적은 없었다.

가사 **《동지애의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신념은 하나》**,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등 많은 작품들이 그러하다.

아동문학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오래동안 침체상태에 있던 동화, 우화문학이 동화, 우화를 아이들의 연령심리적 특성에 맞게 의인화를 기본으로 하여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확고한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많은 경우 옛말이나 전설의 줄거리에 의거하던 동화문학의 무대를 대담하게 현실에 옮기는것과 같은 혁신을 일으켰다.

아이들의 밝은 동심을 노래한 동요, 동시들이 많이 창작되었고 아동소설창작에서도 전진이 있었다.

당이 제시한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 작가부대가 튼튼

히 꾸려졌으며 우리 식의 창작체계와 창작지도체계가 확립되었다.

이 모든것은 문학분야에서 지난 15 년동안에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오른 우리 문학과 우리 식의 혁명적 영화예술, 《피바다》식 가극예술과 《성향당》식 혁명연극, 주체적인 미술과 혁명적 음악, 무용과 교예예술 등 그 모든 성과와 비약적인 발전은 《영화예술론》에서 밝혀진 독창적인 사상리론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대전성기를 자랑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예술은 생활의 진리와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며 자주적 인간의 보람찬 삶을 위한 투쟁으로 고무하는 교양적 힘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공산주의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고있다.

하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자주시대의 문학예술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옳은 해답을 주는 유일하게 정당한 백과전서적인 문예사상이라고 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 로작 《영화예술론》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들을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하는 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도 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내용들을 더 깊이 학습하며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빛내어나갈것이다.

은정의 길

김규

흰구름도 두둥실
웃음신고 떠가는듯
차고넘친 꽃향기에
술바람도 유정해라

푸른 숲 설레이는
룡악산 등산길을 오르며
마음은 걸음걸음
사랑의 층계를 오르는 길

노을질은 저녁
별많은 새벽
바위들을 에돌아 수림속을 헤치시며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아
유원지도 잘 꾸리자 하시며
사랑의 등산길 펼쳐주신
수령님 자옥따라 펼쳐진 길

아 숲은 숲마다
그날을 못잊어 설레이는가
끝없이 솟고 솟는 청바위섬은
감격의 뜨거운 마음 터쳐놓는듯

한굽이 돌아 알뜰한 휴식터에 이르니
푸른 솔숲 기묘한 청바위들

새소리 물소리 넘치고
온갖 산꽃 피고 지는데

바라보면
평양과 만경대 정답게 안겨오고
대동강 기슭 일만풍치에
걸음 멈추는 평양의 명산 룡악산

산은 산마다
넘치는 영광이여
부풀어 넘치는 가슴을 헤쳐
내 작은 심장도 터치노라

층층 딛고오른 계단은
사랑의 년륜인가
푸른 하늘을 떠인 아름다운 봉우리는
은정의 메부리인가

아, 몸과 마음 키우는 성장의 길
가슴속깊이 조국애를 키워주는 길

오르며 내리며 샘솟는 열정속에

보답할 땀세도 새롭게 다지는 길

단편소설

사랑의 길, 은정의 길이어!

인간세상

신래일

이름데없이 싱그럽고 구수한 난알향기는 해살이 쪽 퍼지자 더 진하게 코를 찔렀다. 이슬기를 털어버린 찰벼 수염과 이파리털들이 제법 깔깔한 맛으로 간단없이 불편을 스칠적에 복덕은 무뚝뚝한 남편의 대하기 드물은 애무를 받을 때처럼 행복의 미소를 입가에 그리며 걸싸게 낫질을 해대었다. 벼대들은 아직 이슬에 젖어 웅이박힌 손아귀에 축축하고 부들하게만 느껴지고 낫날은 산들산들 먹는다. 사르륵 사르륵, 그렇게 포 네번을 못넘겨서 아름은 벌고 팔쪽에는 차돌같이 도글도글한 벼알의 무게가 실린다. 단을 묶기 좋게 가쁘히 그루를 맞추어 베던 지면 목직이 늘어진 이삭과 이삭이 부딪치며 잘랑 쇠소리 비슷하게 난다. 울농사는 밀, 보리로부터 시작하여 강냉이와 감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나 땅이 꺼지게 되었던지 현물세관정위원들의 말마따나 개주둥이에 이밥꽃이 피게 됐다.

윙윙 잘 영근 벼알처럼 복덕이의 가슴속 환희도 목젓까지 가득찼다.

아, 이게 꿈이 아닌가?

복덕은 새삼스레 이런 생각을 했다.

해방전 세월에는 제땅 한뼘기 없이 머슴살이로 갖은 천대를 받다가 세상을 등진 산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였다.

불우한 그의 운명의 한때듬은 지주집 말초리에 의하여 빚어졌다.

엮어진 등지에 성한 알이 없다고 딸 일곱형제의 막둥이로 태어난 복덕은 젖떨어지기전에 어머니를 여의게 되자 가난한 이모네 집에 얹혀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놀기도 싫고 말할 기운도 없어 찌리작문결에 웅크리고 앉아 멀건 길장구죽 한그릇을 그리며 멍청히 건넌산에 해떨어지기만 학수고대하던 그 시절이 지나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그는 글 한자 얻어배우지 못하고 지주집에 아이보개로 들어갔다. 참새의 눈물만도 못한 푼전에 팔려 그는 20여년간 지주집의 종살이노릇을 하였다. 양주소도 가지고있으면서 한때는 도평의원운동까지 벌린적이 있는 그

지주놈은 족제비낫짝에 벼룩의 간도 내먹을 악착하기 그지없는 놈이었다.

복덕이가 한지붕아래서 부자가 함께 머슴을 살던 선일리와 짝을 무은 이듬해 겨울이었다. 복덕에게 입덧이 났다. 천덕꾸러기신세에 입쓰리는 왜 그리 세였던지 그는 열물까지 다 토해버린 빈 창자를 그러안고 밤늦게까지 고역을 치르노라 죽을 지경이었다. 지주놈집에서 소고기에 꿀과 기름을 발라 굽는 냄새는 복덕의 소증을 복돋구었다. 선일은 궁리하다못해 참새잡이를 해보려고 말초리를 뿔으려 마구간으로 나갔다. 그런데 신수가 궁하면 자빠쳐도 코가 깨진다더니 그때 마침 밖에 나왔던 지주놈의 눈에 걸려들었다.

《쌍놈의 새끼, 당대 내 집에 뒤두구 먹이구 입히구 했더니 배에 빌기가 서서 짐승만도 못한 그 주제에 인간이라구 제집질까지 하더니 이젠 뉘 내 말의 기름을 말리자구 초리까지 빼내? 이 백정놈의 새끼.》

그놈은 마당가에 가려둔 장작개비를 얻어 들고 행패질을 하다가 매가 들지 않으니 더 악에 받쳐 함께 술추념을 하던 왜놈순사를 불러내었다. 때마침 시아버지도 어마지무 달려나왔다. 술에 만취된 순사놈은 나오자바람으로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객기를 부려 칼을 내리쳤다.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우들우들 치를 떨며 서있던 시아버지는 단칼에 목이 나가떨어졌다. 너무도 엄청난고 기막힌 경황에 처하여 통나무처럼 우뚝 섰던 남편은 그놈의 칼자루를 빼앗아 배에다 열구멍을 내고말았다. 그리하여 그놈의 세상에서는 개잡난 호적부어나마 이름을 걸고 살수 없게 된 그의 가족은 출고추운 한겨울에 떼거지의 비렁뱅이노릇을 하며 여기저기 숨어다니다가 세포등판의 깊은 골안에서도 수십리 떨어진 산으로 몸을 피하였다. 이렇게 산사람이 되어버린 남편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하여 산짐승잡이에 나섰다. 그것은 눈구멍이를 파고 짐승이 다니는 길목을 지키고있다가 날창으로 짐승의 먹줄 내찌르는 결사의 싸움이였다. 그것은 제하나도 아닌 여러 식구들

의 코아래구멍을 막기에는 단가마에 물뿌리기와 같은 놀음이었다. .

고된 신역을 치르어 따라지목숨을 이어가던 선일은 그만 열병에 걸려 꺼꾸러졌다. 이제는 온 식솔이 눈이 멀쩡해서 굶어죽게 되었다. 하여 쟁기라고 치면 식칼밖에 쥐여본적이 없는 복덕은 남편이 쓰던 낱창을 잡고 사냥개도 없이 음침한 산판을 헤매게 되었다. 그 과정에 무슨 일인들 없었던가. ...

복덕은 잠간 허리를 펴고 얼굴의 땀을 훔쳤다.

충충 다락을 이룬 벌에는 바람 한점 없다. 귀가 멍멍할만치 고요한 정적속에 메뚜기들이 툭툭 뛰는 소리만 들린다. 안개는 저 멀리 산중말기에서 가늘게 피어오르고있다. 신비로운 황금의 대지에 언뜻 언뜻 벵가울하는 농군들의 모습이 보이고 도간도간 끊기는 널리리, 흥타령도 있다.

복덕은 논배미곶쪽에서 남편의 뒤통수에 탈아지른 수건꼬리가 자주 너털거림을 가려보았다.

(에그, 오다가다 잡은 손목이 천생연분이라더니 참 저러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아침, 옥동리에서 머슴을 살던 리씨녀성을 찾아가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보은 이야기를 자상히 듣고온 남편이었다. 복덕은 황새목이 돼가지고 동구박을 점도록 지켜보고섰다가 달려나가서 남편에게 갔던 사연을 물었다.

《뭘 또 참견이야. 우리같은 머슴군을 장군님께서 만나주셨대.》

보통 똑박새가 아닌 남편은 반으러 드는 황소처럼 그 한마디뿐 의연히 생각에 옴하여 덤덤히 걷기만 하였다.

《어마나, **김일성** 장군님께서요?!... 장군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대요?》

복덕은 남편곁에 바짝 따라서서 애라게 물었다.

선일은 이윽해서야 성미가 좀 누그러졌다.

《응, 그 아주머니는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서 제 손으로 지은 밀과 감자를 자루에 꿰쳐이고 우리 장군님을 찾아갔었더구만.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제 이름 석자도 쓸줄 모르는 눈쁜 장님인데다 옷주제가 말이 아닌 어제날의 머슴군을 친절히 해주시더래... <내게 낱알을 가져온것도 좋지만 마을에다 학교를 짓는데 도왔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소.> 그러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라의 주인구실을 제대로 할수 있다 하셨대.》

남편은 또다시 깊은 생각에 빠져 저녁부터 밥맛을 잃고 밤새껏 뒤치락대며 킁킁거리더니 오늘아침엔 아무말없이 낮중태를 둘러메고 찰벼 심은 논으로 격석격석 내닫는것이였다. 복덕은 남편의 그 심정이 스스로 헤아려져 산후 몸건사에 잔정을 쏟아붓는 시어머니 모르게 살그머니 남편을 따라나섰던 것이다. 그게 남편의 부아통을 건드리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복덕은 시어머니의 잔정이나 남편의 무뚝뚝한 성미속에 숨어있는 웅심깊은 사랑이

눈물겹도록 고마와 더 남편의 말을 거역하게 된 것이였다. 사실 땅을 주신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티끌만치라도 보답하려는 불같은 마음으로 치면 복덕의 심정이 남편과 한바리에 실어도 기울지 않을 것이였다. 그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분여받은 땅에서 첫해 농사를 지은 작년 가을 얼마간의 햇곡식을 찢어가지고 장군님을 뵈우러 떠나려는 남편의 큰결음을 재수없이 막아나섰던것이다.

우리같이 천한 백성을 장군님과 같은 하늘이 낸 위인께 대면이나 시켜줄까? 장군님을 만나뵈고싶은것은 조선사람의 한결같은 심정인데 그이께서 어떻게 엄청난 그 시간을 다 내시랴.

막연한 그 생각에 정성품도 눈에 들지 않고 차림새까지 쑥스러워보이며 남편의 손목을 붙잡았던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막심한 후회로 남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복덕은 호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허리를 굽혔다. 어느덧 그의 땀방아와 적삼단들은 땅에 젖어 등그렇게 얼룩이 졌다. 속깊은 심경에 빠져 또 한참 벼를 가을하던 복덕은 곁에 와서 꼬리를 치며 킁킁대는 사냥개때문에 일손을 멈췄다.

《네가 웬일이냐?》

복덕은 길다란 혀로 아무데고 쓸쓸 훑으며 돌아가는 개의 목뒤를 쓸어주며 그 어떤 룩감에 옆을 돌아다보았다. 저만큼 떨어진 논둑에 아기를 안아 업은 시어머니가 걸어왔다.

《어마나!》

복덕은 치마자락에 젖은 손을 대충 문대며 황황히 두렁길로 마중나갔다.

《어머니! 그만 시간가는줄 모르고... 애가 울드나요?》

복덕은 짜리광주리에 담긴 목직한 임을 받아내리우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엿보았다.

《우는지 웃는지 내야 그 통속을 알겠니. 네 눈으루 보렴.》 시어머니는 띠개곤을 풀어 갓난애를 내주며 한결 누그러진 소리로 물었다. 《물이 차지 않던?》

《발 빠질 물이 있나요뭐.》

《쯔쯔, 그러다 오금에 바람길라.》

《어머닌 그저 괜한 걱정을...》

복덕은 그린듯한 미소를 그윽한 노동자에 빗내이며 아기를 받아끼고 적삼자락을 들추었다.

《그녀석 눈이 시그럽나? 쟁그리기는, 이젠 그만 자구 젓 좀 먹지. 에그 갓난애기가 돌덩이처럼 무거운게 조심스럽긴 또... 아무튼 네가 수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소리쳐 불러낸다, 짜리광주리에 잔뜩 담아이고 온 음식을 퍼놓는다, 신수가 번해서 부산을 떨다가 또 참견을 했다.

《애에미야, 내 보긴 봤다만 걸렐 먼저 갈아돌걸, 살이 끼지 않게.》

《이차 보니 뽏뽏 말랐어요.》

《그-래!》

복덕은 뻔한것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장손가락을 사타구니속에 디밀어보았다. 틀림이 없었다. 자식 길러본 어머니들만이 느낄수 있는, 제새끼의 호물때기입안으로 심신이 녹아들어가는 팔작소리를 아득히 들으며 복덕은 아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해방덕에 처음 본 아들이었다.

《에, 날거리두 꽤나 좋다. 어머니, 물 떠왔수?》

이윽고 남편 선일이 땀에 뜬 얼굴을 내밀었다.

《응, 떠왔다. 발에서 단 무우도 몇개 뽑아왔느니라. 고구마도 삶아오구. 금년엔 난알을 처치할 란이 생겼으니 네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한독 담가주마.》

복덕은 얼른 깨끗한 사발을 골라들었다.

《와두고 젓이나 먹여라.》

시어머니는 말은 그렇게 하였으나 실상 머느리를 말리지 않고 되병을 기울여 사발에 물을 부어주었다.

복덕은 살근히 땅에서 엉치를 약간 떼며 남편에게 물을 올렸다.

선일은 기분이 험험해져 단숨에 그릇을 내었다.

애틀한 정으로 아들내외를 여겨보던 시어머니는 지난 세월의 체물을 뱉어버리듯 신음섞인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애 며늘ैया, 우리 장손이 백날상을 차려줄 때 니들 잔치상도 함께 차려먹자.》

《호호, 그건 무슨 식이예요, 래후년이면 시집온지 10년이 되는데.》

《식이 아니라면 뭐라니, 식두 사람이 세운건데, 네 늘그막에 락을 보게 되니 숙절없이 보낸 한생이 한스러워 그런다.》

《나라에선 쌀 쓸일이 가득하겠는데...》

그때에야 선일은 불이 미여지게 떠넣었던 밥술을 넘기며 한마디 했다.

《아무 생각 마우다. 당신도 나 모르게 쌀 한되박 이래두 퍼내선 안돼.》

《나야 뭐 어쩐다구... 아침부터 구박일가.》

복덕은 짙은 눈을 흘겼다.

《응, 니들이 당원증을 뗐다구 이 어밀 갈보는구나. 옷새골 철성이는 당원이 아니돼서 작년가을에야 잔칠 했니? 그 집에선 현물세납부나 끝내구선 또 팔을 살리겠더라. 내 이자 선보려 왔던 총각을 보고나오는길이야.》

《그래서 굶단이가 땀시를 퍼우됐구나.》

복덕은 얼른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주었다.

《몸매가 끝맛한 총각이 철원 어딘가 산다는데... 참 늙으면 로망이라더니 내 정신 좀 보지. 거기 큰 범이 나타나서 소동이래!》

《에?!》

복덕은 손가락을 펴령 놓고 그윽한 눈동자가 새하얘져서 입술을 옥물었다.

《그게 정소릴가?》

남편은 벌써 질렁질렁 입가심한 물을 풀발에다 뱉어버리고 나앉는다. 복덕은 호득호득 뛰는 마음을 달래이며 다음말을 기다렸다.

《그 총각 큰집에서 호환을 입었다는데 정소리라니? 야밤삼경에 깨양 소리가 나더니 토방에서 차던 개가 이불속으로 기여들더라는거야. 온 집안식구가 화딱 놀라 깨났는데 휘익 바람소리가 나길래 령감이 밖을 내다보니 시퍼런 불줄기가 왔다갔다하더래. 아이구머니, 나 좀 살려주소, 머리통을 노전 바닥에 틀어박고 치를 화들화들 떨면서 그냥 있었대. 아이들은 왕왕 테우고... 정신을 차리구 불을 켜대었을 때는 말갈이 큰 개새끼는 홍씨를 한구들 싸놓고 죽었구 한살 녀름은 송아지가 간데온데 없더라는거야.》

《맞구나! 범이예요!》

복덕은 삶은 고구마를 껍질도 벗기지 않고 먹이 차게 단 세입에 먹여대고는 벌벌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여보세요, 내 먼저 들어가서 길떠날 차빌 해놓을게 혼자서 마저 베고 인침 따라 들어오세요.》

《저두 가자구?》

복덕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짝 엿보며 고개를 까딱까딱 했다.

《정신 나가지 않았어? 바람인지- 뭘지 낀다는 건 어떻게거구? ...아이는 어떻게 할래?》

정말 남편은 무뚝뚝하기 이룰데 없다.

《아이참 속상해. 저이까지 ...》

복덕은 단번에 울상이 되었다.

《아서라, 내 또 실없는 소리 해서 니들 엉치를 들썩하게 만들었구나. 앉거라. 게 앉아서 나도 한술 먹자.》

《어머니, 그럼 천천히 들고... 들어오시면 말부터 좀 잘 먹여달라요.》

복덕은 더 강잉해져서 박우물채 들고마실 차비였다.

《애에미야, 너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앉으라는데.》

《야참, 한시가 새로운데 왜 그래요, 어머니?》

복덕은 작달막한 체구를 무릎마디에서 꺾어앉으며 그중 작은 고구마 한알을 집어 통채로 불안에 밀어넣었다.

《애애빈 달달한게 싫냐?》

시어머니는 고무줄같이 늘어붙으며 선일에게 한알 골라주었다.

《난 맘껏 먹었수다.》

선일은 입맛이 싹 젖혀서 술뚜껑같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담배 한대를 말아물고 먼산을 건너다보았다.

《니들 맘을 곱게 가져라. 너무 욕심부려선 못써. 옛말에 재미나다 범난다더니 그러단 집안에 화액이 끼치겠다.》

《애고 어머니 뭘 무슨 미신같은 소리 하면서...》

《하,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더니 덤비긴. 내 그런 일을 두눈으로 직접 봐서 그런다.》

어릴적 어머니가 종살이하던 지주집 녀편네가 갱년기전에 과부가 되었는데 오록을 지내 아끼다보니 뼈짬에 기름이 말랐단다. 그래서 범뼈를 내놓고 좋다는 약은 별약을 다 써봤는데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는 땅이면 땅, 돈이면 돈을 아깝다 하지 않을판인데 욕심많고 약바른 마름놈이 이때라고 좋은 구멍을 뚫어보고싶어서 침을 게즐게즐 흘리면서 범뼈다귀를 구하러 길을 떠났단다. 마침 호랑이의 자취를 찾아내어 다닐만한 길목들에 덧이며 쪽을 놓고 왔다는 포수를 만나게 된 마름은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얼근히 한대포 하고 포수몰래 저혼자 산판에 올라갔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면바로 호랑이가 걸려든날 올라갔다는것이다.

이게 무슨 떡이람!

욕심쟁이 마름은 입귀가 맞붙어서 날창을 추켜 들고 달려올라갔다.

아빨싸! 웬만큼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코에 잡힌 범이 아니었다.

바위우에 올라선 호랑이는 위압적으로 허리와 꼬리를 한일자로 쭉 펴고 불인지 물인지 모를 눈총을 냅다 뿜으며 아가리를 짹 벌리고 당장 덮칠듯한 자세였다. 싹허연 수염아래 독침같은 송곳이와 시뻘건 혀바닥이 들여다보이었다.

마름은 순간에 넋을 잃고 통나무 넘어지듯 풀숲에 쿵 나자빠졌다. 이속해서 뒤따라 올라온 사냥군이 게거품을 물고 늘어진 그를 업어다가 명줄은 붙여주었지만 혼맹이가 빠진 마름은 미친놈이 되고말았다. 그나마 천행이었던것은 크지도 않은 옥노에 걸려 죽은 범을 헛봐서 그렇지 하마트면 조상치를 뼈다귀도 못추릴번했다는것이다.

《그믐밤같이 캄캄한 그 세상에서는...》 시어머니는 굳어진 버릇처럼 신음섞인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귀를 이었다.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은 송곳하나 꽃울만한 제당도 없어서 대대로 머슴을 살구 그러다못해 나중엔 세상을 등진 산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오늘에야 훨씬 더 그리운게 있어서 제살 베먹기보다 더 힘든 그런 노릇을 또 하겠니. 아예 그런 욕심일랑 내지 말고 농사나 잘 짓자꾸나.》

시어머니의 만류는 간절하기 이룰데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붙는 집에 키질하기나 마찬가지였다. 비둘기 생각은 콩밭에만 가있다고 복덕이와 선일이의 마음은 숲에만 가있었다.

드디어 그날 정오가 좀 지나서 복덕은 해산한지 얼마 안되는 갓난애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함께 범사냥을 떠났다. 잠시후 그들이 탄 말은 뽕양게 황토먼지를 일으키며 동철원쪽으로 향한 길우에 네굽을 놓았다.

그들이 호랑이의 자취를 붙든것은 옛새후였다.

포수 부부는 스산한 가을비도 달게 맞으며 길을 다그쳤다. 소나무판에 참나무와 떡갈, 신갈나무 등이 비슷한 랑 섞이고 그 사이에 화살, 노린재, 개암나무, 분지와 단풍이 꼭 들어찬 험준한 산밭을 하루에 근 200 리씩 툄느라 그들은 세수는커녕 눈곱도 뜰새가 없었다. 그러나 투전놀음보다 더하게 우연성을 떠는것이 사냥이고 심본 뜻대로 안되는것이 사냥이다.

또다시 고생스러운 며칠을 보냈으나 호랑이는 커녕 그 흔적마저도 잊어버렸다. 남의 살을 입에 넣기는 참으로 제 살코기를 베먹기보다 더 힘들다. 강물에서 꼬리치는 고기새끼를 낚는 일도 그럴진데 하물며 못짐승들이 설설 기는 호랑임에랴. 그래서 어뜩새벽에 호랑이를 잡겠다 맘먹고 떠난 포수가 아침나절엔 메돼지나 노루라도 한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가슴 태우고 날이 어슬어슬해지면 가재라도 있었으면 해서 시내가에서 해매게 되는것이 아닐까.

복덕은 갑자기 시어머니와 호환을 입은 그 집 주인이 하던 말을 상기했다.

공포에 질리고 아수함에 기가 꺾이운 주인은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가 앓던 사람같지 않게 멀리까지 따라나와 남편의 말고뼈를 붙잡고 애원하는것이였다.

《여보게 젊은이들, 해방이 된 오늘에도 할 일이 없어 그러나? 이러지들 말라구. 치마 두른 녀인이 산에 싸다니면 사나운 산짐승들이 더 끓인다 했어. ...》

(마수거리가 재수없이 오소리란놈이 띄우더니 끝내 허탕을 치는게 아닐가?)

복덕이의 가슴은 조용히 숨쉬나 마음에는 묘한 불안이 새처럼 날아든다. 불현듯 5,000 평이나 되는 농사일이 격정되고 덩달아서 배고파 우는 아들의 정상이 가슴을 허빈다.

《애고머니, 좀 쉬자요.》

복덕은 총대를 그러안은채로 복신복신한 락엽우에 폴짝 주저앉았다.

후유- 긴숨을 내그으며 저만큼 떨어져 퍼터버리고 앓는 남편도 더위들린 소처럼 헐떡헐떡하는게 어지간히 맥이 빠진 기색이다. 앞담배를 맡아 불이고 땀을 들인 그는 부스럭부스럭 보자기를 끄르더니 깨소금을 바른 췌기밥 덩이를 내민다.

복덕은 아무 생각도 없어 입을 봉한채 고개만 살래살래 저었다.

《바람 켜다구 그만큼 따라서지 말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웅고집일가.》

선일은 니꼬편이 배인 쓰거운 침을 뱉 털어버리고 꼬리를 깔고앉아 숨을 헐떡이는 사냥개에게 밥을 노나먹였다.

복덕은 내심 미안한감이 없지 않았다. 넓고도 넓은 산판에서 날고뛰는 날짐승들을 낚는 사냥이란 그만한 육체적 힘이 없어가지고서는 엄두도 못낼 일인지라 그는 남편의 어깨에 덧짐을 얹은 일도 바

이 없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아침에 너자를 보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냥군일반의 그릇된 관념에서 자기가 따라나선것을 시달지 않게 여기는게 아닐까 하는 옥생각을 하니 반발심이 솟구쳐 야멸찬 심정이 됐다.

복덕은 살가죽이 터지게 팽팽히 부풀은 량쪽젖을 풀숲에 짹짹 짜버리고 흠어진 머리를 사냥모자 안에 밀어넣으며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찰나, 등뒤 골바닥에서 깜짝 놀랜 짐승이 줄행랑을 놓는 와작와작소리가 났다. 번개불이 번쩍할 사이에 복덕은 휙 돌아서 로송밀에 붙어서는 것과 동시에 총구를 그쪽에 건주었다. 노루였다.

야참! 할수 없지.

방아쇠가 손가락마디에 걸려 끌려오는 순간, 복덕은 노루의 꼬리를 물고 다쫓아오는 맹수를 포착했다. 불과 50 메터가 될까말까한 사이였다. 어떻게나 급했던지 사선으로 가까이 달려오던 노루가 방향을 꺾어 총구앞으로 뛰어든다. 보통 귀가 밝지 않은 호랑이는 먹이사냥에 눈이 어두워 그때에야 사람냄새를 맡은것 같았다.

정황은 서로 피차일반으로 불의적인것이였다.

인기척에 딱 질색인 호랑이는 피할길이 없게 되자 위압적으로 펄펄 날아들어왔다. 부부는 미처 약속할 사이도 없이 저마끔 어렵거냐으로 철알을 날려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땅!》

첫발은 남편이 먼저 쏘았는데 선불을 맞은 맹호는 이루 다 형용할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길길이 날뛰며 달려들었다. 일이 이쯤 되고보면 웬만큼 담이 크지 않고서는 조준은커녕 공포를 놓을 정신적 여유도 없다. 그것은 사냥군들이나 이 말의 참뜻을 알아들을것이다. 사실 호랑이가 들어간 참나무함정에 못을 한개 더 박자고 해도 사생결단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서는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담력은 놀라운 정도로 비상히 발휘되기도 한다. 복덕의 경우가 그랬다. 그는 이 순간 당황과 공포감이 아니라 뚜렷한 공상에 빠져 야릇한 희열을 느끼였다.

《땅!》

복덕은 고르로운 숨결에 태워 침착히 방아쇠를 당겼다. 술나무그늘에 무심히 자란 개암과 도토리나무숲을 번번 날아오던 맹호가 넋을 앗아빠는 따웅소리와 함께 자신이 기대섰던 로송을 총알같이 덮쳐안았다가 맥없이 쿵 나딩굴적에야 복덕은 얼굴을 짜쥐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다쳤나?》

남편이 뛰어와 복덕을 안아일으켰다.

복덕은 살머시 눈을 뜨고 손가락 째새로 발치쪽을 굽어보았다. 기운을 놓고 늘어지여 마지막 숨을 토포고있는 시누런 범의 형체가 흐린 망막에 비쳐들었다.

잡았구나!

그는 다시 눈을 꼭감고 경련이 이는 얼굴을 두손으로 싸쥐었다. 매캐한 화약내와 어디가 숨었다가 이제와서 양양대는 사냥개의 울부짖음...

《여, 내가 쏜건 귀밑에 맞구 당신 쏜건 신통히 엄통에 들어갔구만! 이 앞발통을 좀 보라구. 두손으로 감아쥐어서 아귀가 벌어질 정도야!》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수렵품은 이만저만한것이 아니였다. 검은줄에 누런 반점이 드문드문 박힌 호랑이는 사내들 팔로 잔등이 두발, 몸뚱이가 한아름이나 될것이였다.

복덕은 다리맥이 쪽 빠져서 앓은걸음으로 한치 한치 호랑이결으로 다가갔다. 부드럽고 따스한 촉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는 쓰러지듯 범의 대가리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우리 사람들은 예로부터 네 가족을 만년장수를 축수하는 귀물로서 은인의 자리에 깔아드려...》

범의 털을 어루쓸며 이렇게 중얼거린 복덕은 이윽고 흐트러진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빗어넘기며 얼굴을 들었다.

《여보! 접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도 이 범가족을 정히 손질하여 장군님을 찾아가 올리자요!》

잔등이 부은듯한, 이슬에 그렇하니 젖은 그 녀자의 눈망울은 별처럼 아득하면서도 총총하였다.

《복덕이!》

선일은 치밀어오르는 사랑의 감정에 무작정 안해의 목을 쓸어안았다.

《우린 어쩌면 생각도 한가지일가. 난 정말... 복덕이... 고와 죽겠어!》

후더운 숨결과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며 부부는 영광의 그 시각을 그려보았다.



새생활이 약동하는 조국의 실풍경을 돌구어주려듯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리던 그해 세밑의 어느날 아침, 그들 부부는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자리에 범가족을 깔아드리고저 그이께서 계시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청사로 찾아갔다. 그무렵, 정작 길을 떠나자고 생각하니 범가족 하나만으로는 성의가 부족한것 같아 복덕은 남편과 함께 황소만한 메돼지를 한마리 더 잡았었다.

그들이 접수실에 소청을 이야기하고 방에 안내되어 자리에 앉은지 얼마 안되었을 때였다. 차림새가 단정한 한 일군이 들어오더니 상냥히 그들을 대해주며 말을 갑자르다가 사정을 구하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 지금 책임일군들과 중요한 국사를 토의하고계십니다. 화폐개혁문제도 그렇구 금년에 처음으로 벌려본 인민경제계획을 넘쳐끝내기 위한 대책도 그렇고 분초가 새로우신 장군님을 인차 만나뵙기는 좀 힘들것 같습니다. 동무들의 성의는 그대로 전해드릴수 있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일군은 중요한 국사로 분초가 새로우신 장군님이라는 말을 몇번이고 곱씹어 덧붙였다.

(끝내 장군님은 못뉘고마는구나.)

복덕은 온몸의 피가 다 빠진듯 나른해지고 식은땀이 바작바작 났다.

어찌보면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제 사는 산골밖에 모르던 그들이 범가죽을 정히 손질하여가지고 군당위원장을 찾아가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장군님께서는 가까이까지만이라도 제손으로 직접 가지고가서 올리고싶었던것이 그 소원을 이루고보니 더 간절히 장군님을 뵙고싶은것이였다.

《그럼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무렴 나라의 중대사들을 다 맡으신 위대한신 장군님께서 좀 바쁘시겠습니까. 무지한 저희들은 공량이 넓지 못하여 제하나의 소망만 생각다나니... 우리 장군님결에서 일보시는이를 이렇게 만나 소청을 드린것만 해도 다른 원이 없습니다.》

복덕은 정작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자리에 깔아드리자고 가슴에 끼안고 온 범가죽을 선뜻 내놓자니 눈앞이 부예저 고개를 꺾고 어깨를 들먹이였다. 인정있는 그 일군은 딱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 앉아있더니 목단추를 매만지며 일어서서 총총히 안으로 들어갔다.

복덕은 죄스럽고 안타까움에 바질바질 끓는 가슴을 범가죽으로 꼭 부여안고 널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고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동무들!》

귀에 익은 그 목소리에 언뜻 눈길을 드니 차림새가 단정한 그 일군이였다.

그 일군은 가슴속 흥분을 누착해보려고 한참이나 헛책대더니 떠듬떠듬 더듬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동무들! ...들어갑시다! 제가... 장군님의 뜻을 다 몰라서 그랬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우리 인민정권의 시책을 지지해서 먼길을 찾아온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을 안만나고 누굴 만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장군님께서요?!》

참으로 그것은 꿈에 또 꿈같은 소식이였다.

그 일군은 계단을 오르고 복도로 가면서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말라는것과 몇가지 주의할 점을 간단간단 귀뜸해주는것이였다.

복덕은 그가 뭐라는지, 발이 어떻게 놓이는지를 모르고 경황없이 따라갔다.

《아, 동무들이 평강에서 온 포수부부구만.》

복도를 울리는 석식하면서 우렁우렁한 목소리에 번쩍 고개를 드니 여직껏 초상화로만 뵈운, 그토록 간절히 만나뵙고싶던 전설적 영웅 **김일성** 장군님께서 문앞에 서계신다.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릉름한 체구, 강철의 의지와 예지로 류달리 빛나는 안광, 밝게 웃으시는 입가의 보조개, 태양처럼 환한 영결의 모습!

《장군님!-》

복덕과 선일은 합창하듯 탄성을 올리고 몇걸음 달려나가다 못박힌듯 굳어졌다.

《먼길에 수고했소, 수고했습니다.》

장군님의 큰 손이 따스한 온기로 언손을 녹여줄 때 그들 부부는 산처럼 가려두었던 인사의 말씀도 올리지 못하고 헉헉 흐느꼈다.

《화물자동차를 타고 오느라 땀땀 얼었구만. 어서 들어갑시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 옆자리에 앉혀주시고 먼길을 온 자식들처럼 사랑스럽게 여겨보시였다. 그때에야 진정을 되찾은 복덕은 옥양목보자기를 헤치고 백로지로 세계를 썬 범가죽을 두손모아 정중히 그이께 올리였다.

《장군님! 위대한신 장군님께서 조국광복을 위해 백두산에서 싸우실 때 저희들은 쌀 한말 보태드리지 못했는데... 나라를 되찾아주시고 자나깨나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봤으면 하던 평생소원을 풀어주시었으니 ...》

《장군님! 옛날부터 배고플 때 밥 한그릇 준 사랑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둘이는 다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고 그이의 슬하에 꿇어앉아 큰절을 올리였다.

《하, 이거 동년배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뭘 야단스레 이럽니까. 땅은 내가 준게 아니라 본래 주인들인 동무들이 도로 찾은것입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상우에 호랑이가죽을 넘겨놓고 허리를 굽혀 포수부부를 부축해 일켜세우시였다.

《이러지 말고 우리 함께 동무들이 사냥한 범가죽이나 좀 뵙시다.》

그이께서는 말머리를 돌려 복덕이네들 앞상가까이로 이끄시였다. 일군이 상우에 가죽을 쭈 퍼놓자 장군님께서서는 포수부부의 충정을 헤아리시듯 잘된 범의 가죽을 쓸고 또 쓸어만지시며 《그래 이것은 누가 잡은것입니까?》라고 물으시였다.

《저... 이 사람이 단방에 ...》

선일은 어줍게 마른손을 썩썩 비비며 말씀드렸다.

《...함께 총을 쏘서 잡았습니다.》

복덕은 부끄럼을 댔다.

《우리 나라 력사에는 너자포수가 처음인데...》

장군님께서서는 포수부부를 대견히 바라보시였다. 검은 무명양복차림의 골격이 실한 청년과는 달리 검은 치마저고리에 발이 굵은 남빛세타를 입은 녀자는 뼈마디들이 비례에 맞게 자름자름하면서 복상스럽게만 보일뿐 범을 낚을만한 기질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어보였다.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부드럽고 순박하면서도 강의한 복덕의 성격을 헤아려보시며 그들이 사냥할 때의 옷차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었다. 사냥차림 그대로 사냥모자도 쓰고 승마복바지에 가죽잠바를 입고 왔더라면 더 좋았을걸 그랬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포수부부의 슬기롭고 미더운 모습에서 나라의 주인된 인민들의 림름하고 양기에 넘친 기상을 보시며 기쁨에 넘치시여 가정형편이며 생활형편을 물으시었다. 복덕이와 선일은 장군님의 친화력에 매혹되어 서로 앞을 다투며 모든걸 말씀드렸다.

《그런데 복덕동무는 총쏘는 기술은 언제부터 배웠소?》

문득 그이께서 물으시는 말씀이었다.

《...》

복덕은 잠간 입술을 실룩이며 망연히 앉아있었다.

그 잠간사이에 그는 길고도 짧은 자기의 한생을 돌아다보았다.

...음침한 그늘과 잠에 겨운것 같은 정적속에 그의 가슴은 먹이에 대한 기대에 시달려 재가 된다. 시내물에 몸을 던져 허기진 배를 채우고 단 목을 추진다. 어느새 하늘은 저녁노을에 불탄다. 멀리에서는 안개가 서러들고 이슬과 분홍빛광채는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녀인을 울린다. 스러져가는 락조의 불바다에서 빛을 띠고 명멸하는 별들, 반디불, 린광, 처량한 접동새의 울음소리, 승냥이의 울부짖음... 사람이라고는 하루종일 가도 한번도 볼수 없는 길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던 일, 뜨거운 입김에 아련꽃이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앗! 풍기적대며 가는 시꺼먼 꿈의 영태이가 보인다. 복덕은 다시 의식을 잃고 까무라쳤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도 복덕은 빈손으로 산을 내릴수 없어 뉘엿뉘엿 저가는 해를 원망하며 초조히 숲속을 헤매었다. 벌써 근 보름나마 허탕을 쳐서 온 식솔이 맨손가락을 빨고 나갔은 형편이었다.

(토끼나 한마리 뛰어나왔으면...)

그에게는 그밖에 다른 소원이 없었다.

자그마한 바스락소리에 도 복덕이의 신경은 고슴도치가시처럼 곤두섰다.

산사람들이 다 그러하듯 특이하게 발달된 청각으로 복덕은 아득히 먼, 가을은 날새의 푸드덕이는 것소리를 가려들었다. 복덕은 재빨리, 아주 은밀하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어느 맹수가 물어메쳐 놓은 사슴을 열댓근도 넘을 반대수리란놈이 타고 앉아서 흠뻑흠뻑 고기를 뜯어먹고있었다. 저런! 복덕은 수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치달아나갔다. 그런데 반대수리는 어찌나 욕심스럽게 사슴고기를 뜯어먹었던지 푸드덕푸드덕하면서도 날아오르지를 못하고 비칠거리는데있었다.

(이놈 봐라, 사람도 구경 못하는 고기를 혼자 다 쳐먹구...)

복덕은 악을 먹고 반대수리를 콧 덮쳐안았다. 반대수리는 야수의 본성대로 푸들쩍거리며 부리로 쫓고 발길로 허비고 했다. 복덕은 한손을 더듬어 허리에 찬 칼을 찾았다. 그 틈에 한발울 뺨은 반대수리는 그 날카로운 발톱들로 복덕이의 종다리를 콧 움켜쥐었다. 단박에 찢리운 자리들에서는 검붉은 피가 쭈르륵쭈르륵 쏟아져나왔다. 끼니도 에우지 못한 복덕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거나.)

그는 가물거리는 의식속에 무슨 힘으로 칼을 뽑아 반대수리의 먹을 내절렀는지 몰랐다.

또 언제인가는 이런 봉변도 겪었다.

아직 사냥하는 법을 다 터득하지 못한 복덕은 선불을 맞고 뺨소니를 치는 메돼지를 놓칠가봐 근 20 리 생눈길을 조금씩 따라갔다. 그런데 메돼지란 놈이 그렇게 능청스러운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그놈은 점점 맥이 진해져가자 복덕이가 따라오는 길목을 가만히 지키고있다가 총알같이 직선으로 맞받아나오며 이발로 들이받는것이였다. 한번, 또 한번... 그놈은 제김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지나쳤다가는 돌파서서 또 받으려들었다. 참으로 비오고 눈오고 바람부는 그 하많은 나날들에 녀성의 몸으로 불을 켜달고 달려드는 맹수와 죽느냐 사느냐 먹을 맞대고 덩군적은 얼마나 되던가.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소금, 쌀, 천, 성냥, 잠자리 같은 초보적인 생존수단마저 보장받지 못한 짐승 아닌 짐승의 생활이였다. 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그리운것은 인간이였고 한편 그 어떤 맹수보다 무서운것도 사람이 아니였던가. ...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그 환영에 복덕은 부르르 몸서리를 치며 허억 복받쳐오르는 오열을 터뜨렸다.

《장군님! 산에서... 살다나니 ... 불질하는 법도 ... 자연히 배우게 되였습니다.》

《산에서 살다니?! ...음- 산에서 살다나니 자연히 배우게 되였던말이지!》

장군님께서서는 어두운 표정이 되시여 눈길을 창문밖 먼곳에 주시였다.

재빛하늘에서는 깊은 명상을 불러일으키며 함박눈이 펄펄 소리없이 쏟아져내린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천천히 창가에 다가서시였다.

긴긴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소리치며 들려오는 추억의 바다, ...고향떠나 20년세월 혁명의 길에서 량친과 동생, 삼촌을 다 잃고 친동기처럼 가까운 혁명전우들을 이역의 이름없는 산중에 피눈물을 삼키며 묻고온 장군님이시였다. 왜놈의 칼에 찢기우는 조국과 민족의 수난을 한몸에 안으시고 추위와 굶주림, 인간이 당할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생을 다 겪으시며 사신을 넘고넘어 조국광복의 성업을 이룩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복잡스럽게 생긴 그 얼굴의 그옥한 눈가에 서리는 음영에서, 자주 더듬는 갈린 목소리에서 그 세상에서는 달리 될수 없었던 복덕의 고난에 찬 한생을 속속들이 헤아리시였다.

《고생했겠소. 정말 고생이 많았겠소.》

장군님의 말씀은 걱정예 갈리였다.

《우리 유격대에도 너대원들이 많았는데 남자들과 같이 싸움은 싸움대로 다 치르고도 행군의 설참이면 풀뿌리를 캐고… 눈덩이로 줄음을 털어버리며 우등불결에서 군복을 손질하느라 그들이 고생을 더 많이 했소.… 참말 녀성의 몸으로 용하오, 용해!》

그이께서는 이윽고 창가에서 물러서시여 또다시 범가죽을 어루쓰다듬어보시며 감회깊이 뇌이시였다.

《이 범은 칙가라미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백에서 다닐 때의 일입니다. 늘 산에서 살다보니 우리는 여러번 범을 만났습니다. 범이 앞길에 나타나면 우리들은 총알 한알이 아까와서 몇번이고 비키라고 하였습시다. 총알 한알이면 일본놈 한놈을 잡겠는데 어떻게 쏘겠습니까. 그래 몇번이고 비키라고 해도 정 비키지 않으면 권총으로 쏘았습시다.》

가늘은 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벌써 몇번째 걸려오는 전화였다. 장군님의 집무실 책상우에 놓인 두대의 까만 전화기는 지금 그이께서 얼마나 중대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였는가를 깨우쳐주려는듯 잠자코 있지를 못했다.

《아, 김책동무요? 국영공업부문에서 첫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단말이지요. 흥남지구 인민공장 노동자들이 앞장섰다-가만, 좀 기다리시오. 귀한 손님이 와서 그러오.》

장군님께서서는 화폐개혁의 실시와 은행권발행, 통화조절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가지고 가르침을 받으러 온 북조선인민위원회 재정국장과 중앙은행 총재에게도 이런 식으로 미루어 약속하시였다.

그이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생생한 산 화폭으로 그려보며 친근감과 흥모의 정에 빠져 명청히 앉아 있던 복덕이와 선일은 때늦게야 일군이 알려준 주의점을 자각하고 송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군님! 그럼 저희들은 돌아가겠습니다.》

선일이 주인답게 먼저 말꼭지를 떼였다.

《일없습시다. 산에서 살던 사람들끼리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지면 내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면 뒤마당으로 나가 메돼지나 좀 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포수부부를 데리시고 방을 나서시였다. 즐거이 눈을 맞으시며 그이께서는 틀에 넣어가지고 온 수렴품을 돌아보시였다.

《우리 나라 산에 이렇게 큰 메돼지도 있었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복덕에게 거리 얼마에서 쏘았는가고 물으시였다.

《100 미터 어방에 있는걸… 단방에 맞혔습시다.》

신명이 난 복덕은 자랑많은 아이들처럼 최근에 만도 메돼지 다섯마리를 잡았노라고 말씀드렸다.

《명포수요! 좋은 기술을 배웠습시다.》

장군님께서서는 둘러선 일군들앞에 복덕이과 선일을 내세워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들, 보시오. 이들이 얼마나 장하오. 얼마나 미덥고 튼튼하오. 절대로 녀성들을 무시할수 없소. 그 누구도 평범하고 소박한 근로대중의 힘과 지혜를 무시할수 없소. 우리는 언제나 근로하는 인민들을 존엄있게 대하고 그들의 슬기와 용맹을 새 조선 건설에 귀중히 써야 하오.》

천만리 미래를 앞에 두신 장군님의 눈부신 그 젊음은 비상한 정기를 풍기였고 담대함과 부드러움, 심장을 울리는 감화력이 조화를 이룬 그이의 풍부한 표정과 자애에 넘치신 음성은 봄빛처럼 모두의 가슴을 부풀게 해주었다.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 상냥한 그 일군은 또 따라나와서 초조히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서두르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잠간 무슨 생각을 하시다가 사진사를 부르시였다.

《세밀이다보니 일이 밀려 안되겠구만. 오늘은 우선 우리 산사람들이 만난 기념으로 사진이나 한 장 찍읍시다. 그러구 러로에 지쳤겠는데 러판에 가서 좀 쉬고 래일아침 다시 오시오.》

촬영준비가 될 때까지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손님들을 불편없이 돌봐줄 과업을 간식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주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먼저 자리를 잡고 앉으시여 복덕과 선일을 곁으로 부르시였다. 리성적으로 사고해보면 감히 그게 어떤 자리라고 그랬을가싶지만 행복의 무아경에 취한 복덕은 너무도 좋아 선뜻 어버이장군님곁에 가앉았다. 무엇이 문었을가싶어 입술을 닦고 눈굽과 코를 훔치고 쪽진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가, 옷매무새와 자세는 제바로 갖췄을가, 그옥한 눈동자를 깜박이며 그는 운몸으로 웃었다.

인물사진전용의 삼발이 평판사진기가 철카탁 한카트를 넘겼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그대로 붙잡아 앉히시고 한 뒤카트 더 찍어 제일 잘된 사진을 뽑아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극치를 이룬 인간다운 대접에 가슴이 쓰르르해져 앉아있는데 다정한 어머니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 마음을 쓰시여 이번에는 부부끼리 한장 찍으라 하신다.

장군님께서서는 똑박새같은 남편에게 얼굴을 다 정스레 더 가까이 모두고 좀 웃으라고 타이르시며 선일의 굳어진 표정을 훑내내신다. 그바람에 헤벌쭙해지려던 선일은 다시 얼굴이 이지러졌다. 사진사가 간난신고를 한 끝에야 사진은 찍히웠다. 가난과 박해속에 정분이 자별해져 1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오면서도 꿈에도 생각지 못한 부부사진을 해방된 강산에서 새삶을 받아안고 장군님 앞에서 찍게 된 그 걱정과 울고 웃는 그들의 영상은 이렇게 력사에 남게 되었다.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고대해온 그 시각은 드디어 왔다.

이튿날아침,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또 다시 포수부부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었다.

거세인 숨결로 큰결음을 내디딘 조국의 앞길에 새로운 리정표를 찍어주셔야 할 그이시였다.

문맹퇴치돌격운동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한 선전사업대책,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발가놓고 남조선 한국독립당 위원장 김구를 비롯한 우파민족주의자들과 합작을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새 조선의 국장과 국기 도안의 작성, 우리 혁명무력의 정규화를 선포하는 열병식준비사업, 북조선 천도교청우당을 새 조선 건설에 적극 참가하는 민주정당으로 이끌어야 할 문제 그리고 각급 당지도기관 결산선거와 제 2 차 전당대회 준비사업, 혁명자유가족학원과 종합대학 교사건설, 소비조합사업, 조선어문법규범작성, 얼마전에 떠나간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참모장 안길의 유가족문제 등 실로 장군님께서 한몸에 걸머지신 혁명의 중하는 하늘방보다 더 큰 것이었으나 그이께서는 산사람들에 대한 대접을 결코 허술히 하지 않으시였다.

《그래 잠자리며 식사조건이랑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복덕이네들이 올리는 아침인사를 받으시면서 반겨 물으시였다.

《장군님,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승용차까지 내주셔서... 정말... 황송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도 좀 놓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러시고도 무엇인가 가슴에 걸리어 그들의 진정을 헤아려보시려는듯 찬찬히 포수부부의 기본상태를 살피시였다.

《동무들을 보내고나니 이것저것 할 이야기가 많았드렸는데...》

그이께서는 뇌이듯 이러시며 가까이 나앉으시였다.

사냥한 짐승은 어떻게 운반하는가, 사냥하는데 애로는 무엇인가, 사냥총은 어떤것인가를 알아보시였다. 리의 농민세대수며 그들의 생활형편이며 경지면적과 기본작물이며 장군님의 관심사는 끝이 없으시였다.

복덕이과 선일이는 소탈하신 장군님의 인품에 이끌려 또다시 그들답지 않게 입이 헤쳐졌다.

원래 진짜사냥군은, 특히 젊었을 때엔 제자랑을 안한다. 그대신 육체적 힘이 진해져 사냥을 못할무렵에는 더없이 자랑을 즐겨한다. 그런 사람을 사냥계에서는 말포수라고 이르는데 사냥군이 자랑을 삼가는데는 또 다른 리면도 있다.

못짐승은 생태적 특성에 따라 있을만한곳에 가야 있는데 삼발 놓고 그걸 대주는 사람이 없듯이 짐승이 있는 자리를 정말로 대주는 사냥군은 열에 하나도 있을가말가하다. 그러니 어느 계절, 어느 시간에 어떤곳에 가서 어떤 짐승을 무엇으로 어떻게 낚는가 하는 질문에 실용적인 답을 줄수 있는 사냥경험을 무엇때문에 더운밥 먹고 식은소리처럼 하겠는가. 사냥경험은 매 사냥군이 피타는 고심과 쓰디쓴 실패, 산체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힘들게 얻어낸 귀중한 개인적 비밀이기때문이다.

포수부부는 사냥군들의 이러한 속내뿐만아니라 사냥총이 몹시 때리는 버릇을 가진것이여서 바른쪽 불이 부풀어 있기가 일쑤이라는 이야기며 사냥개가 금년봄에 한 3 일가량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난 일이 있고는 후각도 꽤찮고 지칠줄도 모른다는 우스운 이야기며 체고장형편을 스스럼없이 살살이 말씀올렸다.

해발고가 높은데다 기후까지 불리하여 불모의 땅으로 남아있는 세포등관, 린근 70 리 군데군데에 널려사는 매 집들은 해방전 복덕이네와 같은 처지에서 뜨내기로 떠돌아다니다가 화전뽕기나 일구어 감자나 피, 메밀을 심어먹고 살아왔다. 그랬던 그들이 장군님 찾아주신 해방덕에 땅의 주인이 되였다. ...

《불모의 땅이라- 왜놈의 악정에 온 강산이 다 그렇게 되였소. 평강에만도 황무지가 한 500 정도 있을게요.》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시던 장군님께서서는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시려는듯 벽에 걸려있는 조선지도앞으로 가시어 세포등관을 굽어보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결연히 그루를 박아 말씀하시였다.

《이 땅을 개간합시다! 500 정보중에서 매년에는 한 300 정보 개간하고 다음해에 200 정보를 마저 개간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옥토를 넘겨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때 벌써 장군님께서서는 산간지대 령세농민들의 생활을 풀고 집단경리의 우월성으로 농민들을 실물교양하기 위하여 국영농목장을 창설할 구상을 펼치고계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바이 다 알길 없던 부부는 고향땅에 일어날 거창한 변혁을 제나름으로 그려보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깊이깊이 자각했다.

《그럼 복덕동무!》 장군님께서서는 류창하게 말씀을 이어나가시었다. 《우리 산사람들끼리 굳은 약속을 하나 합시다. 명년에 황무지 300 정보를 개간하고 나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시오. 그러자면 공부를 부지런히 잘하여 글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면 특히 녀성포수를 많이 양성하십시오. 너자들이 복덕동무처럼 총쏘는 기술을 배워두면 밭에 내려오는 메돼지를 잡아치우는 일만이 아니라 야수같은자들의 침입으로부터 고향땅을 지키는데 단단히 한몫을 맡아할수 있소.》

《장군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이와 선일은 이때에도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평화적 건설의 그 시기에 벌써 래일에 조성될 나라의 엄중한 정세까지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주신 교시의 깊은 뜻에 대해서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벌써 일어서서 경모의 눈길로 그이를 우려했다.

《꽤 해낼수 있을가?》

장군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리에 와 앉으시었다.

《장군님 말씀을 군내 인민들에게 알려주고 꼭 해내겠습니다.》

《나랑 같이 손을 맞잡고 해봅시다. 아시아의 맹주라고 자처하던 왜놈들과 호랑이와 싸워 이긴 우리들인데 무서울게 뭐요. 그렇게 약속합시다.》

그이께서는 포수부부를 자리에 불러앉히시고 수화기를 드시어 비서(서기)를 부르시었다.

장군님께서 미리 귀뜸을 놓았던지 오늘은 일군들도 전화기도 여태 조용하였었다.

이어 옷차림이 단정하고 상냥한 그 일군(이제 보니 그는 장군님의 비서였다.)이 방에 들어왔다.

그는 가지고 들어온 물건들을 장군님 앞상에 정중히 쟁겨놓고 옷공예장식함에서 가죽케스의 문건을 꺼내어 그이께 올렸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그것을 찬찬히 펴보신후 살뜰하게 복덕을 부르시었다.

복덕은 그 어떤 예감에 자리에서 살며시 일어섰다.

《나는 새 조선 녀성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호랑이를 굶혀늑하고 우리 인민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절절히 보여준 동무의 억센 용감성과련마된 기술을 표창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존함이 모셔진 표창장과 상금증서를 복덕에게 수여하시었다. 장군님의 비서는 눈을 습벅이며 축하의 박수를 쳐주었다.

복덕은 꿈인지 생신인지 정신이 없었다. 치욕스러운 종문서예나 오르던, 《호적부》에조차 올릴수 없었던 자신의 이름 석자밑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우러르느라니 깨물고 참아

온 눈물이 가슴을 허물고 목젖을 넘어 보물처럼 터져나오는것이였다.

《그리고 이것은...》 장군님께서서는 령총 《무궤도》를 안겨주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외국의 혁명가들이 나더러 가끔 사냥도 하며 건강을 돌보라고 보내온것인데 산사람들이 서로 만난 기념으로 주니 받으시오. 주인을 잘못 만나 좋은 총이 은을 내지 못했는데 마침 잘됐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선일이라도 혁혁 숨을 들이키다 으흐흐흑 오열을 터뜨리며 장대한 체구를 떨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달래이시듯 시계를 이윽히 들여다보시었다. 때마침 내무서에서는 정오를 알리는 고동을 울리었다.

《자, 그럼 내려가 점심식사나 같이 합시다.》

장군님께서서는 포수부부를 량팔에 끼시고 식당으로 가시었다. 등글한 식탁이 열서너개 놓인 아늑한 방이였다. 여러 일군들이 정숙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가 일어서며 경의를 표시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복덕이와 선일을 자신의 량편에 앉히시고 일군들에게도 그만 앉으라고 손짓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한말씀 하시었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의 일이라고 했는데 긴말은 그만둡시다. 어제 이들 평강의 명포수부부는 우리 인민정권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지성어린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다감한 심중의 말씀을 추려 고르시었다.

《범은 물론 메돼지도 우리 나라에선 보기 드물게 큰것이였습니다. 메돼지만 놓고보아도 정육으로 306키로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민들의 우리에 대한 신임과 기대를 다시한번 더 깊이 자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존중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줄 아는 인민적 일군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선크를 떼자 장내의 모든 일군들은 힘찬 박수를 쳤다.

《자, 그럼 우리가 산에서 배굶으며 싸울 때 그렇게도 맛있던 메돼지고기맛을 다시한번 봅시다. 그 래야 이 동무들이 기뻐할게 아닙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복덕이와 선일에게 수저를 들려주시고 밥뚜껑까지 열어주시었다. 차지는 않은가, 내용은 어떤것인가를 헤아리시여 찻찻 잔이 넘치게 축배잔까지 부어주신다.

《듭시다, 자, 동무들!》

그이께서는 복덕이네와 좌중을 둘러보시며 잔을 높이 추켜드셨다.

갑자기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항일혁명투사들은 인민에 대한 한없는 존중과 믿음을 지니신 장군님의 겸허하신 덕망에 가슴을 적시며 잔을 들고 송엄히 일떠섰다. 그러나 복덕과 선일은 어찌할바를 몰라 웅숭그리고 앉아있었다.

《손님들이 달게 들어야 주인의 마음도 가득해질 않겠소. 사냥군들이 술을 좋아한다는건 나도 아오. 전에 우리 아버님 친구들중에 포수출신이 여럿했는데 그들을 보니 모두 술을 사발들이로 하더라 말아요. 이건 연한것이니 복덕동무도 내우하지 말고 어서 드시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다심히 잔을 들어 권하신다.

복덕은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윽한 사이, 장군님께서 언제까지든 수저를 못드시고 그러고계실것이 더더욱 황송해 그는 열결에 잔을 두손으로 받아들였다. 선불을 맞은 호랑이가 길길이 날뛰며 덤벼들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던 그 심장, 그 팔다리가 장군님 부어주신 축배잔을 힘겨웁게 떠받들고 자신의 리성과 의지의 힘으로는 이상 더 견잡을수 없이 점점 자주, 크게 떨릴적에 그는 폭 얼굴을 어깨우에 묻었다.

《...잔이 넘어납니다. 옛 고생을 씻어버리듯 꼭 들으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더 다정스레 그를 부추기신다.

《장군님!-》

아침이슬을 머금은 꽃송이가 눈부시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듯이 그는 눈물이 그렁한 얼굴을 들고 한없이 인자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아! 장군님! 지지리 굶주리고 지지리 헐벗고 지지리 못배우고 지지리 수모와 천대를 받으며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고 사람다운 권리를 주시고 만복을 다 찾아주신 **김일성** 장군님! 장군님은 진정 이 땅우에 복된 인간세상을 안아오신 은인이십니다. 아- 아! 장군님을 인간세상의 태양으로 받들려는 이 마음 목숨이 진할 때까지 변함이 없으오리다!)

복덕은 또다시 자기를 잃고 하염없는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이듬해 봄, 복덕은 영명하신 장군님의 말씀들을 받들고 군내 청장년들과 녀성들에게 총쏘는 법을

익혀주는 한편 남편과 함께 앞장에 서서 황무지개간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름없는 한 산골녀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장군님께서서는 유능한 정치실무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해주시고 평생 편지 한장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복덕이 앞으로 보습 여섯 달린 여러대의 트랙트와 많은 비료를 차판에 실어보내시어 그해에 무려 400 정보의 새 땅을 일굴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리고 가을에는 또 새로 개간한 그 많은 밭들의 강냉이탈곡을 넘려하시어 탈곡기까지 보내주시고 세멘트와 건설자재를 대주시어 주택과 학교, 인민병원과 상점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었다.

이 나라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황금시절은 살같이 흘러갔다.

1950년 여름, 하늘과 땅 차이로 날마다 달라져가는 인민의 지상락원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원쑤놈들은 드디어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왔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 후퇴시기 복덕이네들은 장군님께서 주신 한자루의 총을 모체로 인민유격대를 못하고 고향땅을 지켜싸우는 투쟁에 나섰다. 복덕은 제 한가정의 따라지목숨을 이어가기 위하여 잡았던 낱창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투쟁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살기 좋은 인간세상에 뛰어난 야수들의 염통에 복수의 명중탄을 안기고 또 안기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고향땅을 해방하고 장군님 세워주신 참된 인간세상을 지켜냈다.

녀성의 몸으로 호랑이를 낚아가지고 찾아온 복덕을 처음 만나신 그때에 벌써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들이시어 소중한 그 싹을 애지중지 가꿔오신 장군님께서서는 복덕이의 성장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시고 금별메달에 받쳐 그의 이름을 새긴 권총을 선물로 주시었다. 그때 복덕은 자신이 후날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주권기관의 대의원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참으로 그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에서 산사람으로부터 룡으로 자랐다.

복덕은 지금 우리곁에 없다. 그러나 영웅의 이름은 그의 고향리에 그대로 옮겨져 참된 인간세상의 새 전설로 후세에 길이 전해지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의 공화국영웅관에 걸려있는 영웅의 사진은 영생불멸의 혁명학설로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시고 한평생을 다 바치

여 위대한 수령님 가꿔오시는 진정한 인간세상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인간의 존엄과 삶의 높이가 열

마만한 극치에 이르렀는가를 생활적으로 말해주며
못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각하께 드리는 헌시

아흐메드 칼릴 두레

김일성 그이는 우리 마음속에
더없이 친근한 위대한 수령
그이는 자애로운 민족의 아버지

그이께서 지니신 고결한 품모로 하여
인민은 그이를 끝없이 우러러 따르거니
그이는 절세의 애국자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시는 위인
그이 계심으로 하여
조선은 자유와 존엄을 찾고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여라
그이는 인민의 총복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가시며
인민은 그이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여라

오 위대한 영재
온 세상 사람들 그이를 우러러 칭송하고
인류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여라

(필자는 꼬뜨디바르 작가임)

화 불

신진순

당은 화불
우리 당은
가장 깨끗한 심장의 화불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 동지 계시여
우리 당
영원한 청춘으로 빛발치노라

조국을 구원코저
일제, 미제와 백열전으로 밝고저 문
수십여성상 그 모든 낮과 밤들에
당은 있었거니
투사들의 열렬한 심장속 깊이

오늘도
단발마의 발악 절정에 이른
극악무도한 제국주의 발광 맞받아
온 강토우에
투쟁과 건설의 백열전 벌리는
이 민족, 불타는 그 모든 심장속에

우리 당
영원한 청춘으로 빛발치노라

서해갑문 순식간에 일떠세운 그 열정
온 나라 모든 전선으로 퍼져
불타오르는 열정들
조국의 산과 들을
조국의 바다와 강을
진감할 때

파쏘야수들 잔인무도한 폭압광증
맨주먹으로 맞받아 싸우며
굴할줄 모르는 그 심장들도
우러르며 따르는 우리 당

한강토의 북과 남을 가릴소나
미제 검은 발톱 송두리채 뽑아버리고저
투쟁과 건설, 제각기 초소를 말아
백열전 벌리는 온 나라 인민들
그 모든 불타는 심장속에

우리 당
온 겨레 가슴의 화불

영원한 청춘으로 빛발치노라

그이 기뻐 웃으실 때

조성관

기쁘시여 기쁘시여
친애하는 그이 기뻐 웃으실 때는
우리의 가슴속 꽃이 봉긋이 피는 때

하늘이 따라웃고
땅이 따라웃고
우리의 얼굴 저절로 벉글어라

크지 않은 일을 두시고도
못내 만족하시여 그이 기뻐 웃으실 때는
우리의 가슴 한껏 부푸는 때

그 무엇으로든 보다 큰 기쁨을 드릴가
그 무엇으로든 보다 큰 만족을 드릴가

뜨거운 다짐으로 가슴은 뜨거워

아, 인민의 행복은
친애하는 그이의 으뜸의 기쁨
친애하는 그이의 기쁨은
우리 인민의 으뜸의 행복

가시덤불길도 꽃밭속처럼 헤쳐가리
천길 깊은 물길도 얕은 내처럼 건너가리
친애하는 그이의 바라심이라면

날바다 한끝까지 땅도 끌어가리
높은 령우에까지 바다도 끌어오리
친애하는 그이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배 낭

박창화

항일의 긴긴 세월
눈비에 젖었네
혈전 수만리
다시 포연에 절었네

손에 무장을 드신 그날부터
김정숙어머님
언제나 지고 다니신
백두의 풀물이 오른 배낭!

눈우에 청술을 깔던 그런 밤엔
그것이 베개였고
광복된 조국으로 개선하시던 그날엔
그것이 재산의 전부였어도

아, 그 배낭속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목숨을 바친대도 버리지 않을
참말로 소중한것 다 들어있었네

미시가루며 깨고추장
주사약이며 신발...
장군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바라시는
하늘같은 그 지성!

진정, 실 한오리 바늘 하나
그 어느것 하나인들
어머님
자신을 위한것 있었던가

모진 추위에 손등이 터갈라져도
크림 한통 넣어두지 않으셨네
그 무게로 하여
장군님 위하시는 마음 가벼워질세라

하기에 배낭은 크지 않아도
천만의 어깨로도 다 받들지 못할
그렇듯 무겁고 고귀한 마음
간절한 어머님의 소원 담겨져있었으니

천년세월 흘러가도
그 무게 변함이 없을

정론

아, 김정숙어머님의 배낭을
인민은 언제나 마음속에 지고 사네

민족의 금지

리상복

민족의 위대성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다.

사람의 가치가 사상에 의하여 평가되는것처럼 민족의 위대성도 그 민족의 지도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 당을 건설하심으로써 룡성변영하는 우리 인민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인류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바로 그때문에 세계진보적 인민들은 우리 수령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끝없이 존경하며 우리 나라를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높이 찬양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민족은 대대로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 민족으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며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 존엄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민족적 금지와 혁명적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비길데 없는 금지와 자부심이다.

또한 그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에서 태어난것이다.

만경대에서 솟아오른 찬란한 해돋이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무엇을 가져왔고 화전과 카륜의 언덕에 올린 그 위대한 선언과 함께 룡남산에서 봄우뢰처럼 올린 그 맹세가 우리 인민을 어떠한 지위에 올려놓았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 민족의 금지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그것이 왜 그토록 빛나는가를 알수 있을것이다.

우리 민족의 금지는 반세기에 걸쳐온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세기적인 창조와 변혁 속에서 자라고 역세여진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

민족의 금지,

이 말속에는 얼마나 깊은 뜻이 울리고 얼마나 많은것 이 담겨져있는가.

여기에는 복잡다단한 흥망성쇠의 년대기를 겪어온 수천년의 유구한 우리의 력사가 비껴있으며 오늘의 우리의 존엄이 힘있게 울리고있는것이다.

민족의 금지.

오늘 이 말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써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인민들의 대명사로 힘있게 울리고있다.

민족의 금지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이다.

참으로 한민족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귀중한것이 민족적 금지이며 자부심이기에 그 인민은 민족의 영예를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던것이다.

민족적 금지는 원한다고 하여 스스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력사가 오래거나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하여 지니게 되는것이 아니다.

어떤 민족을 가리켜 진실로 민족적 금지가 높은 민족이라고 하는가.

어떤 민족이 높은 금지를 가지고 자부심에 넘쳐 성스러운 투쟁으로써 새 역사를 창조할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탁월한 수령을 모신 인민만이 창조할수 있는것이며 그러한 인민만이 금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민족사가 명맥을 끊기운 20세기 첫기숨을 돌이켜보자.

열혈청년 안중근의 피타는 부르짖음.

나라를 옹계 이끌어줄 그런 위인, 짓밟히고 천대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세계에 당당히 내세워줄 그런 절세의 위인의 출현을 애타게 바라는 절통한 마음이 어찌 그에게만 있었으랴.

그것은 빛을 잃고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던 조선의 현실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고국산천을 등지고 정처없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간 사람들의 피눈물과 생소한 이국땅에서 하많은 설움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의 기막힌 원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아픈 가슴을 풀어헤친 울분에 찬 시인의 붓끝에도 서리였고

《만국평화회의》장과 3.1의 광장에서 선혈을 뿌린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울분, 정녕 그것은 잃어진 민족의 생명을 되찾고 존엄을 찾자는 항거였다.

과연 외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외세의 희생물로 되었던 이 나라의 역사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민족을 이끌어갈 절세의 위인, 탁월한 수령이 있어야 한다는 애타는 소원이었고 피의 교훈이었다.

곡절과 수난을 겪어온 조선은 우리 세기에 와서 그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다.

한민족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할수 있는 최대의 기여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는것이다.

한나라 한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수령이 위대하면 인민이 위대하고 민족이 위대하며 그 민족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는것이다.

바로 조선인민은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사는 가장 긍지높은 인민이다.

수령이 위대하고 로동당이 위대하여 위대해진 우리 인민!

오늘 지구상에는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력사적 시대에 우리 인민은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심으로써 세계만방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휘날리게 된 가장 긍지높은 민족으로 되었다.

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을 보여주는 기록을 인류해방사에 남기고 있다.

인류가 일찌기 나일강, 티그리스강, 간지스강 류역과 고대회람, 로마의 옛성터에 남겨놓은 문명의 유산들, 중세기의 문예부흥의 갖가지 재부들은 오늘도 세계문화사의 자랑으로 되고있으며 스파르타쿠스폭동이나 몽마르트 언덕에 올린 콥뎬영웅들의 혁명의 총성은 억압받는 인민들의 투쟁으로서 인류투쟁사에 그 발자취를 뚜렷이 하였다.

자주의 궤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의 조선을 보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감으로써 아직 인류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쌓아올렸다. 우리는 류레없는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며 한세대에 세기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니 그것은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함으로써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새 시대를 개척하였으며 어렵고 복잡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천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쳐 그러럼 짧은 력사적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완수하였으며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내달려 모든 분야에

걸쳐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 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았다.

참으로 우리처럼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한세대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변혁을 이룩하고 인류사적 의의를 가지는 업적을 쌓아올린 인민을 력사는 아직 알지 못한다.

흘러가는 오늘의 80년대를 보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대진군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기성의 온갖 관념과 상식, 온갖 신비를 대담하게 깨뜨리고 자기의 새로운 력사, 자기의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고있다.

날바다 한복판에 일떠선 서해갑문과 수도의 한복판에 그 웅좌를 자랑하며 서있는 인민대학습당, 세상사람들의 경탄속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대기념비적 창조물로부터 대전성기의 주체예술에 이르기까지 변혁을 해도 상식과 예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변혁을 하고 창조와 건설을 해도 무엇이냐 최상의 수준에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하는 이 모든 거창하고 류레없는 전변을 하는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정력적인 령도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실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시대의 개척자, 선구자로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자주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가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자랑한다.

류레없는 속도로 인류의 미래를 앞당겨나가고 있는 조선의 현실, 강산에 차넘치는 행복에 겨운 인민의 웃음소리, 우리에게는 그 모든것이 한없이 정당하고 자랑스럽다.

이러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은 해와 별 빛나는 나라, 조선에서 태어난 긍지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들고있는 비길데없는 자부심이다.

한때 현대적인 규모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조선과 나무지게밖에 내놓을것이 없었다던 우리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냐 만들수 있고 그 어떤 경제파동이나 이상기후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력한 자립의 경제를 가진 나라로 전변된 오늘, 그리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와 같은 웅대한 전망을 펼칠수 있게 된 오늘의 긍지를 반세기전에는 꿈에 그려볼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얼마나 긍지에 넘친 생활을 하고있으며 아버이 그 품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재생의 길로 이끌었는가.

위대한 그 품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선다면 그 누구의 과거도 백지화하고 크나큰 도량으로 한 품에 안아 광명의 길로 이끌어주었다.

《반공》을 리념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살아온 정객이었던 김구도 위대한 수령님을 알고서는 자기가 가고있는 길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깊이

이 깨달았으며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할 용단을 내렸고 아버지 넓은 품에 안겼다.

남조선괴뢰관직에도 있었고 해외에서 곡절많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말년에 그렇게도 찾아해매던 진리를 발견한 한 해외교포가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의 대조는 주체와 사대의 대조이며 애국은 주체이고 주체는 애국이라고 한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에서 나오는 진정의 토로인 것이다.

몇해전에 우리 나라에 영주한 70 고령의 한 주인공사는 《반공의 늪》에서 허우적이던 자신이 파란곡절속에 저물어가던 인생의 말년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 안겨 살게된 한없는 민족의 긍지를 느끼면서 덧없이 흘러보낸 지난날을 가슴아프게 회고하였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것은 인력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 고결한 인품이야말로 만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이다.

민족이 긍지를 가지게 되는 거기에는 위대한 인간이 있다.

여기에는 태양과 같은 인품, 크나큰 담력과 넓은 도량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 서계신다.

도량과 포용력은 인민들을 이끌어나가는 수령에게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품성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다른 도량과 포용력을 지닌 위인들을 존경하였고 그러한 성품을 미덕으로 자랑하였다.

하지만 력사는 아직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처럼 넓은 도량과 크나큰 포용력을 지닌 위대한분을 알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도량은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의혹과 불신도 없는 무한대의 도량이다.

올해 정월초하루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남련석회의 소집을 온 겨레에게 호소하시였다.

북남련석회의 소집!

흘러간 40 여년 세월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천리혜안의 예지로 빛나는 이 방안은 우리 인민에게 조국통일의 열망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으며 그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온 세상사람들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의 가르치심을 받드는것으로 하여 한없는 기쁨과 긍지를 느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심으로써 조선인민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민으로서의 자랑과 영광을 떨치고있다.

하나 조국의 절반땅 남녘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군화에 짓밟히고있고 산과 강, 바다와 공기마저 예측경제의 오물배설장으로 된 남조선, 민족

의 고유한 언어가 오가잡탕의 외래어와 뒤범벅이 되고 우리것이 아닌 양키식 생활양식이 만연되고있는 남조선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나라가 망하자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것이 아니다. 제 정신을 잃고 외세에 매달리면 국력이 미약해지고 남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더구나 식민지괴뢰로서 종건으로서의 역을 다하는 남조선당국자들임에 말해 무엇하랴.

여기 산세수려한 묘향산에 거연히 솟아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오늘 이곳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우리 나라를 찾아온 외국대표단들로 그칠새없다.

국가수반으로부터 주체사상의 신봉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쓴 내용 귀중한 재보앞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고, 이처럼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은 세계에서 가장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이라고 하면서 조선이 지닌 세계적 권위에 대하여 경탄해마지 않았다.

실로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전당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투쟁하고 화목하게 사는 우리 민족의 긍지는 더없이 높다.

얼마전에 한 인민체육인은 자기의 수기에서 너자배구가 국제경기들에 출전할 때마다 세계패권을 자랑하던 나라들을 누르고 이국의 상공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리였다고 하면서 《나는 조선사람이다.》라는 긍지에 넘쳐 가슴부풀던 그때를 회상하였다.

이 세상 어디에 가나 《나는 조선사람이다.》는 긍지에 넘친 이 말,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당이 빛내여주는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영광과 행복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어떠한 일생이 가장 빛나는 일생이며 어떠한 삶이 가장 값있고 행복한 삶인가. 그것은 바로 혁명투쟁에 바치는 일생, 혁명투쟁과 함께 있는 삶인것이다. 사람들의 삶의 보람과 행복이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조국의 통성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혁명사업에 모든것을 다바치는 바로 거기에 있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 참가하는것을 더없는 긍지로 혁명적 자부심으로 여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 바로 여기에 조선의 영원한 미래, 조선의 끝없는 행복이 있는것이다.

인류의 영재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인도하시고 빛나는 향도성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살피시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세기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아아, 메아리

외 1 편

전계승

아-
그 어디에 부딪쳐 돌아오는가
장군봉에서 터치는
가슴속의 이 환희

불굴의 기상이 비긴
천지의 수면을 스쳐 울려오는가
하많은 사연안고 설레이는
저 밀림에 닿아 울려오는가

벽찬 가슴 울렁이며
귀 기울이니
긴 여운속에 이어지는 메아리-
시련을 헤쳐온 발걸음소리
혈전을 넘고넘은 구렁소리, 총소리...

백두의 숨엄한 녀를 새기며
뜨거운 숨결모아 웨치니
그날의 대오에 나도 세워주는
메아리

한생의 선서처럼
크나큰 뜻을 안고
새롭게 태어나는 삶의 환희여

백두산이 생겨
가장 고귀한 혁명의 노래로 울려퍼진
그 불멸의 메아리속에
오늘은 내 목소리도 합치는
크나큰 영광
우리를 향하여 한껏 터치나니

영원히 백두의 숨결로
나의 녀
나의 심장을
가슴 벽차게 흔들어주는

아아-
메아리
백두산의 메아리

백두산 마루에 남겨두고서

내리면서 한결음
돌아다보면 두걸음
나서자란 고향집을 떠나는 사람처럼
한번 더 보고싶어
다시 더 새기고싶어

우러르니
구름우에 눈덮인 령봉
하나의 봉우리, 한줄기 골짜기도
정든 고향의 잊을수 없는 산천처럼
영원한 모습으로 새겨진
아, 백두산

향일전의 포연인양
흰구름 질게 두른 아아한 절정
신념의 봉우리로 내 마음속에 높이 솟고
그날의 사향가 선물을 담아
내 가슴 흔들던 산정의 바람
옷자락 붙잡고 놓지를 앓아...

밀영의 고향집에 날아예던 산제비들
눈을 감아도 선히 떠오르고
만병초 핀 기슭에 허리를 굽혀
두손 모아 떠마신 천지의 물이

온몸에 붉은피로 차고넘치여

한번 더 보고싶어
다시 더 새기고싶어
뜨거운 눈길 떼지 못하니
어디 가도 잊지 말라고
언제나 잊지 말라고
믿음에 넘쳐 바래워주는
아, 백두산

누구나 나서자란 고향이 있지만
깊은 뿌리 없이는 거목이 없듯이
성스러운 그 품에 참된 생의 태를 묻고
위대한 당의 전사로 태어나는 고향
영생의 삶을 주는 혁명의 고향이여

답사배낭 추슬러올리며
여기서 시작된 먼 길을 내 떠나노라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백두산 태생이라고
자부하며 빛나게 살 한마음을
영원한 내 고향
백두산 마루에 남겨두고서...

4월의 꽃

량남의

무릇 생활에서는 명절이 많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처럼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은 없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이른아침부터 명절분위기로 더욱 화려해진 거리!... 누구나 우리가 사는 이 거리에 나서면 공원에서든 길가에서도 살림집의 창가에서도 갖가지 꽃을 피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럴 때면 의례히 마음도 끝없는 흥분으로 설레이고 그 무엇인가 하고 싶은 충동이 끓어오른다.

나는 방금 퇴근길에 대동강을 따라 걷다가 걸음을 멈추고 주체사상탑앞의 화단들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들의 일손을 한참이나 도와주고 왔다.

그들은 모두가 동인민반에서 생활하는 가정부인들이거나 나같은 세대주들이었다.

(어디서 이 술한 꽃들을 피워왔을까?)

처음에 나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의문이 불쑥 머리를 들었으나 다음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 꽃들이 가정세대들에서 키워온 꽃들이라는 것을 인차 알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마트면 큰 《실수》를 할번했다.

나는 온 집안식구들이 뜻깊은 4월을 기다리며 아침저녁 서로 앞을 다투어 꽃을 가꾸었을 그 많은 가정세대들의 소행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참으로 뜨거웁다.

생각할수록 아름다운 그 마음들이 한가득 안겨와 나는 가슴이 후터워졌다.

물론 화단에서 류다른 충격으로 받아안은 감정이지만 이런 일은 우리 집에서든 하나의 생활로 이어져왔다는것을 회억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벌써 몇달전에 아직 인민학교 학생인 막내아들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서리꽃이 하얗게 핀 지난 겨울 어느날이라고 기억된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여서 나는 아들애를 데리고 모란봉너머에 있는 할머니네 집으로 떠났다.

늘 분주히 돌아치다가 오래간만에 애들의 청을 들어주게 되니 나 역시 기쁘고 애들도 너무 좋아 앞질러 전차에 올라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깨끗한 은세계로 단장한 거리는 얼마나 황홀한가.

전차는 옥류교네거리를 지나 만수대 기슭으로 오르고있었다. 그런데 전차가 만수대 언덕앞을 가까이 하고있을 때 나는 뜻하지 않는 광경에 저으기 놀랐다.

옆에 앉아 부산을 피우던 아들이 창가에 동그랗게 입김으로 성예를 녹이고 손으로 유리를 닦지 않겠는가. 우리 애뿐이 아니었다.

약속이나 한듯이 만수대 언덕쪽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차창의 성예를 녹이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보는 것이었다.

그 순간 이름할수 없는 걱정으로 나는 코마루가 쨍해오고 눈시울이 화끈 젖어들었다.

아, 만수대 언덕!

운전사도 여기서는 그 마음을 알아서인지 전차를 천천히 몰았다. 만수대앞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하나와 같이 누구의 시킴도 없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실로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결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 인민, 운명도 삶도 희망도 그 품에 맡기고사는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리라.

《야, 저 서리꽃!》

나는 크나큰 격동에 잠겨 아들이 닦아놓은 창유리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보았다.

《정말 곱구나.》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은 아름다운 설경으로 눈부시었다.

《아버지, 이제 원수님 탄생하신 4월까지의 꼭 석달 남았지요.》

《응 그렇지.》

《모란봉의 나무들은 오늘 원수님동상앞에 고운 서리꽃을 피워드렸지만 우린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처럼 은방울꽃을 피워드리지요.》

《그렇게 하자. 우리 제일 고운 꽃을 피워드리자.》

나는 뜨거움을 삼키며 아들에의 말에 큰소리로 대답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있었던지 손님들은 정깊은 눈길로 우리 부자를 바라보았다.

나는 다음날 아들과 함께 식물원을 거쳐 우리 직장과 마주하고있는 도자기공장에 갔다. 여기에서 나는 또다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뜻깊은 4. 15 전으로 상반년계획을 완수하자!》, 《4 월에 달리는 마음》, 《꽃을 피운다!》 등의 울긋불긋한 속보들이 눈길을 끌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민족 최대의 경사로 맞이하는 우리 인민들이 피우는 꽃, 그것은 자연의 꽃만이 아니라 티없이 순결한 마음속에 피어나는 충성의 꽃이 아니겠는가.

나는 제일 좋은 화분들에 은방울꽃을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영낙없이 4월 15일 아침에 꽃망울을 터칠 것이다. 우리 가정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꽃은 은혜로운 태양의 빛을 받아 피는 아름다움과 고결함의 상징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나라 없던 그 어두운 세월에 우리 인민은 삶의
빛을 주고 자유와 행복을 꽃피워줄 해빛을 얼마나
기원했던가. 바로 그 은혜로운 태양이 솟아오른 날
이기에 우리는 4 월의 명절을 꽃명절이라고 한다,

4 월과 꽃! 얼마나 깊은 의미인가!

나는 생각에 묻혀 박을 내다보았다. 우리 사는
집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꽃밭을 가꾸고있었다.

나는 그냥 있을수가 없었다. 제일 좋은 꽃화분을
올 골라내고 현관을 내렸다. 꽃을 피우는 그 마음에
이 마음도 합치고싶어서였다.

나는 뚫어오르는 걱정으로 가슴을 들먹이며 만
수대 언덕우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
른다. 봄빛이 한껏 무르녹은 대지우에 거룩하게 서
시여 우리를 공산주의 봄언덕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사시절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이 활짝 피여난 아름다운 꽃바다우에 높이 서
계시는것이다.

이 마음 있어

리응래

젖먹는 갓난아기
어머니없이 살수 없어
자나깨나 찾으며 안기며
그 품에서만 웃음꽃 피우듯이

해바라기가
음달에서는 피여날수 없어
언제나 해빛만을 따르며
생기 그윽한 꽃으로 만발하듯이

나에게는
내 운명 지켜주는
삶의 요람, 당이 있어
언제나 우러러 따르며
한생을 젖먹이 아이처럼
그 품에 안기네

기쁠 때에는
그 은정에 가슴 젖어
믿음을 안은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
가슴에 되새기며 살고

잘못을 저질러 괴로울 때에는
못지킨 의리
흐려진 마음
자책에 모대기며
다시는 넓지 말자
마음 다지며 사노라

험준한 행군길에서

때로는 주저앉았다가도
나를 손잡아주는 당이 있어
마음의 기둥을 안고
새힘 얻고 일어서고

그리워 더욱 못잊어
떨어져 살수 없는 그품 찾아
꿈결에도 안기는 마음
향도의 해발 우러러
운명도 미래도 말기고 사는 나의 한생이여

만약 이 마음 잃는다면
나는 창과우에 쪽배되리
등대 잃은
노 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천길나락에 떨어군다 해도
나는 이 마음 있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락망하지 않으며
오직 신념에 넘쳐 살거니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나의 생활속에서
의지로 굳어진 이 마음

나는 살리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마음 안고
그 품속에서 살리라

나를 키워주는 품

량철수

창가로 아침해빛이 비쳐든다. 또 하루 새날이 밝았다.

라디오에서는 들끓는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에 이어 《동지애의 노래》의 장엄한 선율이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거리를 메우며 희망과 신심에 넘쳐 출근길을 재촉한다. 아이들도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떠난다.

나는 밤새껏 모대기며 구상하던 작품의 줄거리를 더듬어보며 원고지앞에 마주앉는다.

온 나라가 보람찬 로동의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창작전투도 시작된다. 나에게는 집이 곧 창작실이다. 혼자의 힘으로는 대지를 밟을수 없는 나도 불편없이 창작의 길을 줄달음치고있다.

이제는 수없이 반복되어 레사로운 일로 되어버린 나의 창작일과이지만 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돌이켜볼 때 느닷없이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내가 우리 조국이 아닌 그 어느 다른 나라, 특히 자본주의사회나 남녘땅에서 태어났더라면 과연 오늘처럼 이런 행복에 대한 수기를 쓰리라고 꿈에나 생각할수 있었겠는가!

나는 아직 조국을 위하여 아무런 큰일도 해놓은 것이 없이 오직 은혜와 사랑만을 받아안은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불구의 몸이었지만 누구나 쉽게 될수 없는 작가로 자라나고 조선로동당원이라는 가장 고귀한 영예까지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행복할수 없습니다.》

나는 자주 자기의 길지 않은 생애 대하여 돌이켜보군한다. 경력을 써놓으면 단 석줄밖에 되지 않는 나의 짧은 인생에 깃든 은혜로운 사랑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어도 수십권은 되리라고 생각된다.

어려서 불구의 몸이 된 나를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사랑의 한품에 안아 애지중지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에 대해서 이 짧은 글에서 다 이야기할수는 없다.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갓 창건하신 반일인민유격대를 친솔하시고 천여리도 넘는 남만 통화로 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찾을 옳은 길을 찾아서 해매이던 나의 할아버지에게 참된 투쟁의 길을 밝혀주시고 광명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의 할아버지가 전사하신데 대하여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조국이 해방되자 이국땅에 있던 우리 가족을 조국으로 불러주시고 한량없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의 아버지를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대를 이어 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만경대학원에 보내주시고 어엿한 조선인민군 비행사로 키워주시였다.

나의 아버지가 뜻하지 않은 일로 희생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분도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할머니를 따뜻이 위로해주시면서 이제는 나라의 아들딸들을 다 아주머니의 아들딸들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크게 먹고 손자를 잘 키워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어린 나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인민들이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삼가 올린 귀중한 산삼까지 안겨주시였다.

이처럼 크나큰 사랑에 받들리어 나는 비록 불구의 몸이었지만 인민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졸업할수 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대학을 졸업한 나를 조선문학창작사 작가로 키워주시고 몸이 불편한 나의 창작활동과 생활에서 자그마한 고충이라도 있을세라 친히 사랑의 승용차까지 보내주시였다.

1981년 10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나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절절한 소망까지 헤아려주시고 당과 조국앞에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 나에게 조선로동당원의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까지 안겨주시였다.

실로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가정에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는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으며 그 은정의 깊이는 그 어떤 척도로도 잴수 없다.

나의 인생에 바쳐진 수많은 주위 사람들의 정성과 동지적 의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인민학교와 중학교 시절 나를 업고다니며 따뜻이 보살펴준 선생님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나의 학습이 조금이라도 뒤떨어질세라 매일처럼 찾아와 차근차근 일깨워주시던 선생님들의 친근한 얼굴들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그리고

않는 나의 머리맡에 지켜앉아 부모를 대신하여 밤을 밝히던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원누이들의 다심한 눈빛은 오늘도 나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되어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의 보람찬 학창시절에 동무들이 나에게 기울여준 동지적 의리와 사랑을 나는 영영 잊지 못할것이다. 나를 업고 높고높은 층계를 오르내릴 때 동무들의 땀방울 맺힌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으나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나를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이 글에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일이 다 할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자라났다.

하기에 나는 앞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과 뜨거운 은정 그리고 동지적 의리와 참된 심장을 간직한 수많은 사람들을 나의 작품에 담으려 한다.

한 인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른일, 굶은일을 가리지 않고 진심과 노력을 쏟아부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대하여 노래하려 한다.

그 어떤 위대한 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듯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지니게 하였는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동지를 위하심이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으시며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

재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조국을 주체의 조국으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수령님!...

우리모두는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서 혁명동지로, 친형제로 살고있다.

우리 조국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주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빛나게 구현되어 온 나라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고 혁명적 동지애의 미풍이 온 사회에 넘치고있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수령님의 품, 조국의 품에서 태여났기에 나는 이 《기구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구김살을 모르며 오늘과 같이 성장한 것이다. 바로 그 품에서 오늘과 같은 나의 《레사로 온 창작의 하루》들이 마련된것이다.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땀세 번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동지애의 노래》의 숭엄한 선율이 온 나라에 차넘친다. 우리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한 진군길로 역세게 나아간다.

나도 언제나 혁명의 필봉을 역세게 틀어잡고 역세게 가고가겠다. 신념과 의리로 다져진 충성의 한길을 따라...

조국의 모습에서

리익주

헐치 않았으리
그대가 걸어온
과학탐구의 나날은

그대가 넘어온 세월의 자욱자욱
숭엄히 새겨보는 마음속에
우렁이 안겨오는 모습이어

새 선광법 성공하던 그날
그대는 아직 꽃나이 처녀
허나 선광장의 폐설물에 흐려질수 있는 강물
그것을 위해 또다시
청춘시절을 고스란히 바친
녀성과학자

그대의 티없는 마음이 고여
물결은 저리도 맑아진것인가
푸른 들 푸른 하늘 담아실고

설레이며 흘러가는 강물이어

탐구의 나날에 바친 그대의 청춘
푸른 숲에 옮겨져 설레이는가
행복의 웃음속에 피어나는가
유원지의 분수되어 피여오르는
무지개도 내 보노라
논벌마다 흘러드는
맑은 물소리도 내 듣노라

나는 보노라, 그대의 모습을
수려한 산천, 푸르러가는 들에서
그리고 내 노래하노니
젊음을 바쳐 조국을 빛내인
그대의 청춘은 영원하리라
저 물결의 흐름과 함께
나날이 젊어지는 조국의 모습과 함께

기습

리명

1

폐수관측실을 나서려던 폐수정제공 진혁은 갑자기 등뒤에서 야단스레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다시 방에 들어갔다.

장미빛 아침별이 폐수관측실창문을 누비며 흘러들었다. 요즘 울타리자재 교섭을 여러곳에 벌린 진혁은 혹시 그때문이 아닐까 하는 반가운 기대를 갖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송수화기에서는 별안간 나무통에서 울려나오는듯한 직장장의 궁근소리가 그의 고막을 두드렸다. 직장장은 폐수장에서 폐수의 가스농도조절을 제때에 하지 않아 알까한 냄새가 생산현장에 퍼진다고 어성을 높였다. 진혁은 아침부터 짝소리 못하고 욕설을 듣게 되었다. 그의 넓고 거만한 이마에는 한창나이의 왕성한 혈기를 말해주듯 여드름이 돋았는데 그것들이 불시에 벌겋게 부풀어올랐다. 울컥 분기가 끓어오르는 그의 시야로는 창밖의 푸른 하늘색이 바래지며 방금 눈부신 자재를 드러낸 태양이 거물거물거린다.

진혁은 전화통을 내동댕이치다싶이하고는 구울듯이 철계단을 내려 지하폐수장으로 들어갔다.

교예극장처럼 허렁청한 원형지하폐수장에서는 타르같은 원유폐수가 부글부글 소용돌이치었다. 그 한켠에는 대낮에도 희누런 조명이 비치는 개인용 욕조크기만한 미생물배양시험장이 있다. 폐수정제공 로성묵이 그앞에서 시험관에 넣은 원유배양균을 불빛에 비쳐보고있었다. 진혁은 곧장 그한테로 다가서며 분을 터쳤다.

《또 벼락이우.》

《...》

로성묵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터실터실한 입술을 뿌주룩히 내밀고 시험관을 여념이 없이 들여다보고있었다. 평시에는 선잠깸듯이 뿌연 그의 눈빛이 그 무슨 불꽃을 튀기며 번뜩이었다.

(자, 이런 샘플스러운 꼴 봤다.)

진혁의 끓는 분기는 끝내 발치앞에 놓여있는 빈물통을 걷어챘다. 물통이 벽에 부딪치며 와당탕거렸다. 그제야 로성묵은 눈시울을 습벅이며 진혁이를 돌아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색의 그림자인 그 열정의 광채가 그냥 남아있었다.

《왔나 진혁이, 이것들이 말이야, 간밤부터 활동이 아주 극성스러워졌네. 분명 먹이물을...》

《잘은 알고있수. 현장에 냄새가 퍼진다는데.》

《뭐-》

로성묵이 밝아지려던 입귀에 가는 주름이 잡히며 목소리를 삼켰다. 의혹과 자책의 빛이 한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떨어졌다. 그는 황급히 폐수가스농도 측정계기를 들여다보았다. 계기바늘이 표준한계계선에서 알릴듯말듯 벗어나 파르르 떨고있었다. 로성묵은 하던 일을 대충 거두고는 껌두룩한 키를 약간 구부리고 통풍기실로 뛰어갔다. 늘 꾸부리고 앉아 미생물을 관찰하는탓인지 바지무르락이 혹처럼 볼록 쳐들린 두다리가 얼씬거리었다. 인츰 통풍기실에서는 세찬 전동기음향이 퍼지며 신선한 대기를 생산현장쪽으로 몰아갔다.

생산현장으로 통하는 구내길목에 자리잡고있는 지하폐수장은 진혁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것은 폐수처리가 제품생산으로 빛을 내는 일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 사정이였다.

한해전에 여기 폐수장에 배치된 진혁은 이 작업장에 도저히 익숙할수가 없었다.

하는 일은 또 얼마나 시시부렁하고 한적한가.

늘 미생물에만 정신이 팔린 로성묵인 로성묵이와 옷층 관측실에서 폐수준위를 감시하는 오령감, 자기까지 도제 셋인 그들의 일이란 고작 기름이 섞인 폐수를 여러층으로 된 자갈과 모래려파기를 통과시켜 기름은 포집하고 맑은 물만 바다로 흘러보내면 된다.

진혁은 누가 직종을 묻거나 무슨 문건같은데 적으려 할 때면 시뻘뻘해서 《폐수정제공》이라고 할 대신 《자동화운전공》이라고 한다. 만약 이보다 더 멋있는 직종이 있으면 서슴없이 그렇다고 대답할판이었다.

그래서 진혁은 며칠전부터 남모르게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를 실현시키고있었다. 폐수장둘레에 높은 울타리를 쳐서 여기를 막아버린다면 가고오는 사람들이 보는데서 창피스러운 얼굴을 가리울수 있을것 같았다. 오늘아침 직장장의 꾸중만 놓고봐도 다 외진 변두리에서 남들의 뒤겨두매질이나 하기때문이라고 생각되었으며 울타리로 막아버릴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판자와 기둥감을 부탁해둔 제재소를 찾아 다시 밖으로 나오려고 서둘렀다.

그때 폐수준위감시공 오령감이 철계단을 흔들며 내려오고있었다. 오랜 기능공인 오령감은 지난해부터는 옷층 폐수관측실에서 전화통을 끼고 정제되지 않은 폐수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며 알려주곤한다.

진혁은 가끔 지루하고 한적한 폐수정제일에 불만을 터뜨릴 때면 오령감은 《이녀석아, 조용하고 북이우지 않는게 좀 좋냐.》하며 핀잔을 한다. 한생을 여기서 살아오며 만사를 꿈만하게 대하는 오령감의 늘어진 성미를 볼 때면 진혁은 자기의 장래도 그렇게 무뎡하게 될것 같아 서글퍼지었다.

가는 피줄이 그물처럼 덮인 오령감의 불깃한 한쪽볼을 공기창으로 흘러드는 해살이 쓰다듬었다. 오령감은 철란간에 붙어서며 몇번 군기침질을 하더니 허여스름한 눈섭을 연신 꺼벅거리며 폐수장을 내려다보았다. 그 윤기없는 눈자위에는 시름없는 빛이 서려있었다.

《이사람 성목이, 전화를 받게.》

오령감이 통풍기쪽에 대고 늘어붙어있다.

(흠, 또 육사발인가?)

진혁은 울화가 끓을거리었다.

《허 저사람이 또 귀를 동냥보냈나. 이 사람아, 전화!...》

채삼 소리치려던 오령감이 목에 담이 걸려 킁킁거렸다. 무슨 생각에 흠뻑있던 성목은 후닥닥 깨어나며 자신을 두고 화를 내었다.

《아, 알겠수다. 이런 제길... 진혁이, 통풍기조절을 봐주게.》

《전환 받지 말라요. 또 통풍때문일게우. 공연히 기분잡쳐요.》

《그까짓 기분이야 뭘.》

로성목은 랑입귀에 주름을 지으며 병긋 선한 미소를 그었다. 그는 바지무르팍이 불룩 나온 두다리로 성큼성큼 철계단을 밟았는데 신발뒤축이 바깥쪽으로만 닳아서 츠르러진 가죽구두가 진혁의 눈을 시큰하게 찔렀다. 그는 하루에도 몇수십번이나 저렇게 철계단을 오르내린다.

사람이 성실하고 무던하여 한때 미모의 처녀와 혼사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직업때문에 튀었다고 한다.

생활은 사람이 좋고 무던한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모양이다. 그를 초월하는 그 무엇을 요구하는것 같다. 무얼가? 직업? ...하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자리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빛갈을 상실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한적한 기슭에 그 무슨 기쁨이 있어 쓴것도 저렇게 수걱수걱 받아들일까? 몇해째 연구시험한다는 미생물때문일가.

폐수속에 냄새를 뽑는 원유짱지를 지금처럼 모래려파기로 정제하거나 통풍기를 돌려서 정화시키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오수물을 먹어버리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면 원가를 적게 들이고도 티없이 맑아진다고 한다. 허지만 진혁은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였다. 어쨌든 자기는 《폐수정제공》을 때벗이 못할것이며 영원히 여기에 남아있을것이기때문이었다.

요전날 오령감이 성목이 없는틈에 미생물육조안을 들여다보며 진혁이한테 너스레를 떨었다.

《허어, 이 벌레들이 명물이야, 이것들이 정녕 여길 신성하게 만든다면말일세.》

《아바인 믿어요?》

《하기야 예전에 공장에서 한다하는 기사도 미생물이 추세요하며 몇달 여기 와서 역사질을 하더니만 두손들고 줄행랑을 뺐지. 산이 올면 들도 운다더니...》

오령감이 저속 실망하여 말끝을 흐리는데 어느결에 나타난 로성목이 싱긋 웃으며 받았다.

《정말 산도 울고 들도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목은 오령감과 진혁이한테 폐수의 생화학적 처리방법에 대해 열정적인 손세를 써가며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에 그의 눈빛과 표정은 인츰 열기를 띠며 어떤 정신적 희열의 지배를 받고있었는데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흥미있는 사람이 없는듯한 만족에 취했다. 성목의 그 모양을 넋놓고 바라보던 오령감은 《임잔 마치 하늘 신선들과 말하는것 같군.》하며 신비로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진혁은 문득 이 사람이 로총각신셀 면치 못하리라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진혁이한테는 그런 생각을 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며칠전에 진혁은 오령감을 통하여 성목의 련애 관계를 알게 되었다. 언제인가 성목은 오령감의 소개로 한 처녀를 만나보기로 약속했던것이다. 그런데 그날 성목은 처녀를 만나야 할 시각에 부실하게 죽어가는 미생물들의 결을 떠날수 없었다고 한다. 오령감은 일생대사를 벌레의 죽음과 바꿨다고 지독스레 나무랬지만 후날 달뜨는 밤에 처녀를 열려서 다시 성목이와 마주 세웠다.

그러나 이번엔 성목이쪽에서 배척할줄이야... 오령감은 그때 일을 생각할 때면 너무 기가 차서 자주 이런 말로 허를 찼다.

《...그 달밤에 글썄... 처녀가 성목의 직업을 알게 되자 한숨을 내쉬었다지 않겠나. 처녀들이야 제 몸을 맡길 임자를 정하는판인데 직업을 가지고 금새를 저울질할법도 하지, 그렇다고 사내녀석이 그 자리에서 돌마설건 뭘겠나. 귀맛도는 아무 직종이나 주어섬기고 불판이지. 넌장, 샘을 곁에 두고 목말라 죽는다더니 원.》

진혁은 성목이를 대할 때마다 오령감의 그 말이 떠오르며 사나이자존심을 다는 잃지 않은 그 성미에 동감은 하면서도 어딘가 빈약한자의 어리석은 허세갈기도 하여 코웃음이 나갔다.

(흠, 속은 살았거던.)

진혁은 씹스레 웃으며 웃음을 올려다보았다.

《... 어디라구요? ... 수산자원연구소요...》

마침 로성목이 전화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혁은 좀 어정쩡해졌다. 분명 직장장이 후려치는줄 알

았는데 똥판지같이 수산자원연구소라니? ... 진혁은 귀를 기울이었다.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생산현장쪽에서 경쾌한 나팔소리와 북소리가 터졌다. 뒤미처 격동적인 현장방송이 찢렁찌렁 울리었다. 경제선동대가 월말생산에 진입한 현장을 고무하고있었다.

진혁은 옷충바깥철계단으로 뛰어올랐다. 탭과 탭으로 짝찬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붙어서 일판을 벌리고있었다. 그들은 저마끔 성수가 나서 들썩거리는것 같았다. 진혁은 불쑥 자신의 한적한 처지가 역스러워져 다시 계단아래로 돌아섰다. 여전히 나팔소리가 그의 머리와 잔등을 두드렸다. 무겁게 드리웠던 폐수장의 고요는 삽시에 산산조각이 나며 뚫어번지는 소음의 여파로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2

《진혁인 혹시 여기다 올라리를 치려고 그러잖아?》

로성묵은 노란 지게차에 널판자를 가득 싣고 들이닥치는 진혁이한테 다소 의아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간밤을 또 새운 광택없는 그의 눈에는 피로와 고뇌의 그림자가 영커붙어있었다. 진혁은 감쪽같이 하려던 일이 첫 시작에 띄운것이 마뜩잖아 먼산을 쳐다보며 비뚤어진 소리를 하였다.

《글쎄요. 사람들이 보는데서 일하는것이 재미있다면야 올라리가 필요없겠지요.》

《진혁인 학교때 뿔을 찼다지. 기동선수였다면서 ... 어떤단가? 구경꾼들이 많을수록 공차기가 신바람이 나지 않던가?》

《거야 물론이지요.》

진혁은 생똥같은 물음에 수궁하면서도 눈알이 데룩해졌다. 가슴 밑바닥으로는 잠들고있던 세찬 감회가 불쑥 치밀며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의 표정은 돌연 기쁨과 환희로 확 펴일듯하더니 인츰 꺼져버렸다. 뿔과 기동선수란 이 말은 그의 열정이고 금지이면서도 고통이기도 하였다.

그는 중학시절에 인기있는 축구선수였다. 언제나 공격서열의 복판에서 《슛》을 조직하는 기동선수로 맹활약하였다.

복판, 기동, 맹활동... 이로 하여 수만관중의 가슴을 일시에 움켜잡고 멋대로 휘둘러수도 있었으며 승리와 영예의 절정우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의 젊음은 타성은 어언 이 세 단어를 뗄수 없는 하나의 완성된 유기체처럼 리해하였으며 생활의 복판에서 기둥이 되고저하는 일념으로 굳어졌다. 때문에 그의 건똥 들린 거만한 이마밑에서 이글거리는 눈부리는 새매의 눈길처럼 항상 세상을 눈아래로 굽어보며 자신만만하게 번뜩이였다. 이 우월감으로 하여 그

는 때없이 감때스려왔다. 내심에서 살아 숨쉬는 《기동선수》와 《폐수정제공》이라는 부조화가 그를 무시로 괴롭혔던것이다.

그러나 로성묵은 진혁의 그 마음속 고통은 알지 못하며 말하였다.

《그것보게나. 누구나 많은 사람들앞에서는 훌륭해지려고 애쓰거던. 우리도 있는 그대로 사람들앞에 나서야지. 불만도 자아내고 욕도 듣노라면 더 채심할게 아닌가. 우리가 여길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 우린 영원히 생활의 기슭에 남게 되네.》

《중수다... 어디 실컷 구경거리가 돼봅시다.》

진혁은 또 비뚤어졌다. 널판자를 와작와작 밟으며 휴계실로 가던 진혁은 한자리에 장대처럼 서있는 로성묵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마침 저기 구경군이 하나 오누만요!》

진혁은 폐수장앞길에 새하얀 달린옷을 산뜻하게 입고 나타난 웬 처녀를 가리켰다. 그런데 놀라운게도 그 처녀를 더듬던 로성묵의 눈길이 허둥거리었고 낮색은 순식간에 달아오르는 양철난로처럼 자지빛이 되었다.

로성묵은 부자연스러운 자기 물결에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당황해서인지 열어제졌던 작업복웃단추를 바빠 채우려다 그만두며 안절부절하였다.

《알아요?》

《응? ... 그저 좀...》

성묵은 말을 더듬었다.

《말해봤어요?》

《말? 글쎄 뭐랄지... 자주... 자주 말하곤하지.》

진혁은 가까이 오는 처녀를 눈여겨보았다. 처녀의 하얀 얼굴과 물기어린 빨간 입술사이로 반짝이는 이발, 부드러운 어깨아래로 물결지어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굽높은 신발우로 미출하게 뻗은 두다리는 눈덩이같은 눈부신 달린옷에 반사되어 마치 고요한 밤안개를 금방 벗어던지고 온통 이슬로 반짝이는 봄날의 아침처럼 싱싱하고 상쾌하였다.

진혁은 성묵의 엉큼한 내심이 공감되어 피씩 웃었다. 오령감의 말을 들을 때는 성묵이가 처녀의 사랑을 얻지 못한줄 알았는데 저런 멋진 녀자를 마음의 벗으로 둔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혁은 처녀가 이쪽을 바라보자 슬쩍 성묵이를 건너다보았다. 성묵은 기름투성의 작업복처럼그대로 처녀를 맞받아 걸어가다가 유유히 지하폐수장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지하폐수장안에서는 썩- 페액이 소용돌이치는 소음이 새어나왔다.

성묵은 지금 처녀를 보는 순간 별안간 뛰노는 가슴을 주체할수 없어 폐수장 창결에 와서 멈춰섰다. 그는 자주 이 호젓한곳에서 흰비둘기(그는 처녀

를 그렇게 불렀다.)를 하염없이 내다보며 가슴을 설레이곤하였다.

성묵이가 그 흐릿한 달밤에 직업을 따지며 한숨짓던 첫 녀자와의 대면을 본격으로 끝마친 뒤에 있는 일이었다.

합박눈이 추덕추덕 내리던 지난 겨울 어느날, 현란한 무리등불빛이 부서져 쏟아지는 공장문화회관에서는 분기계획완수자들의 축하모임이 있었다. 성묵이도 혁신자의 한사람으로 뽑히어 무대우에 올랐다.

매 혁신자들의 로력적 성과와 위훈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지배인의 보고가 끝나자 뽕짝거리리는 주악에 맞추어 처녀들이 혁신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기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혁신자들의 맨열에 서있던 로성묵이한테는 꽃다발이 차례지지 않았다. 가뜩이나 오리무리에 흰목을 빼들고 서있는 왁새처럼 표나는데다 빈몸인 그를 보자 지배인은 물론 관중의 시선이 일시에 꽃다발 조직자인 회관 관장에게 쏠렸다. 그 눈총에 얻어맞은 관장이 어쩔바를 몰라할 때였다. 관중석 가운데자리에서 한 처녀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그는 맨 앞탁우에 주련이 놓여있는 향기로운 꽃묶음 하나를 골라들고 날렵한 동작으로 무대우에 올랐다. 일순간 조용해졌던 장내에 갑자기 떠날듯한 박수갈채가 터졌다.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처녀의 거동을 무심히 보고있던 성묵은 수집계 마주오는 처녀를 보고서야 불시에 가슴이 후두둑 뛰며 심장의 박동이 빨라졌다. 그는 눈앞으로 강렬하고 눈부신 빛줄기가 다가오는듯 아무것도 분별할수 없었다. 그는 다만 진한 향기로 숨막히던 생화목음과 마주잡았던 부드러운 손 그리고 한순간 확 피던 불꽃미소를 꿈결처럼 기억할뿐이었다.

성묵은 처녀의 숫저운 불꽃미소와 물기흐르는 광채로 반짝이던 눈동자를 상기할 때면 웬일인지 온몸이 녹작지근해지며 그 눈속으로 한정없이 기여 들어가곤하였다. 때론 자기가 잡았던 그 녀자의 부드러운 손의 감촉에 젖어 지그시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면 가슴속 깊이 깊은곳에서는 이슬돋는 소리갈기도 하고 방울을 굴리는 소리갈기도 한 한없이 다정하고 살뜰한 음향이 심혼을 깨운다. 그의 몸은 천천히 정열의 불길에 휩싸여 그지없이 따뜻하고 숨막히는 환희가 심장에 가득차올라 여름달빛이 누비는 가없이 펼쳐진 들판길을 흰비둘기와 함께 거닌다. 그럴 때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갖가지 들꽃향기에 취해서인지 그의 넋은 열정으로 타오르는 입김을 날리며 흰비둘기와 끝없이 속삭인다.

《동무는 지금 무엇을 ... 무엇을 생각하오?》

성묵은 이렇게 물었으나 처녀는 그가 더 요긴한 것을 듣고싶어한다는것을 눈치채고 례의 그 넋을 태우는 불꽃미소를 짓는다.

《아직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

성묵은 그지없이 서운했으나 마음속으로는 환성을 지른다. 아직은...아직은 희망을 간직할수 있기때문이었다. 성묵은 티없이 깨끗한 미소로서 자기를 리해해주고 축하해주던 처녀를 숭고하고 값높이 상상할수록 그에 대한 련정은 더욱 끓어올랐다.

지금 성묵은 빛을 발산하는 등불처럼 길다란 그림자를 끌고 걸어가고있는 처녀의 황홀한 자태를 넋없이 바라보며 마음은 또다시 방울을 굴리며 말하고싶어졌다. 성묵의 그 심정을 알아맞혔는지 줄곧 눈앞만 보며 폐수장앞을 지나가던 처녀의 얼굴이 얼핏 이쪽으로 돌려졌다. 성묵은 후두둑 뛰는 가슴을 창턱에 지그시 눌렀다. 그런데 오늘은 처녀의 얼굴이 찌프러져보였다. 성묵은 문득 자기의 실책을 깨달았다. 방금전에 자기가 폐수장문을 채 닫지 못하여 아린내가 새어나간것 같았다. 성묵은 얼른 뛰어가 열려진 문을 꽁 소리나게 닫았다. 그다음은 처녀가 사라진쪽을 당연히 보며 뇌이었다.

《안됐소, 안됐소. 이제... 여기도 맑아질거요.》

그는 이 대답을 쉽게 해서 안된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거기에는 이루 헤아릴수 없는 탐구와 고심이 남아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 자기가 처녀뿐만아니라 사람들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이 들었다.

(그래 필요하구말구.)

이 류다른 기쁨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바다가에 갔을 때 해빛이 은구슬로 부서지는 해변의 금모래불에서 뒹굴 때처럼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것 같기도 하고 여름날 해질무렵 진한 향기와 새들의 지저귀음으로 가득찬 숲속의 록보석같은 잔디밭을 맨발로 걸을 때처럼 평온과 안식의 애무로 온몸이 흠뻑 젖어들게도 하였다.

성묵은 자기에게 다함없는 열정과 지혜를 주며 피로한 심장을 억세게 고동치도록 하는 이 따뜻한 마음을 안고 그날 스물두번째의 미생물적응시험을 하였다.

아메바성미생물의 원균을 육성하여 폐수에 적응시킨다. 그 미생물들이 폐수속에 있는 기름깡지와 오수를 먹고 분해하도록 해야 한다.

로성묵은 3년째나 실패를 거듭하고있다. 아직 미생물의 증식과 육성에 가장 알맞는 몇가지 인자를 찾아야 하였다. 며칠전에 그는 미생물의 필요영양원소중 《x-5》라는 미량원소를 더 첨가하여 새로운 활성수치를 얻었다. 지난밤에 최대로 활성화된 미생물을 관찰한 그는 비상한 흥분속에서 이 하루를 보내었다. 그런데 아직 왕성해야 할 균들이 저

너넬부터 활성화력이 시들해지더니 차츰 보이지 않았다.

성목의 심장은 벌써 불안스레 뒤설레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금시 박동이 멎어버릴것 같은 공포에 쫓기며 시험육조안을 헤집어보았다. 육조바닥에는 감탕같은 침전물이 생겼는데 그것은 균들이 죽은 시체였다. 그무렵에 전화심부름을 내려왔던 오령감이 흠뻑이 된 성목의 얼굴과 시꺼먼 육조안을 번갈아 살피더니 굳기침질을 해댔다. 로성목은 전화를 받을 맥이 없어 오령감한테 부탁하고 콩크리트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창너머 멀리 이깁나무숲말기에서는 저녁해가 숨박꼭질을 하고있었다. 그 저쪽 아득한 하늘공간에서는 피빛같은 노을이 퍼지며 나무우듬지들을 불태웠다. 그속으로는 빨간 불덩이가 된 이름모를 새들이 보금자리를 찾아 깃을 접고있었다. 성목은 갑자기 춥고 오한이 났다. 파스한 구들목에 누워 세상모르고 자고싶었다. 돌연 그는 부질없고 의미도 없는 일에 한생을 바치는것이 아닐가 하는 허탈로 하여 현존중 비슷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실패와 절망으로 서글피 타오르는 그의 눈앞으로는 낮익은 얼굴들이 수없이 떠오르며 자기를 비웃어댔다. 이때 성목은 자기결로 흰비둘기치녀가 시름없이 방글방글 웃으며 지나가는것 같았다. 성목은 전류에 닿은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것은 환각이었다.

(아, 왜 허공만 잡힐까?... 정말 고생을 사서 하는것인가...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 오아바이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열렬하지도 않게 사는것이 편하지 않을까... 그도 한생을 여기서 살아왔지, 부족함을 모르고, 그건 그의 잘못은 아니다. 어쨌든 여길 지켜왔으니깐... 허지만 그렇게 사는것은 두렵다. 창조가 없어야 사람들을 위할수 없지. 어차피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걸 봐야 즐겁거든. 산다는것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때이니깐... 그런데 정말 이 단세포생명체가 끝없는 비밀을 품었을까... 우주와 같이... 단세포와 우주라?...)

《자네일도 참...》

한대 말아붙인 오령감이 성목이를 지글썩 비껴보며 담배연기를 후 내뿜었다.

(우주... 무한대... 그럴수야 없지. 지난밤엔 활성이 참 좋았는데... 무엇때문일까?...)

로성목의 침침하던 눈빛은 다시금 소원과 희망의 불꽃으로 피어올랐다. 그는 물먹은 솜처럼 잦아드는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복잡했던 시험과정을 더듬어갔다.

《이사람, 성목이. 여기가 어쨌대구 자꾸 그 고생인가, 글썩 젊은이들 눈에야 이 일터가 허물이 보이겠지만... 여긴 원래 그렇게 돼먹은걸세. 원래부터 말이야... 난 그래도 한뼘 여길 지키덕에 혼장도 타

고 메달이랑 받았네. 명절날 그걸 앞가슴에 주렁이 달면 자손들한테 할 소리도 생기구... 지배인어른도 먼저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를 해준다네... 마음을 누그러 앉히게나.》

오령감은 다심스레 말하고는 느직느직 자리를 떴다. 진혁은 오령감의 그 달콤한 말투와 거동이 오늘따라 더 밍광스러웠다. 그 무슨 알뜰한 보금자리나 차례진듯이 혼계하는 오령감의 말마디가 고리타분하여 속이 뒤틀려졌다. 그는 참을수 없어 성목의 결로 다가서며 나직하나 무게있게 입을 열었다.

《다르데 가서 그렇게 피를 뚫어보라요. 영웅이 됐을지 알겠수.》

성목은 아무 대꾸없이 눈앞의 한점만 응시하며 시험과정에 몰혀있었다.

(온도는 섭씨 25도를 보장했었지. 폐하는 분명 산성이 아니라 알카리성으로 기록됐거든. <X-5> 미량원소함량은?...)

《납시줄에 미끼가 좋은들 쓸데있수. 납시터를 잘 골라잡지 않으면 그만인걸요.》

진혁은 점차 격해지며 풀떡거리었다.

(<X-5>비율이라... 모자랄수도 있다. 그걸 당장 또 어디 가서 구한다?... 새롭게 제조할수는 없을까?...)

《헛, 이따위 외판데서... 한뼘 <썰기>질이나 하겠수. 기둥이 돼야 하우. 기둥이... 기둥이야 복판에만 세우잖수... 참 내 말을 듣수?》

《...》

진혁은 입이 쓰거워 물이 담겨있는 물통을 건어차며 계단을 짚었다. 그가 폐수관측실에 들어서니 오령감이 어디서 오는 전화인지 반느라고 목을 빼들고 땀을 흘리고있었다.

《너 마침 왔구나. 였다. 도과학기술련맹이라구 하는데 누굴 찾는지 통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과학기술련맹이요?... 여긴 그런데서 찾을만 한데가 아니라구 해야지요.》

진혁이 심사가 비틀린대로 뻗으며 전화를 바꾸려는데 어느새 출입문에 나타난 로성목이 급히 다가와 먼저 송수화기를 잡았다.

《제 성목입니다... 네... 정확히 서른한시간만에 침전됐습시다. 원인은 <X-5>비율에 착오가 생긴것 같습니다... <X-5>원천말입니까?... 여기서 탐구해보겠습니다...》

진혁이와 오령감의 눈길이 약속도 없이 서로 마주쳤다. 심술스럽던 진혁은 갑자기 열적어졌고 오령감의 윤기없던 눈빛이 《허, 별일이군.》 하며 밝아졌다.

3

《진혁이, 진혁이, 빨리 와주게.》

한손에 먹이통을 든 로성목이 미생물육조안을 확대경으로 관찰하며 다급히 찾았다. 통풍기전동장치를 점검하고있던 진혁은 시뻘뻘하여 다가왔다.

《산소변을 열어주겠나? 이제부터 온도를 일마간 낮춘 상태에서 고찰해야겠네. 산소조절을 끝까지 봐주게나.》

진혁이 굼뜨게 움직거리자 성목은 야릇한 흥분으로 떨며 재삼 다가서었다.

《뛰어주게. 이 생명들이 시간을 다투네.》

어느때 같으면 그런 잔소리에 왈칵했을 진혁은 성목의 애절한 낯색과 이마전에 흐르는 땀줄기를 보고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기름이 얼룩진 콩크리트바닥에 미끌리며 산소발브쪽으로 반달음쳤다.

스물세번째의 이번 시험은 또 어떤 결과가 빚어지려는지... 로성목이 저렇게 열띤걸 보면 종점에 닿을듯도싶다. 그러면 폐수장에 떠돌던 알싸한 냄새마저도 없어져 여기도 싱그러운 대기와 푸른 하늘이 열릴것이며 태양은 금빛 눈동자에 미소를 담고 반짝일것이다.

진혁은 보다 가치가 있는 기술개건에 자기도 한몫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마음싸게 즐겁지는 않았다. 그의 심장과 궁지는 어디까지나 생활이 끊는 복판의 기둥으로 살고싶었다.

진혁이 산소발브를 조절해놓고 돌아서는데 머리우에서 오령감의 소리가 떨어졌다.

《이사람 성목이, 참 답답도 하이. 통풍기를 세웠나? 도대체 그건 뭘다 국을 끓여먹을려나. 또 직장장이 부어오른것 같네.》

오령감이 근심스레 말하였다.

로성목은 확대경에서 눈을 떼었다. 미시세계를 헤매이며 열기로 번뜩이던 그의 눈자위에는 그늘이 내려앉았다. 성목은 잠시나마 기본임무를 망각한 후파를 걱정하는듯싶었다.

진혁은 얼른 가스농도측정계를 살피었다. 그런데 바늘이 허용한계를 넘기지 않고있었다.

《넌 왜 채심하지 않냐? 성목이만 자꾸 육보잖냐.》

오령감이 이번에는 진혁이한테 찢 눈을 흘겼다,

《젠장, 뭐가 어쨌다구 또 성화란말이우.》

진혁은 뺨이 꿈틀하였다. 오늘은 숨한번 크게 쉬지 못하며 뛰고 달려도 결체이기만 한다.

《하던 일을 계속하우. 내가 처리할테니.》

어지간히 달아온 진혁은 단숨에 두세계단씩 뛰어오르며 폐수관측실에 들어섰다. 진화통을 들자 기다렸다는듯 직장장의 궁근소리가 진동판을 울렸다.

《너, 진혁이구나. 그래 시험은 어찌 됐냐?》

(시험? 이젠 또 육사발의 머리말인가?)

《이녀석, 너 대답 못하는걸 보니 쓴외보듯한게 구나...여기선 오늘 이달생산 장훈을 쳤다. 장훈을

말이다. 이제 혁신자축하대렬이 거길 지나갈게다. 평양에서 내려온 배우들의 목마에 실려서말이다. 맑은 기분들이 상하지 않도록 계기들을 잘 살피라.》

진혁은 뜻밖에도 직장장이 허분허분 말하는바람에 뒤끓던 흥분이 멎적어졌다. 할말이 숨슴해진 그는 오히려 직장장의 말을 되뇌이였다.

(뭘, 장훈을 쳤다. 혁신자축하대렬이 지나간다? 배우들의 목마를 타고...)

순간 진혁은 해사스럽던 한 얼굴을 상기했다.

그 얼굴은 분명 요전날 방송차를 타고 이 길목을 지나가던 배우의 모습이었다.

그날 기름딱지가 되어 바깥에 있는 대형폐수발브를 비틀며 안간힘을 쓰던 진혁의 곁으로 파란 방송차가 그 무슨 서정적인 바이올린독주곡을 울리며 천천히 지나갔다. 방송차안에는 중앙에서 경제선동을 온 배우들이 타고있었는데 유독 한 녀배우가 차창밖으로 새물거리며 진혁이를 향해 화려한 꽃다발을 흔들어주었다. 진혁은 얼른 머리를 구겨박았지만 눈굽이 저릿해나고 가슴이 더워졌다. 해종일 가야 누구한번 머리를 들이밀지 않는곳이고보면 그런 정도의 인사치레도 침침한 움속의 한줄기 햇빛처럼 그리웠던것이다. 그러나 진혁이가 다시 허리를 펴는데 방송차유리창이 바람에 탕 닫기며 녀배우도 꽃다발도 보이지 않았다. 방송차는 그의 얼굴에 매캐한 배기가스를 확 들썩워놓고는 생산현장으로 사라져버렸다.

(흥, 나를 외면해. 천만에. 내자리도 그 복판이야, 거기!)

진혁은 행악을 쏘으며 억지스레 자기를 달래었다. 그러나 모멸의 고통은 조금도 개운치 않은채로 그의 살속에 배어들었다. 진혁은 바로 그때의 그 찢르는듯한 아픔이 되살아났으며 이번에는 축하행렬까지 한데 엉켜 돌아가며 그를 못견디게 자극하였다.

그런데 그 고통이 가슴을 허빌수록 그의 자존심은 더 높이 차올랐다. 마치 짓누를수록 더 세차게 반발하는 용수철처럼 자기 《존엄》을 지키려는 그의 피는 혈관속에서 분류로 솟구치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였다.

그는 분연히 계단을 뛰어내려가 샴을 찾아들었다. 그리고는 구내길과 잇닿은 폐수장앞에 구덩이를 파나갔다. 숨을 헐떡이며 순식간에 여러개의 구덩이를 파제낀 그는 바람벽에 쌓아두었던 울타리기둥을 거기다 세우고 메자루를 휘둘러댔다. 그는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복관생활》은 자기에게 모욕을 주는것으로 리해하였으며 때문에 그 모든것과 자기를 격폐해버리고싶은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욕망을 걸잡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얼마간 정신없이 말뚝을 박아나가던 그는 아귀
센 손이 메자루를 잡는통에 균형을 잃고 비칠하였
다. 등뒤에는 로성목의 아연한 눈길이 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정 이러긴가. 진혁이. 누가 보기 싫어 이러
나?》

《뭐든지 다 싫소. 시끄럽단말이우.》

《그래서 울타리속에 들어앉아 세상과 결별하겠
단말인가 달팽이처럼.》

로성목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떨렸다. 그는
고집스럽고 뿌다구진 어린 친구의 가슴을 들여다보
며 한숨을 길게 내그었다.

《진혁인 고생대생물이었던 달팽이가 어쩌서 2
억 5 천만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한모양대로
있는지 다 모를지야. 판판하고 두터운 각질로 된 갑
속에 들어가있다나니 지각변동과 우주선들의 작용
에 민감할수 없었거든... 우리가 제 허물을 감추고
내놓기를 두려워한다면...또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
러갈지 알겠나.》

《까짓것 흘러가라지요.》

진혁은 울음섞인 소리로 내쏘았다. 그러자 로성
목의 주름잡힌 입귀가 바르르 떨더니 《무-어?!》
하며 이세로는 약간 신음하는듯한 입김이 새어나왔
다. 그의 눈언저리에는 먹구름같은 어둠이 서서히
퍼지며 시꺼먼 눈섭밑에서 날카로운 빛이 얼씬거렸
다.

《그래 여기에 울타리를 치면 자기를 지킨다고
믿나? 그런 생각을 품은 자네가 설사 못사람의 눈
길이 쏠리는 벅찬 일터에 간다고 해서 생활의 복판
에 서게 될것 같나? 자네는 여전히 외로운 기슭에
남게 될걸세. 생활의 복판은 바로 이 가슴속에 있
네!...》

《?!》

진혁은 마른벼락을 맞은듯 그자리에 굳어져버
렸다.

그는 폐수장쪽으로 멀어져가는 성목의 잔등을
열없이 바라보았다.

이럴즈음에 폐수장결에 혁신자축하행렬이 나타
났다. 햇빛에 번쩍거리는 금관악기들이 환영곡을
터쳤다. 성목이네를 응원하는 소리였다.

나팔소리, 북소리, 웃음소리, 말소리...폐수관측
실을 에워싼 환영곡의 음향에 파아란 하늘이 흔들
가사

거리고 목화송이구름이 등실거렸다. 관측실 주위는
삽시에 떠들썩한 음향과 다양한 빛갈, 금가루같은
해빛으로 뒤끓으며 설레었다. 그 활기찬 물결이 지
나가자 진혁의 가슴은 기쁨을 뿌린듯 확 타오르며
숨을 꼭 메웠다. 한뼘을 따라 도도히 굽이치는 줄기
찬 거류가 자기를 한적한 기슭으로 탁 뿌려팽개치
며 용용히 흘러가는것만 같았다. 그는 별안간 번디
디고 선 자리를 잃은듯 다리가 휘청거리었다. 땅이
비좁아들었고 하늘도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진 그는 갈곳을 몰라 한자리에서 허
둥거리었다. 이때 가슴속 밑창에서는 돌연 미지의
목소리가 《네가 무엇에 소용되느냐. 누가 너를 요
구하느냐?》고 웨치며 그의 흉벽을 잡고 흔들었다.
그는 얼음같이 차디찬 전율을 느끼며 처음으로 자
신에 대한 의혹으로 몸을 떨었다.

격류로 끓는 시대는 필요한 몫을 가지지 못한
그를 망각하였다. 그리고 지푸래기처럼 끝없이 공
허하고 외진 무인도의 기슭으로 떠밀어버렸다. 그
는 숨막히는 이 고독이 생활의 지평점을 잃게 되는
그 시각에 찾아온다는것을 아직 다는 알수 없었지
만 미구에 그의 두눈귀로는 연물같이 무거운것이
질적히 흘러내리었다.

시공간을 잃어버린 정적이 얼마간 흘렀다. 고요
하고 투명한 대기를 뚫고 여름날의 연보라빛 황혼
이 소리없이 나래를 폈다. 새들의 우짖는 소리가 어
렴풋이 들릴뿐 나무잎을 꼬드기는 미풍도 자취를
감추었다.

무엇인가 터졌으면싶은 바로 그 시각에 진혁의
등뒤에서 철계단 밟는 소리가 고요를 흔들더니 오
령감의 거렁한 목청이 들려왔다.

《이사람 성목이, 이번 시험을 또 망쳤다면
서?... 자네일도 참... 원래 그렇게 돼먹은걸 가지
고... 그런데 또 시험을 시작할 잡도린가. 고집두 윈
... 참 지배인이 자넨 찾네. 이런 성화라구야. 당장
전화통을 들어다 이젠 임자가 건사하게나. 사방에
서 전랑 임잘 찾는것뿐이니 윈...》

오령감이 성목이에게 또 무어라 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폐수관측실로 들어갔다. 진혁은 그 말
을 되새기며 오래도록 그자리에 서있었다.

파발리의 총소리

리효운

압록강 거센 물결 헤쳐오신 그 자욱
후치령 굽이굽이 꽃으로 피었네
김형권선생님 올리신 총소리
삼천리강산을 흔들며 울려갔네

동해의 해돋이를 한가슴에 안으시며
혁명군 이끄시고 진군해오셨네

삼천리 조국땅의 아픔을 새기시고
이 나라 겨레들을 투쟁으로 부르셨네

장군님 높은 뜻을 충성으로 받드신
그날의 총소리 오늘도 들리네
조국의 광복위해 한생을 바치신
선생님 붉은 뉘은 영원히 살아있네

우리의 축전무대

- 《4 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외국의 한 예술인을 대신하여-

박세일

실버들 푸르른 대동강 기슭
이제는 친숙해진 대극장무대에서
우리는 또다시 열싸안았다
뜨거운 악수와 포옹
높이 잡아흔드는 손과 손...

반갑다 !
벗이여, 형제여
나는 사하라사막을 지나
아프리카땅에서 먼길을 다시 왔다
그대는 로마의 이름난 가수
한그루 야자처럼 늘씬한 저 너인은
인디아양을 건너온 섬나라의 무용수...

이번에 새로 온 예술단인가
낯설은 얼굴들도 보이건만
안내원동무여
우리예겐 구태여 통성이 필요없다

우리 사는 나라는 서로 달라도
마음속에 높이 모신 어버이는 한분
자주의 이 시대의 태양으로 빛나시는
조선의 위대한 **김일성** 주석 !

아버지의 생일이면 어김없이
큰집을 찾아오는 자식들인양
해마다 4 월이면 우리는 이렇게
약속이나 한듯이 평양에서 만나거니

가수 아닌 사람도 평양에만 오면
가슴속이 온통 노래겠는데
하물며 우리같은 예술인들이야...

자, 부르자 우리의 노래는
《하느님》이 산다는 저 하늘보다
인간의 지위를 더 높이 세워주신
수령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어화등등-
춤을 추자, 우리의 춤은
수령님의 만수무강 바라는 마음들이
위도와 경도와 국경을 넘어
평양에다 펼쳐놓은 아름다운 꽃바다

우주공간에 차고 넘치는
흙모의 이 노래 시작은 어디
5 대양 6 대주가 환호하며 따라선
축원의 춤물결 그 끝은 어디...

세계가 마음 합쳐 준비한 축전
《4 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만 열린다고 생각지 말자
이 지구가 통채로 우리의 축전무대
감동 겨운 화폭을 련이어 펼쳐며
태양을 따라도는 회전무대 아닌가!

명제해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해나갈수 있습니다.》

김정일

당정책교양은 본질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도록 하는 사상교양사업이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을 철저히 옹호관철할 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집행자들이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며 그 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창작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문학예술창작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그 본질과 정당성을 깊이있게 인식시키도록 하는것이다.

당정책을 제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것은 우리의 혁명적 문학예술의 숭고한 사명이며 본질적 특성이다.

당정책을 제때에 기동적으로 반영하여야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본질과 정당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게 할수 있으며 그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예술영화 《보증》이 그대로 당정책을 반영한 영화로 될수 있었던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이 영화에서는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 풀자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그대로 받아물고 당정책을 적극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 당 군중로선의 본질과 정당성에 대한 참다운 예술적 화폭으로 되었다.

예술영화 《보증》의 경험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매 시기 당이 내세우는 정책적인 문제들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정확하고 진실하게 반영할 때 그 작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정책교양의 위력한 수단으로, 무기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을 훌륭히 창작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되는 주인공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은 우리 당 정책의 본질을 옳게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정책집행과정이자 곧 혁명투쟁과정이다.

당정책은 그 관철을 위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창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 주인공들의 영웅적 투쟁과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과고들어 그려야 한다.

《평양시간》과 《생명수》, 《뜨거운 심장》 등 소설들과 《군당책임비서》와 《보증》, 《이 세상 끝까지》와 《언제나 한마음》과 그 속편들 등 영화의 주인공들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우리 문학예술이 창조한 현실주제작품의 주인공들은 레외없이 다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나선 참다운 시대적 전형이었다.

그들은 어렵고 간고한 속에서도 그리고 평범한 날에도 오직 당정책을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그 관철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몸바쳐 싸웠다.

우리 문학예술은 당정책에 대한 이런 견결한 옹호정신, 그 관철을 위한 완강한 투쟁정신을 지닌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전형을 다양한 측면에 걸쳐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조할 때 진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정책교양의 참다운 교과서로 될수 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전술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속있게 반영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조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더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영생의 언덕에서

김원애

한걸음 옮기고 깊은 생각에 잠기고 또 한걸음 옮기고 뜨거워지는 눈을 습벅이고...

승엄한 감정에 젖어 차마 성큼성큼 걸음을 옮길 수 없다.

김혁, 차광수, 리광, 리순희, 박길송...

충성의 화신으로 이 가슴속에 새겨진 그 모습 여기서 보게 되는 감격때문인가.

항일혁명투쟁의 길에서 선혈로 물들이고 떠나간 혁명렬사들, 그 시련의 시기에 장렬한 최후를 마친 그들에 대한 경의의 감격때문인가!

금시 떠나간 전사가 되돌아와 안기기라도 한듯, 생전의 다정다감한 전사들의 모습 방불히 떠오르듯 이름도 부르시고 얼굴도 그려보시며 여기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내 지금 가고있는것이 아닌가.

피어린 항일혈전의 길에서 열혈청춘을 바쳐 싸우다가 떠나간 전사들을 붉은 기폭에 감싸안으시고 진정 죽어서도 영생의 모습으로 온 나라가 바라보는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시고 만사람의 경의를 받도록 해주신 한없이 숭고한 그 사랑 가슴가득 물결쳐온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숭고한 혁명적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에 새겨진 사랑의 글발이 뜨겁게 안겨온다.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당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김 일 성

1985. 10. 10

그 이름만 불러도 눈앞에 떠오르는 혁명투사들의 한생은 직위나 명예로 하여 그렇듯 빛나는것이 아니다.

혁명전사의 생명이며 빛이며 의지와 신념, 행복의 요람이며 어버이품인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떠나 그들이 어떻게 이렇듯 크나큰 영광의 자리에 서있을수 있으랴.

혁명선렬들과 후대들의 뜨거운 숨결이 이어져 대성산마루에 펼쳐진 붉은 기발을 배경으로 서있는 투사들앞으로 걸음을 옮기는 내앞에 마동희동지와 장길부녀사의 반신상이 놓여있다.

만사람의 존경속에 나란히 서있는 어머니와 아들,

간고했던 항일혁명투쟁시기 남편과 아들딸, 머리를 모두 혁명의 길에 바친 장길부녀사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 끝없이시더니 오늘은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있으라고 여기에 나란히 세워주신 한없이 고매한 은정에 가슴이 찢어헤온다.

다시 발걸음 옮기면 친위전사의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앞에 서있는 김책동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화의 날, 사랑하는 전사를 잃으신 비통한 마음 달랠길 없으시여 돌아서시었다가는 다시 되돌아가시여 그 이름 몇번이나 부르시던 어버이수령님! 그 사랑에 받들리어 투사는 오늘날도 영생하고있구나. ...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여기에 서있는 렬사들모두를 이렇게 사랑의 품에 안으시여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항일투쟁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투와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치열한 싸움에서 한 전사를 잃은 애석함과 분함을 누를길 없으시여 한줄 쓰시고서는 붓을 멈추시고 또 한줄 쓰시고서는 전사의 이름을 부르시며 손수 추도문을 쓰신 위대한 수령님.

해방된 조국땅에 첫눈이 내리던 그날, 아직은 부모님께서도 이국땅에 누워계시는데 소리없이 내리는 눈을 보니 이밤에도 찬눈을 맞으며 이국땅에 누워있는 희생된 동지들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그들을 조국땅에 눕혀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겠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 세월을 넘어 메아리쳐온다.

그리고 눈앞에 떠오른다.

경사스러운 4월의 아침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축배잔을 올렸을 때 떠나간 전사들을 못잊으시여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던 숭엄한 그 영상!

이제는 떠나간지 반세기가 넘는 전사들의 이름을 다시금 불러주시며 살아서 영광의 대오속에 세워뒀던 전사들을 죽어서도 영생하는 대오속에 세워주실 때 장내에 차고넘치던 걱정회오리, 감격의 흐느낌소리 귀전에 울려와 이 가슴 세차게 뚫어번진다.

캄캄한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던 그 시절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민중의 열렬한 칭송을 받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공산주의적 인간애와 숭고한 혁명적 의리, 고매한 덕성을 지니고계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세월의 흐름속에 이제는 부모친척들도 혈육을 잃은 아픔이 사라져가고 간 사람의 모습은 희미해지고있으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더욱 숭엄하게 빛발쳐오고 있다.

그 빛발아래 얼마나 많은 혁명의 꽃송이들이 세월의 풍운에 묻혔다가 해와 별 빛나는 이 강산에 활짝 피어나 날마다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있는가. 세월을 이어 베풀어주시는 이 위대한 사랑이야말로 인간사랑의 정화이며 혁명적 의리의 결정인것이다.

한없이 숭고한 그 사랑은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대를 이어 더욱 활짝 꽃피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성산혁명렬사릉 개건확장공사를 몸소 발기하시고 그 전투를 친히 진두지휘하시어 여기를 혁명전통의 배움터로 혁명렬사들에게 안겨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리와 사랑의 기념비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참으로 대성산혁명렬사릉의 돌 하나, 나무 한그루, 대리석 한장에는 떠나간 전사를 못잊으시고 그

위훈을 만대에 길이 전하시려는 그이의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 의리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려는 철석같은 의지가 깃들어있다.

사랑은 대를 이어 !

충성은 대를 이어 !

성스러운 이 력사의 흐름을 타고 조선혁명은 주체의 혈통을 빛내이며 오늘도 자랑찬 승리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가고있다.

나와 동행한 외국의 벗은 북받치는 격동을 참을 길없어 심장의 목소리를 터친다.

《세계의 량심들이여 !

위대한 인간을 알려거든 여기로 오라.

인간사랑의 노래를 들으려거든 여기로 오라.

조선의 대성산혁명렬사릉으로 ! 》

...

아 수령님의 위대한 그 사랑

우리 당의 한없는 그 은정

그 사랑 그 은정에 받들려

렬사들은 영생하노라

...

한 농민의 이야기

김종백

이른새벽

별 건너 들려오는 기적소리에

나는 잠을 깬다네

시계를 보면

논물 보러 나갈 시간

나는 삽을 메고 집을 나서네

해빛도 따스한 한낮

산골이에서 기적소리 울려올 때

시계를 보면

어김없이 즐거운 점심시간

김매던 기계 멈추고 손을 씻네

정시로 달리는 렬차의 기적소리에

시계를 맞추고있네

농장의 종소리 대신하여

일파를 알려주는 기적소리

농장에 올 비료와 농기계를

역에 부리우고 가니

어서 가져가라고

농사일 도우려 오는 과학자들과

끝끝한 지원자들이

약속한 시간에 어김없이 왔다고

우리 미처 생각조차 못했던 기쁨을

수령님 바라시는 그 시간에

내 집 문앞에 두고 간다고

소리쳐 기뻐하는

아, 정시로 달리는 렬차의 기적소리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같아라

온 마을 집집에 기쁨을 주는

기적소리는

그 노래 따라부르며

달리는 렬차의 큰 걸음에

나의 걸음도 함께 맞추는듯

기다리지 않아도

황금들판 떠이고 찾아올

만풍년을 마중하여

더 좋은 날을 마중하여

렬차와 함께 나는 가네

온 농장이 가네

당중앙의 큰 시계 초침소리에

이 가슴 뿜는 심장의 고동을

맞추며 맞추며...

총을 놓지 않으리

황명성

성스런 군기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다진 그날부터
나와 한몸인 총!
조국의 무장인 나의 총!

총없는 병사를 생각할수 없듯
순간도 떨어져본적이 없으라
초소근무의 한밤을 밝힐 때도
행군의 먼길에 오를 때도

총과 함께 있어
내 가슴엔 진할줄 모르는 용맹이 솟고
내 눈동자도 별빛처럼 총총해
총이여, 너는 나의 마음, 나의 신념이 장탄된
정의의 무장

너에겐 한점의 티도 없이
너에겐 한마디 거짓도 없어
내 눈빛에 어린 총신의 섬광은
어둠을 모르고
내 숨결모아 터치는 총성은
파녀를 놓치지 않아라

오, 잃었던 조국을 찾는길에
내가 있어야 했기에
한자루 총을 위해
백두산야에 목숨바친 투사들의 넋으로
내 너를 안고있노라

영원히 주체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내 너를 놓지 않으리

총이여, 병사의 가슴에 네가 있어
우리 궁지높이 바라보는것 아니나
산새 우짖는 아름다운 산천 .
삶의 열매 주렁지는 락원의 꽃동산

불수록 정답구나
귀여운 아이들의 웃음 비끼 요람의 창가
인민의 행복 떠이고 솟은 철의 숲...
그것은 병사의 보람이며 값높은 위훈

그래서 전호가의 한줄흙의 귀중함도 알고
총과 함께 한목숨 내대여 지켜가는 조국이어
너의 시작도 너의 미래도
우리 틀어진 총대에서 담보되나니

내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조국을 지켜
병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오, 목숨은 버려도 버리지 못할
나의 총, 혁명의 피어린 무장이여
너는 조국의 생명!
내가 있어 자주의 숨결높은 삶이 있고
내 조국이 빛나는것이여라

봄날아침

김창근

파란 하늘아래 꽃같은 아이들이
웃음 날리며 학교에 가오
곱게 차려입은 예쁜 처녀는
방긋 미소를 머금고 걸소

남시줄 대동강물에 드리워놓고
시름없이 유보도에 앉은 로인
물우에 재글재글 뛰노는 햇빛을
눈이 부신듯 재미있게 바라보오

저 보오, 아기 안고 정류소에 서있는 너인
밤새 봄비 내려 읊트는 나무아지
잡을듯 고사리손 내젓는 아기한테
무어라 세상 기쁨 속삭여주오

하늘 맑아 봄이겠소
해빛 맑아 봄이겠소
사람들의 마음에 그늘 없으니
봄은 이리도 푸른 봄
이리도 화창한 봄날이 아니겠소!

탄부의 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늘 로동자, 농민과 접촉하고 로동자, 농민과 결합되며 그들속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의 원천을 찾아낼줄 아는 로동자, 농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년갱과 잇닿아있던 이 길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대형자동차들의 왕래로 하여 번거로웠다.

우리가 안주지구탄광편합기업소에 현지파견되어 창작사업을 하고있는 조선문학창작사 소설가 김동옥동무와 함께 작업복차림으로 립석탄광 청년갱 입구에 이르렀을 때는 교대차로 갱으로 들어가는 탄부들로 하여 몹시 붐비였다.

갱사무실앞에는 붉은 줄들이 서로 키를 다투며 엇비슷이 뻗어올라간 경쟁도표판과 속보들이 나붙어있었다. 공화국창건 40돛전으로 올해계획을 끝낼것을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맹세드리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곳 로동계급의 드높은 기세가 한눈에 알렸다.

《잠시도 늦잡을수 없는게 현실이지요. 더 빨리, 더 용감하게 달려나가야 한다. 이것이 여기 사람들의 불같은 결의랍니다.》 소설가의 말이다.

우리에게는 며칠전 조선문학창작사 평양시 창작실에서 한 작가와 만났던 일이 떠올랐다. …

그때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새롭지 않은 주제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성을 들고나온다는것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을 깊이있게 체험한 작가만이 개척할수 있다. 김동옥동무가 그러하다. 그는 여러해 탄광에 가서 생활하면서 현실체험을 하고있다. 그는 지금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도덕적 풍모를 예술적 향기가 풍기게 형상화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한다고 하였다. …

우리는 소설가가 쓰고있는 장편소설의 주인공원형인 한 청년혁신자를 찾아가고있었다. 그 혁신자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빙긋 웃군하는 소설가의 얼굴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 작품의 주인공의 원형에 대해 아주 만족하게 생각한다는것을 느꼈다.

우리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대전차갱이며 영구화된 결굴들, 쇠동발들을 지나 13호 채탄장을 마련

한 굴진구간에 들어섰다. 거기에는 맞춤형 키에 두 어깨가 벌어진 한 청년이 착암을 하고있었다.

《저 사람입니다. 병사시절의 그 본새대로 일하여 이해 계획을 벌써 끝냈답니다. 그는 자기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해본적은 한번도 없는 사람이지요. 절대로 자기 량심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줄 모르며 대바르고 사업에서 평가를 바라거나 남에게 발라맞추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다섯대의 천공기까지 돌아 막장안은 천공기동음으로 꽉 찼다. 휴식시간이 되자면 아직 멀었다. 우리는 그들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났다. 영구화된 갱도에 들어서자 소설가는 또 이런 말을 했다.

《평범한 나날에는 자기의 존재를 말없이 묻어두던 보통인간이였고 그저 성실하다는 그밖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직갱이 불의에 맞든 암벽으로 막혀버렸을 때 탄광에는 큰 난관이 조성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탄부들에게는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할 순간이 왔다.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 청년은 위기를 한몸으로 말없이 막아나섰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자기의 녀를 고스란히 혁명앞에 바친 고귀한 위훈이라고 밀했다. 이 일이 있은후 그 청년은 압축기운전공처녀와 일생을 같이할 약속을 했었다. 이 일이 있기전 그 처녀의 가슴에 안겨온 그 청년은 량심적이며 성실한 인간이었지만 그 이상의 매력적인 존재로는 아직 파악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처녀는 아직 마음의 전부를 바칠 준비를 갖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있은후 처녀는 자기의 《실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청년을 일생의 영원한 동반자로 택하였던것이다. …

우리는 그 처녀가 일하는 압축기장으로 찾아갔다. 압축기운전실은 멀지 않은곳에 있었다.

바람을 일구며 세차게 돌아가는 압축기결에서 그 처녀는 코노래까지 부르며 기름결레로 닥대질을 하느라 분주히 돌아갔다. 탄력있고 오돌차보이는 그 처녀는 이미 잘 알고있는 소설가 김동옥동무에게 반갑게 눈인사를 보냈다. 기계의 소음으로 처녀와 한마디도 할수 없었다. 휴식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또다시 우리는 뒤로 물러섰다.

영구화된 경도로 나와 한쪽에 걸터앉은 우리는 소설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참다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맺어져야 하며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것을 참다운 애정론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보려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현지체험을 하면서 느낀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말겨진 혁명임무를 눈에 뜨일만큼 태공하는 부정적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수 없으며 그들이 체현하고있는 성격적 특성도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있다는겁니다. 말하자면 평범한 생활속에서는 그 불성실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위선과 요령으로 감싸인 <성실성>이 일부 일군들의 <인정>을 받는 때도 있는것입니다.

때문에 로동계급의 아름다운 정신적 미를 품위있게 그려내기 위하여 진실과 거짓, 참된 량심과 겉과 속이 다른 사심을 명확히 가르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소설가의 설득력있고 다감한 이야기는 길었다.

우리는 소설가의 말을 통하여 시대를 빛내이는 위훈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알수 있었다. 이야기되고있는 긍정인물들의 꿈은 참으로 아름다운것이였다. 그 청년도 그렇고 그 처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다.

언제인가 그 청년은 취재하러 온 신문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는 끝까지 탄부로 살겠습니다. 탄부의 일터는 지하막장이여도 그의 행복은 언제나 영광의 앞자리가 아닙니까.》

실로 그 청년에게는 탄부의 영예가 어디에 근본을 두고있으며 그것을 꽃피워나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깊은 자각이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그 청년은 탄광이 자기의 활무대라고 한다. 탄부인 자기는 강철기둥을 떠받들고있으며 화력발전소를 돌려 전기를 일쿠고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탄전, 그것은 내 삶의 전부라고 한다. 그의 꿈은 훌륭한것이였다. 바로 그 꿈, 그 현실이 장편소설로 엮어질것이다. ...

《장편소설의 제목도 <탄부의 꿈>으로 하였지요. 휴식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장서 걸었다. 우리는 13 호 채탄장을 마련하는 굴진구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을 내놓아 독자들과 친숙해진 작가,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속에서 생활하는 그가 새로운 장편소설 집필에서도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본사기자

흰 연기의 흐름속엔

로영우

무수한 별들이 흐르는
저 하늘의 은하수처럼

몽게몽게 피어나는
화력발전소 하늘가의
저 장쾌한 흰 연기속엔
어려있어라
빛나는 삶의 열정높은 숨결이

어려있어라
밤이나 낮이나
끝없이 피어나는 흰 연기속엔
하늘이 아닌 땅속 깊은 막장에서 빛나는

못별이 아닌 탄부들의 미더운 모습이

어려있어라
불빛은 창가마다 비껴흐르는
행복의 노래소리
대건설행군의 거세찬 열풍속에
전진하는 조국의 숨결을 안고 사는
동력전사들의 그 수고로운 모습이

아, 어려있어라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저 즐기찬 흐름속엔
주인된 창조자의 값높은 모습이

체험의 진실성과 생동한 시형상

시초 《무지개는 천만리에》를 읽고

승경희

시초 《무지개는 천만리에》(《조선문학》 1987년 8호, 홍현양)는 생활체험의 진실성과 형상의 생동성으로 하여 독자들속에서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고있는 작품이다.

시의 사상예술성의 높이는 무엇에 많이 좌우되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한다면 물론 우리는 시에 대한 미학적 요구의 전반문제들에 대하여 말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문제는 다름아닌 시인이 체험한 생활이 얼마나 진실하며 그 생활체험의 진실성으로 하여 시형상이 얼마나 생동한가 하는 문제에 많이 달려있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생활의 본질은 구체적인 형상을 거쳐나와야 생동한 정서적힘을 가지고 안겨줄수 있다.》

시초는 7편으로 묶여졌다. 매 시편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시인은 외국방문생활체험에서 느낀 다종다양한 시적 소재들을 깊은 정서로 펼쳐보이고있다.

그러나 시초에 일관하는 사상예술성의 높이를 보장함에 있어서 시인은 구태여 그 어떤 특별한 《작시법》을 애써 찾으려 한것에 앞서 우선 문학의 근본문제인 체험의 진실성을 보장하여 형상의 생동성을 이룩하기 위한것에 많은 힘을 들이였다.

이런 느낌은 이 시초의 성공적인 시들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시인은 아득한 광야 끝없는 하늘을 날았었다. 지는 해를 따라, 어두울줄 모르는 길을 따라 멀고 먼 나라 찾아가고있을 때 눈아래 은빛구름의 바다 밑에서 순간에 나타나는 《준령의 봉우리》들을 본다. 시초의 시 《멀고먼 길》의 체험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시인의 이런 체험은 아직은 외국방문길에서라면 누구나가 체험할수 있는 레사롭고도 평범한 체험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그 《준령의 봉우리》들을 언젠가 우리 수령님께서 넘으시였다는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시인의 체험은 레사로운것일수 없다.

감격적인 시적 대상이 시인의 끓는 심장에 새겨져자부터 그 현실은 개성화되기 시작한다. 현실이 개성화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레사롭던 체험은 묻혀있던 사금과도 같이 빛을 내기 시작한다.

현실과 시인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체험의 결과를 시적 발견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아, 이 머나먼 길을
우리 수령님 가시였구나
조국이 재더미를 헤칠 때
이 길에 오르셨고
친선의 꽃바다를 펼치시려
이 하늘을 날으셨구나

...

봄과 겨울이
한계절에 가슴 맞대인 땅
이 길에
친선의 장미꽃을 피우시고
이 길에
친선의 꽃바다를 펼치시며
우리 수령님 걸으셨구나

수령님께서 걸으신 길이기애 그 길은 시인의 마음속에 어두울줄 모르는 길로 새겨진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눈덮인 밀림의 씨비리를 날고있지만 《따뜻한 봄하늘》을 날고있다고 시상을 내려쳐 노래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이 개성화되기 시작한 그 출발점은, 다시말하여 시적 발견의 지점에서 시인은 얼마간 전진하여 나아간것이다.

시적 발견과 시인사이에 일어난 이런 체험의 승화단계를 시적 전개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체험의 이와 같은 진지한 시인의 태도(탐구의 노력)는 생동한 시형상을 창조한다. 말하자면 진실한 생활체험의 부단한 노력의 덕에 시세계의 꽃을 꺾을수 있게 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시적 전개와 시인사이에 일어난 이런 체험의 마무리점을 시의 결속, 다시말하여 사상의 해결단계라고 말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인은 지금까지 심장속에 담아온 생활의 바탕이 있는 사상적 알맹이

로서의 종자를 푸른 섬광으로 빛내일수 있게 되는 것이다.

멀고먼 길
멀고먼 나라
마치 이웃처럼 갈 때에
수령님 생각
간절한 마음만은
해를 따라 질줄 모르누나!

어두울줄 모르는 길, 수령님 생각 간절한 그 마음이 해를 따라 질줄 모른다는 종자를 꽃피운것이 다.

체험의 진실성은 생동한 형상을 낳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시초의 마감을 잘 장식한 시 《해쫓는 동쪽에》가 그것을 더욱 확증해주고있다.

이 시는 시적 체험이 역시 진실하며 그 진실한 시적 체험으로 하여 그 어떤 특별한 《작시법》이나 현란하고 화려한 미사려구의 사용 없이도 생동한 형상창조에 성공하고있다.

모스크바에서 《순간도 마음속에 지워버릴수 없어》 조국의 시간을 새기는 시인의 사색은 진실하다.

나도 몰래
그 시간속에 살고있었구나
조국은 예서 수만리
그 출근시간에
내 집 문앞을 나서고있었구나

해쫓는 동쪽
저 멀리 조국이 있어
모스크바에 밤이 깃들 때
내 사랑하는 평양의 거리엔
하루의 출근길이 시작되리

나도 몰래
나도 알수 없이
해쫓는 동쪽에
맞추어있는 그 시간
조국을 떠날 때
그대로의 그 시간

시인은 바로 《그 시간》에 조국의 동무들이 떠들썩 아침인사를 나누고 귀여운 아들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고 푸릿한 새벽에 첫 전차가 거리를 가기 시작했을것을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의 창문을 여실 조국을 그리는 시인의 다감하고도 절절한 조국애의 정서가 진실하게 반영되고있음을 읽게 된다.

이 시에서 생활체험과 서정의 진실성에 의한 형상의 생동성이 두련에서 력점적으로 반복하고있는 《나도 몰래》라고 한 시행표현에 의하여 더욱 특색있게 표현되고있다.

이 표현은 멋을 돋구려고 한 표현이기보다 진실한 감정의 소박한 표현으로 하여 서정의 진실성이 한결 더 강하게 느껴진다.

가식없는 이 《평범한》 정서적 체험, 소박한 감정의 축적은 오히려 개성적인 생동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었고 평범한듯하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훌륭한 시를 낳게 한 창작의 근본문제를 관철한것으로 되었다.

그렇기때문에 이 시의 서정적 주인공-시인은 《레사로이 들어다보던》 그 시간속에서 조국이 제생의 전부로 비껴있음을 깨닫는 의의깊고도 특색있는 종자를 꽃피울수 있었으며 성과적인 시를 창작하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시초의 시편들에서 《봄눈송이》, 《물빛처럼 마음도...》, 《이것은 조각이 아니다》도 시적 체험이 진실하고 형상이 비교적으로 생동한 시로서 시초를 장식하였다고 본다.

하나의 서정시에서 시의 제목과 내용은 별개의 뜻을 지니여서는 안된다. 제목이 가지고있는 뜻의 정서적 전개가 시의 내용이요, 시의 내용으로 담고있는 뜻의 축도가 시제목일진대 그것들은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하나의 투명한 유기체여야지 불투명한 물과 기름이여서는 안된다.

체험의 진실성과 형상의 생동성을 두고 시초 《무지개는 천만리에》에 대하여 몇가지 생각되는 바를 이야기하였다.

수편의 시로 묶어진 이 시초는 사상예술성에서나 품격에 있어서 성과적인 작품이라고 본다.

우리 시인들은 이 시초가 시사해주는 시문학 창조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참작하여 보다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의 높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할것이다.

작가의 문체

오명환

(제 4 회)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작가가 대상, 현상을 개념으로, 직선으로 보지 않고 비유해보고, 대조해보고, 속내를 보고, 덧쌓아 보고, 풀어보고, 본따보고, 런결시켜보고, 확대해 보고, 에둘러보고, 감각해보는 능력은 그 특징이 어떠하며 경향성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 질이 결정된다.

다시말하면 그 비유가 적중할수록, 그 대조가 새로울수록, 그 속내가 심원할수록, 그 덧쌓임이 고조를 이룰수록, 그 풀이가 섬세할수록, 그 본따미 방불할수록, 그 런결이 슬기로우실수록, 그 확대가 비방할수록, 그 에두름이 감미로우실수록, 그 감각이 예민할수록 남과 구별되는 능력은 더욱 커진다.

전자가 다른 문체와의 관계 즉 공식-사무문체, 사회-정치문체, 신문-론설문체, 과학-기술문체와의 관계에서 본 문학-예술문체의 특성으로 된다면 후자는 문학-예술문체안에서 본 개인문체의 특성으로 된다.

이러한 전제밑에서 다시 소설가 김병훈의 문체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자.

뜻이 깊은 문장이 생동성, 호소성, 정서성을 배제하지 않는것처럼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도 형상성, 호소성, 정서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생동성을 따로 구별하여 보는것은 뜻이 깊은 문장과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이 서로 달성하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기때문이다.

뜻이 깊은 문장이 주로 생활철리와 자연리치를 밝힌다면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은 인상적인 화폭을 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은 어떤것이며 거기에 작가의 관찰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자.

직접비유를 리용한 실례

직접비유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다른 대상이나 현상에 직접 비기여 표현함으로써 직관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표현수법이다.

이 수법은 주로 《처럼, 같이, 마냥, 양, 모양, 듯》과 같은 보조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선명한 구조를 가진다.

노란 금잔디우에 **피덩어리같이** 새빨간 단풍잎들이 간단없이 날아떨어졌다.

벼락치듯 만들어놓은 집단부락이라 토성과 포대도 미처 쌓을 겨를이 없어 목책을 둘러쳤으며 큰 문열에 **망루갈기도 하고 포대갈기도 한** 높은 다락 하나를 들어올리고 기관총을 걸었다.

장호의 가슴 한구석엔 아직도 기관총에 대한 미련이 **채한것처럼** 몽쳐서 내려가지 않았다.

참자참자 하여도 **동을 더놓은듯이** 절로 자꾸 넘쳐나오는 눈물이였다.

좌중에 둘러싸여 노상 자애롭게 웃으며 담소하는 장군님의 밝으신 얼굴을 대하고보니 가슴 한구석에 엉키여있던 불안과 위구의 몽치가 **음달아래 박혔던 한조각의 살얼음이 따뜻한 봄별을 쏘이며 자취없이 스러지듯** 스르르 가셔지고말았다.

꿀짜기가 갑자기 **나팔통처럼** 벌어지더니 앞이 내다보였다.

벼락을 맞은 적들은 마치 **불속에 든 메뚜기떼처럼** 벌떡벌떡 산지사방으로 뛰며 나동그라지며 아비규환이다.

교차화력속에 든 적들은 **쌍도리깨질을 당하는 콩단처럼** 몽청몽청 무대기로 무너져 공지우에 너저분하게 나가너부러졌다.

해빛은 어찌도 선명하고 부드러운지 백설덮인 꿀짜기의 숲과 너럭바위와 굽이우에 **연분홍물감이 라도 흘린듯** 곱게 잦아들었다.

집밑동아리에 주련이 돌아가며 뿔러있는 창구 명마다 적들이 주렁주렁 대가리를 내밀고 거꾸로 매달려 **자벌레처럼** 꿈지럭거리고있었다.

《…좀 아픈지 하지만 **배졌던 근이 빠진것 같은** 게 씨원하우…》

얼굴은 모두 끝끝한 장정들이었으나 표정은 **학교가는 날 책보를 둘레메고 나서는 소년들처럼** 순박하고 애된 기쁨에 취하여있었다.

숙경은 **호랑이앞에 선 사슴모양**으로 꼼짝 못하고 가슴을 떨었다.

지난해 정월초사흘에 고노에내각이 무너진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꼭 1년동안에 3개의 내각이 **주련이 세워놓은 썩은 울바자 넘어지듯** 연달아 무너져 나갔다.

김일성장군의 머리에는 그때 벌써 모든것이 작정되었다는것을 생각할 때 노자끼는 **코등을 쇠뿔등이로 들이치는듯** 아득한 감을 다시금 느꼈다.

어쩌면 그 오동통하고 귀엽게 생겼던 얼굴이 **시든 감자쪽마냥** 저렇게도 쭉그러들인달인가.

서장은 시켜던 털이 부르르 덮인 큰손으로 **굴뚝길같이** 피부가 승굴승굴한 턱주가를 슬슬 문지르면서 무슨 궁리엔가 골똘하여 인관을 건너다보았다.

이상의 레문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직접비유한 현상이 적중하고 새로운것일수록 그것이 주는 표상은 더욱 생동해진다. 그것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비유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유이기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는 직관성은 더 두드러지고 미적 감흥도 더 커질수밖에 없다. 직접비유에서 발현되는 작가의 관찰력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비록 직접비유의 수법을 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비유가 류형화된것이라면 거기에서는 작가의 남다르게 보는 관찰력을 느낄수 없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미 기성화된것을 전혀 쓸수 없다는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기본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처음으로 이루어진 비유가 기본으로 되면서 류형화된 비유를 발전시켜 쓴것도 있고 기성화된 비유를 그대로 쓴것도 있어야 한다.

앞에서 본 실례들이 바로 그렇게 주어졌다.

표현수법리용측면에서 소설가 김병훈은 직접비유를 즐겨쓰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즐겨쓴다는것은 많이 리용한다는 측면과 함께 거기서 표현적 효과를 많이 보고있다는 다른 측면이 포함된다. 그러한 특징은 그의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고있다.

편집자는 언젠가 우산장 못가에서 몇몇 작가들과 같이 낚시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다.

작가들속에는 못가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잡아놓은 물고기는 애끼손가락만한 붕어 몇마리였다. 그것을 들여다보며 웃고있을 때 산보하던 김병훈이 동료들한테로 다가왔다

그는 못가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앉아 감부기를 들여다보고있는 작가에게 이렇게 룹말을 하였다.

《**타락한 사람처럼** 가련하구만. 낚시군이 언제 이렇게 타락했소.》

큰강도 아니고 넓은 호수도 아닌 작은 못가에서 낚시질을 하는 동료들 그는 이렇게 특징지었다.

타락이란 잘못된 길에 굴러떨어진것을 이르는 말이다. 낚시군이 잘못된 길에 굴러떨어진 모양을 얼마나 생동하게 특징지었는가.

이러한 언어행위는 그가 대상, 현상에 대한 관찰에서 얼마나 예민한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것은 오래동안 품을 들여 한 표현이 아니기때문이다. 한다하는 낚시군이 못가에 낚시를 던지고 주의를 집중하고있는 모습, 잡아놓은 애끼손가락만한 붕어 몇마리… 거기서 타락한 사람의 가련한 모습을 직감한 순간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인것이다. 그것이 순간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비유한 그 표현적 효과는 큰것이다.

표현수법리용의 측면에서 소설가 김병훈은 직접비유와 함께 성구속담리용의 수법을 즐겨 쓰는 작가이다. 이것은 그의 창작초기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경향성을 띠고있는 특징이다.

1960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길동무들》을 보면 주로 직접비유와 성구속담리용의 수법을 쓰고있다.

내 열결상에는 할아버지들 몇분이 창문턱에 붙은 탁상에 생강술병을 놓고앉아 **권커니 작커니** 꺾 꺾 웃으면서 유쾌히 담소를 하고있었다. (성구속담)

세찬 바람이 청년들의 머리카락을 마구 형클어뜨려서는 **갈기처럼** 나뭇기게 한다. (직접비유)

《동문 참 성급하구만요. 아무거나 갓 낳았을 떤다 저렇게 작구 미더워보이지 않지요 뭐. 범의 새끼

도 갖 낚으면 쥐만해요. 저래봐두 앞으로 이태만 있으면 **팔파시같은** 잉어가 되거든요.》(직접비유)

《허허, 참 동무, 그야말로 **닭알난가리를 가리는** 게 아니요?》(성구속담)

《아니, 거 **꿩먹고 알먹기**구만요!》(성구속담)

신이 난 처녀는 마치 **연단에서 강의나 하는듯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내리쏘는다. (직접비유)

처녀는 열적게 웃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멀리 푸른 하늘가로 연줄연줄 어깨를 걸고 **파도처럼** 밀려간 산발들을 바라본다 (직접비유)

처녀의 얼굴은 별절게 달아올랐고 눈망울은 **숯불처럼** 이글거린다.(직접비유)

어찌도 빨리 철길을 가로질러 뛰어가는지 파란 머리수건의 꼬리가 **해병모의 땡기처럼** 뒤로 나뭇긴다. (직접비유)

이때에 처녀가 개찰구로 **총알같이** 뛰어나왔다. (직접비유)

《명숙이, 난 동무의 계획이 꼭 성공되리라고 믿소. 암 되구말구! **지성이면 감천이라구.**》(성구속담)

드문드문 해빛에 번득거리며 뒤설레는 초록빛 무성한 가지를 온몸에 두른 **비단결같이** 하얀 자작나무들이 마치 **자기의 몸매를 물속에 비추어보기도 하는듯이** 휘우뚱하니 벼랑턱에 고개를 기울이고 서있었다. (직접비유)

이것이 1960 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길동무들》에서 뽑은 직접비유와 성구속담 리용의 실례들이다.

이번에는 그로부터 약 20 년후인 1981 년에 발표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뽑아보자.

앞에서 이미 직접비유의 실례들은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성구속담리용의 수법만을 분석해보자.

성구속담리용의 수법으로 표현한 실례

성구속담리용의 수법이란 본래의 단어나 단어결합을 대신하여 성구속담을 리용하는 수법이다.

성구속담은 그가 가진 민족성과 통속성, 생동성과 형상성으로 하여 그 리용에서는 매우 높은 표현적 질을 얻게 된다.

성구속담의 구성내용을 구분해보면 직접비유로 이루어진것과 과장의 수법으로 이루어진것 그리고 반의적 성격을 띠면서 이루어진것 등이다.

작전은 **순풍에 돛을 달았다.**

이 레문에서 《순풍에 돛을 달았다》는 《무슨 일에서 시련이나 고생이 없이 순조롭게 잘되어나가는 경우》를 이르는 말로서 직접비유로 이루어진것이다.

직접비유로 이루어진데로부터 얼핏 보기에는 《작전은 순풍에 돛단 격으로 잘 맞물려나갔다》로 표현했어야 정확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음미해보면 《순풍에 돛을 달았다.》는 때이른 패승에 도취한 노자끼의 허장성세를 드러내는 매우 적중한 표현이라는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표현적 질은 조급하고 과대망상적인 《련합토벌사령관》 노자끼의 치명적인 약점을 관찰한데서 얻어진것이다.

《...적들이 우리의 의도를 알아채고 미리 대응태세로 넘어간다면 피땀을 뿌리며 헤쳐온 우리의 천리원정길은 **문앞에 와서 어푸러지는 격의** 헛걸음이 되고말것입니다.》

이 레문에서 《문앞에 와서 어푸러지는 격》은 《잘되어가던 일이 마지막에 망쳐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이것 역시 직접비유로 만들어진것으로서 그앞에 놓인 《피땀을 뿌리며 헤쳐온 우리의 천리원정길》과 반의적 성격을 띠면서 내용의 본질을 생동하게 리해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적 질은 치른 대가와 헛수고를 비교해보는 관찰에서 얻어진것이다.

《**쓸개빠진** 자식들같이니라구, 여기서 울기강상류라는데가 **없어지면 코당을데가** 아니냐?...》

이 레문에서 《쓸개(가) 빠지다》는 《하는것이 속이 없고 온당치 못함》을 이르는 말로서 직접비유로 만들어졌고 《없어지면 코당을데》는 《매우 가까운 거리》를 이르는 말로서 과장법으로 이루어진것이다.

욕설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무시하면서 잘못만을 과장하기마련이다. 이러한 특징을 드러낸것으로 하여 매우 표현적이다. 이것은 성이나서 욕을 퍼붓는 사람에 대한 관찰에서 얻어진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송원의 메아리

손철남

나는 작년 봄에 태천언제건설장에서 떠나는 자동차에 몸을 싣고 지도에서조차 어느 지점에 그 이름이 찍여져있는지 알수 없는, 허나 지금은 일당백의 기상이 도도히 굽이치는 송원언제건설장을 찾아갔다.

창끝처럼 치솟은 아아한 산봉우리들과 키돋움하는듯 사뭇치는 강물의 거센 흐름을 가로타고앉은 언제기중기들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나는 아슬아슬한 험산준령을 넘어온 피곤도 잊고 《야!》 하고 탄성을 질렀다. 태천발전소 건설의 맨앞장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흥분이 나로 하여금 환성을 지르게 했다. 송원이야말로 서해갑문 못지 않게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하는 영웅적 위훈으로 하여 얼마나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되어있는 곳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구감으로 마음속에 새겨진 송원언제 건설장에 왔다는 기쁨이 나의 가슴을 부풀게 했다.

나는 려장도 풀사이 없이 언제건설장으로 달려나갔다.

저녁노을에 용접의 섬광도 붉게 타는 언제건설장은 기계의 동음으로 가득찼다. 강을 막아 절벽처럼 일떠서는 언제우에서는 혼합물바가지를 문 기중기들이 긴 팔을 휘젓고 각종 다짐기들의 야무진 진동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다. 신호공들의 호각소리, 착암기소리, 골재를 싣고오는 기관차들의 숨가쁜 기적소리... 건설장의 소음은 돌격의 함성인양 하늘과 땅을 진감했다. 마치 우안에 높이 새운 붉은 표고점을 향해 온 송원땅이 나래쳐오르는듯했다.

《오늘 혼합물생산 130%!》

《수송은 넘려말라. 하루 한탕 더 한다!》

건설장의 성과를 대변하듯 글자마다에 빛나는 위훈을 담고있는 특대형속보들은 나로 하여금 송원언제를 맡아선 군인건설자들이야말로 80 년대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수백리 길을 그것도 탄탄대로가 아니라 험산준령을 넘어야 하는 아슬아슬한 운행길임에도 하루 한탕을 더 하겠다는 이들의 결의야말로 포연탄우를 헤치며 전선으로 탄약을 싣고 달리던 전시수송전사들의 그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그달음으로 수백리길을 강행군하여 벌써 다음날에는 산새들만 우짚던 태고연한 송원땅

에 첫 발과의 메아리를 울렸었다. 전사들과 장령이 한마음한뜻으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살을 어여내는 추위속에서 7 일만에 가물막이를 끝냈다. 20 일만에는 언제기초굴착을 끝내고 한달만에는 수십개의 주항도를 건설하여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영예롭게도 《영웅부대》의 칭호를 받았다.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오늘도 그 성과를 더욱 빛내여가고있었다.

정녕 총포탄이 울부짖는 가렬치절한 싸움터에만 격전이 있고 영웅이 있으며 영웅부대가 있겠는가.

세멘트와 철강재를 만재한 자동차 대편대들이 수백리 길을 달려 꼬리를 물고 여기로 오고 아름답리 강철기둥들이 하늘을 치받고 선 선별장에서 기관총련발사격을 하듯 하루에도 수천립방의 자갈이 떨어지는 소리가 귀따갑게 들리고 아아한 계곡을 따라 소용돌이치며 흘러내리는 강의 푸른 물줄기를 막는 여기, 뜨는 해도 솟는 달도 여기서 맞으며 관병이 하나의 의지로 살며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가는 이 송원언제건설장이야말로 80 년대의 대격전장이 아니겠는가!

무적의 힘을 가진 우리 영웅전사들만이 발휘할 수 있고 창조할수 있는 이 기적, 이 위훈을 두고 나는 가슴뜨거운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오직 당의 숨결로 살 때 당의 의지로 투쟁할 때 우리에게는 무진장한 힘이 생기며 못해낼 일이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기적도 이룩하게 되며 영웅전사로도 되는것이다.

나는 송원땅에서 이 진리를 다시한번 새롭게 체득하며 붉은 표고점을 향하여 웅장하게 일떠서는 언제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불수록 이것이 어찌 한갓 평범한 언제에 지나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당과 수령을 혁명무력으로 보위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다그쳐가는 일당백의 군인건설자들이 당에 바치는 불같은 열정이고 순결한 마음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의 탑이 아니겠는가!

나의 생각을 긍정이나 해주듯 우안에서 팡 파르릉! 하고 발파소리가 연거퍼 울렸다. 순간 거대한 불기둥들이 솟아올랐다. 하늘중천에 날아오른 발파먼지가 포연처럼 노을에 불탔다.

짹 짹 파르릉!

또다시 발파소리가 높이 울렸다.

이 끝안에서도 저 끝안에서도 발파소리가 제주 식으로 맞받아 올렸다. 그 어떤 거대한 위훈을 또다시 부르는듯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 발파소리는 우렁찬 메아리였다. 천둥이 일듯 끝안을 뒤흔드는 장엄한 메아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정치적 자각만 높이 가지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으며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진리를 온 세상에 뜨겁게 전하려는듯 싶었다.

천년을 두고 만년을 두고 굶을 따라 굶이치던 강물을 우리의 의지대로 멀지 않아 태천발전소로 보낸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통쾌감과 함께 80 년대에 살며 일하는 공지가 가슴 뿌듯이 안겨왔다.

산악도 격랑도 넘고 헤치며...

하루를 영예롭게 장식한 군인건설자들이 힘차게 노래부르며 규모있게 늘어선 병실로 씩씩하게 행진해왔다.

그 노래에 화답하듯 온 끝안이 또다시 메아리쳤다.

산악도 격랑도 넘고 헤치며...

송원언제 1 계단공사가 끝난 지금에 와서도 나에게는 그 메아리가 송원과 함께 어서 달리자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으로 공화국창건 40 뛴을 맞는 올해를 빛내이자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해나가자고 나를 부르고 태천을 부르고 온 나라를 부르는 군인건설자들의 절절한 호소처럼 들렸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산골 송원에서 울린 그 메아리아말로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인 위훈을 그대로 전하며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빛내여진,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혁명의 진리를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주는 80 년대의 송가라고 말할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송원의 장엄한 메아리를 생각할 때마다 새힘과 용기를 얻군한다.

가사

동무여 또다시 떠나자

최준경

우등불 지켰던 강반에
청춘의 기념비 세웠네
창조로 불타는 이 심장
조국은 또다시 불렀다
동무여 더 높이 위훈의 나래를 펼쳐라
어깨에 배낭을 메고 새 일터 향하여 떠나자

우리는 어제날 공로로
안식을 원하지 않는다
평온을 누리는 삶보다

바치는 구슬땀 더 좋다
동무여 또다시 유쾌히 웃으며 떠나자
화려한 거리를 두고 진펄길 밟으며 떠나자

우리의 걸음은 전진뿐
휴식도 투쟁에 바치리
조국땅 끝에서 끝까지
건설의 천막을 옮기리
동무여 또다시 속도전 기발을 날려라
우리 당 바라는 길에 청춘의 심장을 바치자